HAPPINESS . DIGEST

구호봉사

건강, 치유, 행복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orean

저작권 © 2020.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해당 저작권법이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또는 기타 형식 또는 수단으로.

본 책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가 보유합니다. 복사, 녹음, 정보 저장,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편집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본 책의의 어떤 부분도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출판 데이터의 카탈로그

편집 및 디자인: 뉴 언약 국제 간행물

영국에서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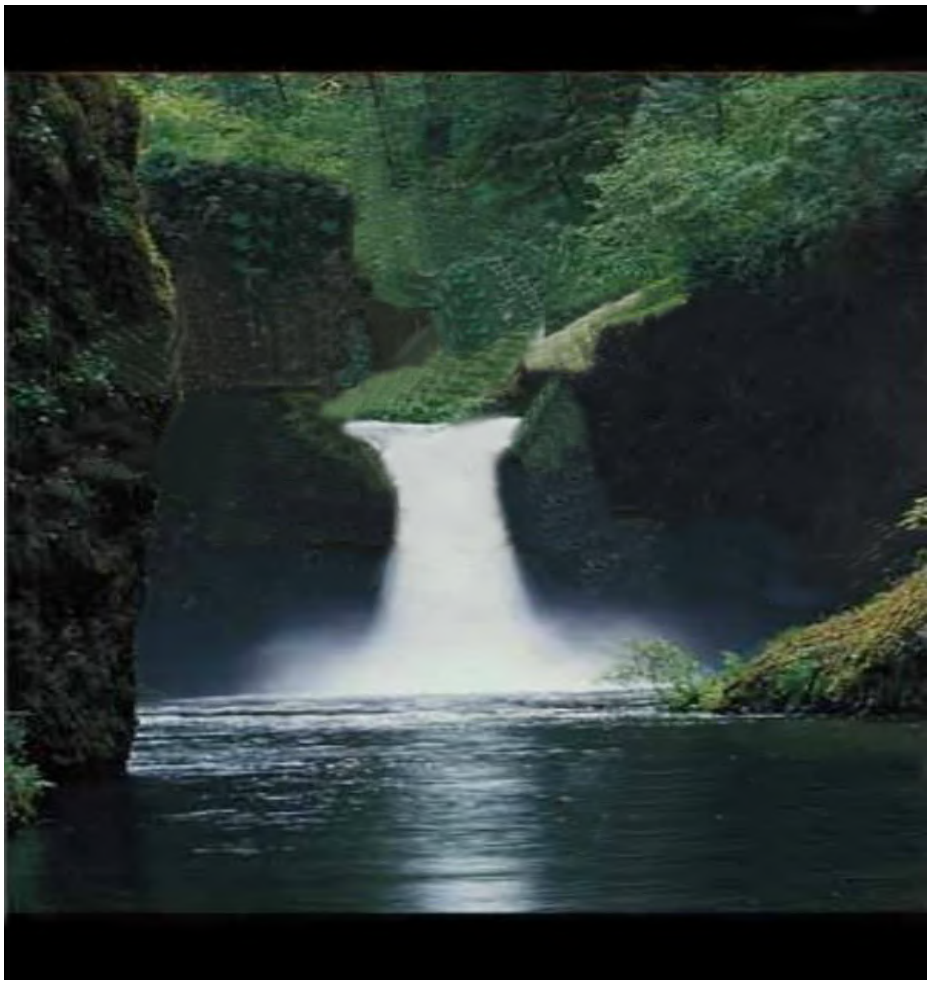
최초 인쇄 2020 년 5 월 26 일

게시됨: 뉴 언약 국제 간행물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웹 사이트 방문 : www.newcovenant.co.uk

구호봉사



엘렌 G. 화이트

맥베스: 병든 마음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기억에서 뿌리깊은 슬픔을 뽑아내고,

뇌의 글쓰는 고민을 없애고,

그리고 달콤한 망각 해독제와 함께

그 위험한 물건의 물건의 가슴을 청소하십시오

어떤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5 막, 장면 III

맥베스, 1606 년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Email: newcovenantpublicationsintl@gmail.com

헌정의 글

하나님께 바쳐진

서문

새 언약 출판물 국제 하늘과 땅을 바인딩 신성한 계획과 사랑의 법의 영속을 강화와 독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언약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의 중심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사실,새 언약은 구속에 증명,줄어들지 않은 투쟁에 의해 탄생과 혈액에 의해 밀봉.

수많은 세기 동안,많은 견디고 마모에 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의 계산을 없애는 진리입니다. 특히 암흑 시대에,빛이 있었다 크게는 궁지에 몰린과에 의해 가려는 인간의 전통과 인기있는 무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계는 지혜를 멸시하고 배반하의 언약입니다. 대재앙의와 타협을 방지할 자극 악 이러한 재앙의 무한 퇴화 및 악마 같은 비인간적에는 많은 생명을 희생을 부당하게 거부,항복하심이 있으. 그럼에도 불구하고,잃어버린 지식은 특히 개혁의 시간 동안,부활했다.

16 세기의 개혁 시대는 반 개혁에 반영 된 진리,근본적인 변화 및 결과적 난류의 순간을 촉발 시켰습니다. 그러나,이를 통해 볼륨,하나의 재발견 명백한 의미의 이 유일한 혁명의 관점에서 본 개혁자 및 다른 용감한 개척자. 자신의 계정에서,하나는 황폐 한 전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놀라운 저항과 초자연적 인 개입의 기본 이유.

우리의 모토:"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은 중요한 시대와 그 영향으로 구성된 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 개혁,부활과 변화의 긴급 공감. 으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결합에 의해 기관의 번역,전파의 원리,개혁 신앙을 약 500 년 전,디지털 압박과 온라인 미디어 통신 것이라 모든 언어로 진리의 빛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간.

치유 부

치유 부

목차

1장 우리의 모본 5
2장 봉사의 날들 11
3장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함 24
4장 믿음의 접촉 28
5장 심령의 치료 37
6장 봉사를 위하여 구원해 줌 48
7장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59
8장 교육자로서의 의사 68
9장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 77
10장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 92
11장 부절제한 사람을 위한 봉사 98
12장 직업없고 집없는 사람들을 도와 줌 107
13장 도와 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 119
14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 125
15장 병실에서 131
16장 병자를 위한 기도 134
17장 치료법의 활용 141
18장 정신치료 145
19장 천연계와의 교제 160
20장 일반 위생 166
21장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법 169
22장 의 복 176
23장 식생활과 건강 181
24장 음식물로서의 육류 190
25장 음식물에 대한 극단 193

치유 부

26장 자극성 식물과 마취제 197

27장 주류 판매와 주류 양조 판매 금지 203

28장 가정관리 211

29장 가정 건설자 214

30장 가정의 선택과 준비 219

31장 어머니 223

32장 자 녀 227

33장 가정 감화 233

34장 선교훈련으로서의 참 교육 237

35장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247

36장 이론적 지식의 위험성 262

37장 거짓 교육과 참 교육 275

38장 참 지식을 탐구하는 중요성 284

39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지식 289

40장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297

41장 대인관계 306

42장 향상과 봉사 315

43장 최고의 경험 320

1편 참된 의료선교사

1장 우리의 모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 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마 8:17).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다. {MH 17.1}

그분의 도움을 찾아 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마는, 그분께 나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 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다. {MH 17.2}

구주의 사업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분의 동정은 제한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치료하고 가르치는 당신의 사업을 너무도 대규모로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께로 모여든 무리들을 수용하리만큼 충분히 큰 건물이 팔레스틴에는 없었다. 갈릴리의 푸른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 바닷가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병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분의 병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 통과하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촌락에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을 앓는 사람들 위에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 하루 종일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그리고 밤에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낮 동안에 적은 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셨다. {MH 17.3}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될 것을 아셨다. 그것이 그분의 심령을 누르는 부담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 위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통하여 고독하게 걸어 가셨다. 그러나 그분 앞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죄악을 목격하셨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죄악의 세력을 보셨다. 그럴지라도 그분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MH 18.1}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명 완수에 엄격히 맞추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그분을 랍비 학교에서 발견하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하셨다. 그 대답은 당신의 평생사업의 근본을 말한 것이었다(눅 2:48, 49). {MH 19.1}

그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아희생의 생애였다. 그분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당신을 영접해 주는 친구들의 친절한 영접 이외는 이 세상에서 거할 집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의 생애를 사시고 가장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채로 당신께서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사람 사이로 걸어다니셨다. {MH 19.2}

그분께서는 언제나 인내하시고 쾌활하셨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생명과 평화의 사자로 환영하였다. 그분께서는 남녀들과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필요성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다. {MH 19.3}

예수님께서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에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를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였다.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의 자비의 소식이 그분을 앞서 갔다. 그분께서 지나가신 곳은 어디든지 그분의 동정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새로 발견한 능력을 시험해 보여 주고 있었다. 무리들은 그들 주위에 모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듣고 있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처음으로 들어본 소리였으며 그분의 이름은 그들이 처음으로 말한 처음 불러본 이름이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처음으로 쳐다본 얼굴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는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분께서 마을과 도시들을 통과하실 때 그분께서는 마치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물줄기 같으셨다. {MH 19.4}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마 4:15, 16). {MH 20.1}

구주께서는 모든 치료의 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 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것이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의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MH 20.2}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나라의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그 길을 택하셨다 그분께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시며 큰 길가나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셨다. 바다에서, 산기슭에서, 도시의 거리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성전의 바깥 뜰에서 가르치심으로 이방인들도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다. {MH 20.3}

그리스도의 교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으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랍비들은 유전에 집착되어 인간의 이론과 사상을 강조했다. 때때로 성경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르치고 기록한 것이 성경자체를 대신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분께서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록하였으되,""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친구이거나 원수를 막론하고 어떤 관심이 일어난 것을 볼 때마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제시하셨다. 분명하고 능력 있게 그분께서는 복음의 기별을 주장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성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로 주어졌다. 그분의 말을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처럼 깊은 의미를 이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다.* {MH 21.1}

그리스도와 같은 전도자는 결코 없었다. 하늘의 왕이셨던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신 것은 사람들을 현실 그대로 만나기 위함이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한 자와 속박되어 있는 자, 곧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사자로서 구원의 기별을 증거하셨다. 위대한 치료자로서의 그분의 명성은 온 팔레스틴에 퍼졌다. 병자들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그분께서 지나가시는 곳으로 나왔다. 여기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여, 또한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받고자 나왔다. 그와 같이 영광의 왕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MH 22.1}

그분께서는 그 나라의 큰 연중 축제에 참석하셨다. 그리고 외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하늘의 사물들을 이야기해 주고 영원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보고(寶庫)에서 보화를 가져다 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단순한 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말을 오해할 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 주셨다. 그분께서는 부드럽고 예모 있는 덕성으로 죄에 병든 영혼들에게 봉사하셨고 치료와 능력을 가져다 주셨다. {MH 22.2}

교사들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을 매개로 하여 백성들과 접근하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것이 언제나 가장 거룩하게 기억되고 공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셨다. 그분께서는 저들의 유익과 행복을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청중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그분의 교훈은 매우 솔직하고, 그분의 비유는 매우 적절하고, 그분의 말씀은 매우 동정적이며 즐거운 것이었으므로 청중들은 매혹되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단순성과 열성때문에 모든 말은 존중되었다. {MH 23.1}

그분께서 보내신 생애는 얼마나 바쁜 생애였던가! 날마다 그분께서 궁핍과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비천한 가정에 들어가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은혜롭고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마음으로 그분께서는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시면서 다니셨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축복을 가지고 다니셨다. {MH 24.1}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는 한편 부유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연구하셨다. 그분께서는 부유하고 교양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의 귀족들, 로마의 집권자들로 더불어 교제하고자 노력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잔치에 참석하시고 당신 자신이 그들의 취미와 직업에 친숙하시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부(富)를 보여주고자 하셨다. {MH 24.2}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늘에서 능력을 받음으로써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인내와 동정 깊은 도움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분께서는 부드러운 은혜로 사람들의 심령에서 불안과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적의(敵意)를 사랑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MH 25.1}

그분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 세상에 사로잡힌 속박은 깨뜨려졌다. 그분의 음성을 듣자마자 탐욕과 야망의 정신은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구주를 따르기 위하여 일어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MH 25.2}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께서는 국적이나 계급이나 신조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민족적인 특권으로 규정하고 세상에 있는 그 외의 하나님 가족들을 제외시키고자 욕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 마치 공기와 햇빛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제한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오셨다.* {MH 25.3}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급 제도가 없는 종교, 곧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노예를 하나의 형제로 연결시켜 주고 하나님 앞에 동등되게 해 주는 종교를 세우셨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그분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이웃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 친구들과 원수들 사이에 차별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은 생명수를 갈급하는 영혼이었다. {MH 25.4}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 중에 계시든지 그 시간과 환경에 적절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나타낸 모든 무관심과 모욕은 다만 그들에게 당신의 신성과 인성을 겸한 동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 주었다. 그분께서는 가장 거칠은 사람들과 가장 소망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고, 그들에게 흠없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애할 수 있는 품성을 얻게 해 주셨다. {MH 25.5}

때때로 그분께서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낙심되고, 병들고, 유혹받고 타락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드러운 자비의 말씀, 곧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 그분께서는 영혼의 원수들과 백병전(白兵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MH 26.1}

그분께서는 존경받는 손님으로서 세리의 식탁에 앉으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동정과 사교적인 친절로써 당신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위치에 놓이고자 갈망했다. 그들의 갈급한 마음에 그분의 말씀은 복되고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전달되었다. 새로운 충동이 일어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새생애의 가능성이 열려졌다. {MH 26.2}

비록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었지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리낌없이 사귀었으며 당신의 동족인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 멸시받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지붕 아래서 그들과 함께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잡수셨으며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을 같이 나누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고 무한한 친절과 예의로써 그들을 대하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동정의 줄로써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한편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써 유대인들이 거절한 구원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다. {MH 26.3}

개인적 봉사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라.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물을 길으러 왔을 때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계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심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분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얻고자 하셨으며, 또한 생명의 샘물을 그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원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말하였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7-14). {MH 27.1}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여자에게 얼마만큼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셨는가! 그분의 말씀은 얼마만큼 열렬하고 웅변적이었는가!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그의 친구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요 4:29, 39). 그리고 그 말이 그 당시부터 여러 해를 지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 그 감화력을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MH 28.1}

어디에서나 진리를 받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교훈하시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시고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받으실만한 봉사가 무엇임을 말씀해 주신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고 말씀하신다. {MH 28.2}

2장 봉사의 날들

가버나움의 한 어부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봉사하였다(눅 4:38, 막 1:30, 마 8:15). {MH 29.1}

그 소식은 신속히 퍼져 갔다. 그 이적은 안식일에 행해졌으므로 사람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해가 지기 전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했다. 그러나 해가 진 후에 집에서, 상점에서, 시장에서,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초라한 오막살이로 몰려왔다. 병자들은 들것에 들려, 지팡이에 의지하여,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 없이 비틀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MH 29.2}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들은 몰려왔다가 몰려가곤 했다. 내일 그 동일한 치료자를 그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가버나움에서 그 날의 일과 같은 것을 본적이 없었다. 승리의 음성과 구원의 함성으로 공중은 충만해 졌다. {MH 29.3}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의 일을 멈추셨다. 무리들이 떠나 가자 이미 밤은 깊어졌고 시몬의 집은 적막에 싸였다. 지루하고 분주했던 하루는 지나갔고,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찾으셨다. 그러나 도시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 하셨다"(막 1:35). {MH 29.4}

아침 일찍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눅 4:43)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MH 30.1}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던 흥분 상태로 볼 때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 상실될 위험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육체적 질병을 고쳐 주는 사람으로 당신 자신이 주목을 받는 일을 만족히 여기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주로 알려 주고자 노력하고 계셨다. 사람들이 그분을 세속적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열렬히 믿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이키고자 열망하셨다. 단순한 세속적 성공은 그분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었다. {MH 31.1}

주의성 없는 무리들의 경탄(驚嘆)은 그분의 마음에 거슬렸다. 그분의 생애에는 자신을 내세우는 주장이 전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지위와 재물과 재능에 대하여 돌리는 존경은 인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사람들이 충성심을 얻거나 존경심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떤 수단도 예수님께서는 사용치 않으셨다. 그분께서 출생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그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되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사 42:2, 3). {MH 31.2}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까다로운 형식주의와 그들의 예배의 허식과 그들의 자선 행위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토론의 주제로 만듦으로 그들의 종교에 대한 열성을 증거하였다. 교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은 요란하고도 지루하였다. 거리에서 율법을 잘 아는 학자들이 내뱉는 분노한 논쟁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MH 32.1}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 생애에는 시끄러운 논쟁, 허식적인 예배, 칭찬을 받고자 하는 행동 등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고자 열망하셨다. {MH 32.2}

의의 태양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빛나는 화려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고 기록되어 있다(호 6:3). 조용하고 부드럽게 새벽 빛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에 생명을 일깨워 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신다(말 4:2). {MH 32.3}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사 42:1) {MH 33.1}

"주는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사 25:4) {MH 33.2}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 42:5-7) {MH 33.3}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 42:16) {MH 33.4}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사 42:10-12). {MH 33.5}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사 44:23).* {MH 33.6}

헤롯의 감옥에서, 구주의 사업에 관하여 실망과 낭패를 안고 있던 그곳에서, 침례 요한은 사태를 주시하고 기다린 나머지 그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였다. {MH 34.1}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마 11:3). {MH 34.2}

구주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분의 침묵을 이상히 생각하면서 서 있는 동안, 앓는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고 있었다. 전능하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고 들어갔다. 그분께서 손으로 한 번 만지시면서 말씀하시자, 소경의 눈이 열려 대낮의 빛과 천연계의 모습과 친구들의 얼굴과 구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은 건강하고 활기 찬 모습으로 일어났다. 중풍병 걸리고 사귀 들린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들의 광기(狂氣)는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였다. 랍비들에게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도외시되어온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 주셨다. {MH 34.3}

그와 같이 그 날은 지나가게 되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시고, 가서 그들의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6절)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별을 가지고 갔으며,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MH 35.1}

요한은 메시야에 관한 예언을 회상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심이라 (사 61:1, 2). 나사렛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야셨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필요성을 따라 봉사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나타났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낮은 신분까지 내려오신 그분의 겸손에서 보여졌다. {MH 35.2}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께서 메시야가 되심을 선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보여주었다. 요한에게는 광야에 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진리가 계시되었다.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왕상 19:11, 12), 그러나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왕위와 나라들을 전복하거나, 화려한 것과 외관상 과시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실 것이 아니고, 긍휼과 자아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수행하실 것이었다. {MH 36.1}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과시를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역사(內的役事), 곧 생명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한 인간의 성품 속에 보여진다. {MH 36.2}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善)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 나라의 원칙에 잠겨 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애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MH 36.3}

재물과 높은 지위, 값비싼 장비, 건물과 설비 등은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허영심을 조장시켜 주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세속적인 과시는 하나님의 안목에 무가치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가치있게 여기신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내 줄

때에만 가치가 있다. 가장 잘 정선된 예술품도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과 비교될 수 있는 미(美)를 간직하고 있지는 않다. {MH 36.4}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을 때, 그분께서는 불멸의 재산, 곧 세상이 창조된 이래 사람들이 축적해 온 부(富)도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재산을 인류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간직되어 온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을 통하여 받고 나타내고, 나누어 주어야 할 보화이다. {MH 37.1}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인간의 노력은 헌신적인 일꾼의 활동에 의하여,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만 능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우리에게 치셨고,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당신의 의로써 우리를 덮어 주신다. {MH 37.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봉사사업에 남녀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세속적 재산과 학문과 웅변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묻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신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겸손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말을 그들의 입술에 넣어 줄 수 있는가? 그들이 나를 대표할 것인가?" {MH 37.3}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성전에 당신의 성령을 넣어 주실 수 있는 비례만큼 각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시다. 그분께서 가납하실 사업은 당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업이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원한 원칙에 속한 불후의 특성들을 세상에 제시할 그들의 신임장으로 간직해야 한다. {MH 37.4}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예수님께서 도시들의 거리에서 봉사하시자 어머니들이 그들의 병들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군중을 헤치며 그분의 시선이 미치는 지점까지 나오고자 애쓰고 있다. {MH 38.1}

핏기없이 지쳐 있는 그 어머니들, 거의 절망적이면서도 굳은 결심과 인내력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라. 그들은 고통의 짐을 진 채 구주를 찾고 있다. 밀려 오는 군중 때문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마침내 그들 곁으로 접근해 가신다. 희망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 그들이 그분의 시선과 마주치고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그 눈을 바라볼 때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MH 38.2}

그 무리들 중 한 사람을 골라내어, 구주께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줄까"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자의 신뢰심을 불러 일으키신다. 그 여자는 흐느끼며 "주님, 나의 아이를 고쳐 주소서"라고 말하므로 그의 가장 큰 소원을 아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그 여자의 팔에서 받으신다.

그분께서 그 아이를 만지시자 질병은 즉시 물러간다. 창백한 죽음의 흔적은 사라지고, 생명의 물결이 혈관을 통하여 흐르고, 근육은 힘을 얻는다.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그 어머니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일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당신의 능력을 다시 발휘하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MH 38.3}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에 대하여 많이 생각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들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적은 것으로 간주된 사물들에 기울인 그분의 주의력은 그분의 위대함을 더욱 잘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MH 39.1}

유대인들 중에는 어린이들을 어떤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손을 그들 위에 얹고 축복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구주의 사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들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그분께 요청할 때, 제자들은 그들을 불쾌하게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와서 유익을 얻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분께서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그 어머니들의 염려와 근심을 이해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하셨다. {MH 40.1}

한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고자 그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도중에서 그는 이웃 사람에게 자기의 용무를 이야기하였더니 그 이웃사람 역시 그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축복받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몇 사람의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왔다. 그 어린이들 중 몇은 이미 영아기를 넘어서 유년기와 소년기에 도달해 있었다. 그 어머니들이 소원을 아뢰자, 예수님께서는 동정의 마음으로 그들의 수줍고 눈물어린 요구를 들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고자 기다리셨다.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쫓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알려 주셨다. 그분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당신의 팔에 안으시고, 당신의 손을 그들 위에 얹으시고, 그들이 받으러 온 축복을 베푸셨다. {MH 41.1}

어머니들은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축복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기분으로 그들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희망찬 마음으로 일할 용기를 얻었다. {MH 41.2}

만일 그 어린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면, 우리는 그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날의 광경을 회상시켜 주고, 사랑스러운 구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훗날에 그 어린이들이 참으로 자주 그 말씀들을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MH 41.3}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정 깊은 구주이시다. 그분께서는 유대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으셨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실로 어머니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옛날의 어린 아이들과 꼭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이다. {MH 41.4}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는 부담을 아신다. 궁핍과 가난으로 고생한 어머니를 모셨던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모든 어머니를 동정하신다. 가나안 여인의 근심된 마음을 위로하고자 긴 여행을 하셨던 그분께서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꼭 같은 일을 해주실 것이다. 나인성 과부에게 그의 독자를 돌려 주셨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던 그분께서는 오늘날도 어머니들의 슬픔을 동정하신다. 모든 슬픔과 고난을 그분께서는 위로하시고 도와 주실 것이다. {MH 42.1}

어머니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라.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짐을 구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고 말씀하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들에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축복을 받으라고 초청하신다. {MH 42.2}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 중에서 당신의 은혜의 후사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될 남녀들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어린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장성한 사람들, 곧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일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수준까지 낮추셨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고, 그들의 순진한 이해력에 맞도록 당신의 중요한 교훈들을 단순하게 풀이하셨다. 그분께서는 훗날에 자라나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진리의 씨를 그들의 마음에 심으셨다. {MH 42.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곧 교회의 직원들과 목사들과 조력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당신께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것은 만일 그대들이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이 올 것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뜻이다. {MH 43.1}

그대들은 비그리스도인적 품성으로 예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그대들의 냉랭하고 거칠은 태도로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로부터 떠나가게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이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없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하라. 종교란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거나, 마치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교란 우울한 종교라는 것과 구주께 나오면 생애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지 말라. {MH 43.2}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실 때 그분의 사업에 협력하라. 구주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과 그들이 원기왕성한 꽃다운 시절에 자신들을 구주께 바치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MH 44.1}

부모의 책임

구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영혼들을 무한한 자비로 돌보신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분께서는 말할 수 없는 열망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분의 마음은 잘 양육받은 가장 매력적인 어린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전과 태만으로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에게로 끌려간다.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자비와 지혜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 보신다. 그분께서는 원인에서 결과까지 알아 보신다. {MH 44.2}

그리스도인 일꾼은 결함 많고 잘못된 그 어린이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지혜와 기지로써 그는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붙들어 매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서 품성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H 44.3}

다섯 덩이의 적은 보리떡으로 무리들을 먹임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따라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고 쉬웠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손의 치유력은 앓는 자들에게 건강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마치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식사 후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였다. {MH 45.1}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렸다. 마침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무리들을 보내야겠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으며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주위에 있는 마을과 촌락에서 그들은 음식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다(마 14:16). 그리고 그분께서는 빌립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다(요 6:5). {MH 45.2}

빌립은 눈을 들어 사람의 물결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 많은 무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200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떡을 구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충분치 못하고 조금씩 밖에 안돌아가겠다고 대답하였다. {MH 45.3}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음식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다. 그러자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라고 말했다(요 6:9).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께로 가져 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고 명령하셨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자 그분께서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다(마 14:19, 20). {MH 45.4}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이적이었다. 그러나 제공된 음식물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매일 먹는 물고기와 보리떡에 불과한 것,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음식물이 아니었던가. {MH 47.1}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호화로운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단순히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음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지 못할 것이었다. 이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단순성(單純性)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만일 오늘날의 사람들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생활했던 것처럼 천연계의 법칙에 조화되게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습관이 단순했을 것같으면, 인류의 필요는 풍성하게 채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과 식욕의 방종이 죄악과 불행을 초래하여 한편으로는 폭음폭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핍하게 되었다. {MH 47.2}

예수님께서는 사치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다. 흥분되고 긴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하고 배고픈 그 큰 무리에게 주어진 그 단순한 식사는 그분의 능력과,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의 보증이 되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호화로운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운명은 빈곤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보증해 준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은 것, 곧 당신 자신이 임하심으로 마음 속에 거하는 위로를 약속하신다. {MH 47.3}

무리들이 먹고난 후에도 많은 음식이 남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다(요 6:12). 이 말씀은 음식물을 광주리에 담으라는 말 이상의 뜻이었다. 그 교훈은 이중적(二重的)이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세속적 유익이 지나가 버리도록 방임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인류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세상의 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거두어 들이라. 그와 꼭 같은 주의력으로 우리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늘에서 온 떡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된다. {MH 48.1}

보리떡의 이적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가까이에 음식물이 없었다. 그분에게는 당신의 명령대로 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께서는 그곳 광야에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이외에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분께서는 무리들에게 당신을 떠나 그곳까지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열성 때문에 초청이나 명령을 받지 않고 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루 종일 당신의 교훈을 들었으므로 배가 고프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밤은 가까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살 돈이 없었다.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간 금식하셨던 분께서는 그들을 주린 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었다. {MH 48.2}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그곳에 계시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는 어려움을 해결할 길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셨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모든 비상사태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좌우하시는 분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MH 48.3}

이 이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상호간에 나누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게 생명의 떡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임명된 교통의 수단이다. {MH 49.1}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한 구주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어려움이 생겼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명령하셨다. 음식물은 그분의 손에서 불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뻗혀진 제자들의 손은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조금 밖에 안되는 그 식물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였다. 무리들이 먹고나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급된 귀중한 음식을 먹었다.* {MH 49.2}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위축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품는다. "우리의 연약한 힘과 빈약한 자원이 이 큰 필요를 어떻게 채워 줄 것인가? 우리는 그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더욱 큰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그 일을 맡아 줄 어떤 기관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가진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MH 49.3}

비록 그대의 자원이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을 먹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처럼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지할 때 갚아 주실 것이다. 보잘 것없는 공급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 것이 풍성한 잔치가 되었음이 입증될 것이다. {MH 49.4}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MH 50.1}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MH 50.2}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MH 50.3}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고후 9:6-11) 지리라. {MH 50.4}

치유 부

3장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함

구주의 지상생애는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는 생애였다. 이 교제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능력 있는 생애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MH 51.1}

예수님은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셨다. 그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간 사람은 없다. 세상의 슬픔과 죄의 짐을 그분보다 더 무겁게 지셨던 분은 없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아를 불태우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일하신 분은 없다. 그럴지라도 그분께서는 건강한 생애를 사셨다.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육체적으로도 그분께서는 "흠없고 점없는"(벧전 1:19) 희생제물의 어린 양으로 대표되셨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성취되기를 기대하신 바 모본이셨다. {MH 51.2}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 거룩한 동정심과 지각하는 능력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영적 생명의 분위기에 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의 태도는 친절하고 겸손한 반면에, 그분께서는 감취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숨겨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였다. {MH 51.3}

주님께서는 봉사생애 동안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추적을 당하셨다. 정탐꾼들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대적할 기회를 포착하고자 그분의 말씀을 주시하였다. 그 나라의 가장 영리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논쟁을 통하여 그분을 패배시키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없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비천한 교사에게 패배와 수치를 당하여 싸움터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는 사람들이 이전에 결코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참신함과 능력이 있었다. 심지어 그분의 원수들까지도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요 7:46)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MH 51.4}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지내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대의 인위적 습관으로 물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목수간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며 가정 생활의 짐을 지고 순종과 수고의 교훈을 배우시면서 천연계 속에서 휴식을 찾으셨다. 그리하여 천연계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애씀에 따라 그 속에서 지식을 얻으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다.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던 장소를 떠나 들로 나가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명상하고, 산허리나 수풀의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였다. 이따금 이른 아침에 어떤 후미진 장소에서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찬미의 노래로써 아침 빛을 맞이하셨다. 그분께서는 감사의 노래로써 당신의 노동시간을 즐겁게 하고, 수고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안겨 주셨다. {MH 52.1}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봉사생애 동안 대부분 옥외(屋外)에서 보내셨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하실 때 그분께서는 걸어 다니셨고, 대부분의 교훈은 옥외에서 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분께서는 이따금 혼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을 찾아 가심으로써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단순성과 믿음과 자아희생의 교훈에 훨씬 잘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열 두 제자를 사도로 임명하고 산상설교를 하신 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산허리의 나무 그늘 아래였다. {MH 52.2}

그리스도께서는 푸른 하늘 아래서, 풀이 많은 언덕 위에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당신의 주위에 모으시기를 좋아하셨다.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업적으로 둘려 있는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인공적인 것으로부터 천연적인 것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 천연계의 성장과 발전에 그분의 나라의 원칙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속한 언덕들과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업적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귀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미래의 어떤 날 그 거룩한 교사의 교훈들은 천연계의 사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반복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신은 향상되고 마음은 휴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MH 54.1}

예수님께서는 사업을 통하여 당신과 관련되어 있는 제자들을 이따금 얼마 동안 해방시켜 줌으로써 가정을 찾아 가 휴식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활동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분께서는 온종일 당신께 나오는 무리들에게 봉사하셨다. 그리고 땅거미 질 무렵이나 이른 아침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 속에 있는 성소를 찾아 가셨다. {MH 55.1}

쉴새없는 활동과, 원수와 랍비들의 거짓 교훈과의 투쟁이 그분을 완전히 지쳐버리게 했으므로 이따금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기도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화평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의 온 몸에 퍼져 있는 듯한 활기와 생기와 힘을 목격하였다. 매일 아침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단 둘이 보낸 시간에서 얻은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가지고 오셨다. {MH 55.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첫 선교여행에서 돌아오자 즉시,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라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복음의 사신으로서 성공한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 그 때 그들은 헤롯의 손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심한 슬픔과 낙망의 소식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을 옥에서 죽도록 버려두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에 큰 시험을 준 것을 아셨다. 동정 깊은 친절로써 그분께서는 슬픔의 눈물에 젖어 있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주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눈과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MH 56.1}

갈릴리 바다 북쪽 끝, 벳세대 가까운 곳에 싱싱한 봄철의 신록으로 꾸며진 아름답고 조용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휴식하게 되었다. 그 장소를 향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다. 여기에서 그들은 혼잡한 군중들을 떠나서 휴식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반박과 비난으로 방해를 받지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짧은 기간의 친교를 나누고자 희망하였다. {MH 56.2}

예수님께서는 다만 짧은 기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들이었던가. 그들은 복음 사업과,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보화들을 열어 주실 때, 그들은 거룩한 능력으로 힘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취되었다. {MH 56.3}

그러나 그분께서는 얼마 후에 무리들에게 발각되셨다. 그분께서는 흔히 휴식하러 가시던 장소에 계신 줄로 생각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까지 그분을 따라왔다. 단 한 시간의 휴식이라도 얻어 보고자 했던 그분의 희망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양들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순결하고 동정 깊은 마음 속에, 끊임없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그 무리에 대한 사랑과 자비만을 가지고 계셨다. 하루 종일 그분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셨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들을 흩어 가정으로 돌아가 쉬게 하셨다. {MH 57.1}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 속에서, 구주께서는 끊임없는 활동과 인간의 필요에 부딪히는 일을 떠나서 휴식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당신을 따르는 군중들이 떠나가자 그분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신다.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고난당하고, 죄많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심령을 쏟아놓으신다. {MH 58.1}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쉬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명령하셨다(마 9:38). 그분께서는 당신의 최초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고에 지친 당신의 일꾼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고 말씀하신다. {MH 58.2}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세상의 풍습과 습관에 일치되지 않은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음성이 그치고 정적 속에서 그분 앞에 나갈 때, 조용한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실히

구별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시 46:10).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준비가 된다. 분주한 군중들과, 긴장된 생애의 활동 속에서 이와 같이 기운을 회복한 사람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에 싸이게 될 것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의 생애는 향기를 발산하고, 사람들의 심령과 접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MH 58.3}

4장 믿음의 접촉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마 9:21). 이 말은 한 불쌍한 여자, 곧 12년 동안 그의 생애를 괴롭힌 질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의 말이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과 치료에 써 버렸지마는, 다만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희망은 소생되었다. 그 여자는 "만일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으리만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MH 59.1}

그리스도께서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유대의 랍비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막 5:23). 이 간절한 탄원은 부드럽고 동정깊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즉시 출발하였다. {MH 59.2}

그리스도의 주위에 무리들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군중을 뚫고 나가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앓는 여자가 서 있는 곳 가까이 이르셨다. 그 여자는 주님께 접근하고자 거듭거듭 애를 써 보았지마는 헛수고에 불과했다. 이제 그 여자에게 기회가 왔다. 그는 그분에게 이야기할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진로(進路)를 방해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겉옷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을 기회를 놓칠까 염려한 나머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 {MH 59.3}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의 큰 필요를 깨닫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그를 도와 주고 계셨다. {MH 60.1}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겉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一觸)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 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막 5:29). {MH 60.2}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 진 그 여자는 12년의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의사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이루어 주신 위대하신 치료자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속에서 빠져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셨다. {MH 60.3}

베드로는 놀란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고 대답하였다(눅 8:45). {MH 60.4}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고 말씀하셨다(46절). 그분께서는 주의성없는 무리들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분별할 수 있으셨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졌고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MH 60.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진상을 알고자 질문하지 않으셨다. 그분께는 사람들과, 당신의 제자들과, 그 여자에게 줄 교훈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고무시키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치료의 능력을 가져 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를 원하셨다. 그 여자의 믿음을 설명없이 지나쳐 버려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다만 절반 쯤 축복한 채 그 여자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의 믿음을 그분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버려두어서는 안될 것이었다. {MH 60.6}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당신을 만졌는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는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그분의 겉옷을 만진 이유와 즉시로 고침을 받게 된 내력을 그분께 이야기하였다. 그 여자는 그분의 겉옷을 만진 것이 일종의 참람된 행위가 아니었는지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한 마디의 책망도 나오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다만 칭찬하는 말씀만을 하셨다. 그 말씀들은 인류의 불행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해 진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다. 그분께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눅 8:48). 그 말씀은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이제 그의 기쁨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공포감은 사라졌다. {MH 61.1}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 온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게는 생명력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병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적 일에 있어서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된다(요 3:16).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올 때,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이제 사는 생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갈 2:20). {MH 62.1}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일종의 견해라고 주장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MH 62.2}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MH 62.3}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 주라.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이것은 속절없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덤의 온갖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게 될 것이다. {MH 62.4}

우리를 구원하시되 ...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노예였으므로 이따금 능욕적으로, 또한 잔인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그의 종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종이 회복되기를 매우 소원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했지마는 그가 들은 소문은 그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민(被征服民)을 분리시켜 놓은 민족적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헐어 버렸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존중하였으므로 그분께 예배하는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나타냈다. 그에게 전해지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는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은 구주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접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대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 그의 종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MH 63.1}

그 장로들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고 말하였다(눅 7:4, 5). {MH 63.2}

그러나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 자신이 보낸 기별, 곧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는 기별을 받으신다(6절). {MH 63.3}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신다. 그러자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그 기별을 종결 짓는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눅 7:7, 마 8:8, 9). {MH 63.4}

"나는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며, 나의 군사들은 나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며,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 주님께서 질병을 떠나가도록 명령하시면, 그 질병은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MH 64.1}

그리스도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마 8:13). {MH 64.2}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기들의 민족에게 보여 준 호의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께 추천하였다. 그들은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고 하였다. 그럴지라도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구주의 자비를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성을 유일하게 주장하였다. {MH 65.1}

꼭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하신다(딛 3:5). 그대는 그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이다. {MH 65.2}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런 대가도 없고,

다만 당신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MH 65.3}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 주고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가치한 그대로 자비하신 구주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라. 자아를 보지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한 구속주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그대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MH 65.4}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MH 66.1}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1, 32). {MH 66.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 39).* {MH 66.3}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MH 66.4}

동양에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병의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감한 사람일지라도 공포로 충만하게 하였다. 유대인들 간에서는 이 질병을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재앙",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다. 그 병은 뿌리가 깊어 근절할 수 없고 치명적이었으므로 죄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MH 67.1}

의문의 율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가 만진 것은 무엇이나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으로 불결해 졌다. 문둥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격리되었다. 그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고, 제사장은 자세히 살펴 본 후 그의 상황을 결정해 주어야 했다. 만일 문둥병자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는 자기의 가족과 격리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고, 다만 같은 환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이

지워졌다. 심지어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홀(忽)을 버리고 사회를 떠나가야 한다. {MH 67.2}

문둥병자는 친구와 친척들을 떠나서 그의 질병의 저주를 견디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재난을 공표하고, 옷을 찢고, 경고의 음성을 높이므로 전염성이 있는 병자에게서 피해 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했다. 외롭게 추방된 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슬픈 음조는 공포와 증오를 알려 주는 신호였다. {MH 67.3}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역에는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 지자, 마음 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다. 만일 예수님께로 갈수만 있다면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영원히 격리될 수 밖에 없도록 운명지워진 그가 치료자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 주실 것인가?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피해 가라고 경고한 의사처럼 하지 않으실 것인가? {MH 68.1}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들은 바를 모두 생각해 본다. 그분께 도움을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다 그 가련한 사람은 구주를 찾고자 결심한다. 비록 마을과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산길을 따라 뚫려 있는 어떤 소로(小路)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마주칠 수도 있고, 마을 밖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어려움은 많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유일의 소망이다. {MH 68.2}

그 문둥병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구주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듣는다. 그는 예수님께서 병자들 위에 손을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 소경, 중풍병자, 그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다. 그의 믿음은 강해진다. 그는 청중들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접근해 간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속박,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감 등을 깡그리 잊어버린다. 그는 다만 치료를 받는다는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MH 68.3}

그는 몸서리칠만큼 보기 흉하다. 그 질병이 무섭게 잠식해 있었으므로 썩어가는 그의 육체는 보기에 끔찍스럽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간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차 함께 무리를 지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를 쓰지마는 헛일이 되고 만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아연실색하는 그들의 표정은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성만을 듣는다.* {MH 69.1}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자기 몸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진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부르짖는다. {MH 69.2}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마 8:2, 3)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을 그 사람 위에 얹으신다. {MH 69.3}

즉시로 그 문둥병자에게 변화가 생긴다. 그의 피는 정결해 지고, 신경은 감각을 얻고, 근육은 튼튼해진다. 문둥병자의 특징인 부자연스러운 흰 비늘 모양의 피부는 사라진다. 그의 살은 어린 아이의 살처럼 된다. {MH 69.4}

만일 제사장들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에 관한 내력을 알것 같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증오심 때문에 부정직한 판결을 내릴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얻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고침받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이적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지체 말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신다.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예물을 받기 전에, 예물을 바친 자를 살펴 보고 그가 완전히 회복된 사실을 확인해야 하였다. {MH 69.5}

그와 같이 몸을 검사하는 일이 마쳤다. 그 문둥병자에게 추방을 선고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의 병이 완치된 것을 증명하였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건강의 혜택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원기발랄한 남성으로서 가정에 돌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치료에 대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기쁨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 주신 분의 능력을 전하였다. {MH 69.6}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온 몸에 문둥병"이 들어 있었다. 문둥병의 치명적 독소가 그의 온 몸에 퍼져 있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를 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은 스스로 불결해 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 위에 얹으셔도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셨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죄의 문둥병, 곧 뿌리가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그와 같다. "온 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 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로다(사 1:5, 6). 그러나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힘이 되셨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MH 70.1}

어떤 치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구한 바 축복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는 호소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외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갈 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 {MH 70.2}

예수님께서는 근심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희망이 꺾인 자들, 세속적 기쁨으로 심령의 갈급을 진정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사 당신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셨다. {MH 71.1}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수고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마 11:29). {MH 71.2}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사람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벗겨 주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만일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밖에 없도록 버려졌다면, 그것이 우리를 찌그러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지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MH 71.3}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MH 71.4}

인류의 맏형님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를 시험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히 4:15). 그분께서는 떨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한 그대를 살펴 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께서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시 147:4, 3). {MH 71.5}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정신은 넉넉히 인내하게 될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에서 스스로 해결될 길이 그대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속절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대는 더욱 강해 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의 짐을 져 주시는 분에게 그 짐들을 맡김으로써 얻는 안식은 더욱 복될 것이다. {MH 72.1}

환경이 친구들을 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의 출렁거리는 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가로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MH 72.2}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손을 펴신다. {MH 72.3}

"산들은 떠나며

적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 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0절 {MH 72.4}

5장 심령의 치료

그리스도께 도움을 얻고자 온 많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질병을 자청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서 나온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 질병은 물론이요 영적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MH 73.1}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있었다.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그 중풍병자는 회복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의 질병은 죄악적 생애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그의 고통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그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바리새인들과 의사들에게 호소하였으나, 모든 일이 허사였다. 그들은 그의 병이 불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MH 73.2}

그 중풍병자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 그 때에 그는 예수님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속절없는 다른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만일 그가 구주께로 운반되어 갈 수만 있다면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질병의 원인을 생각하자 희망은 사라졌다. 그럴지라도 그는 치료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는 없었다. {MH 73.3}

그의 큰 소원은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뵈옵고 용서의 보증과 하늘의 화평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히 여길 것이었다. {MH 74.1}

잃어버릴 시간이 없었다. 그의 쇠약해 진 육신에는 이미 죽음의 징조가 나타났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침대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운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신 집 안과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빽빽히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는 커녕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조차도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들의 관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주위에 가까이 앉아 있었고, 또한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도 앉아 있었다(눅 5:17).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소하기 위한 정탐꾼으로 온 자들이었다. 그들 외에도 혼잡한 군중, 열성 있는 자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 있었다. 상이한 민족들과 사회의 모든 계급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눅 5:17). 생명의 영께서 회중들 위에 덮여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분의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족감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고침을 받는

일이 저희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눅 1:53) {MH 74.2}

중풍병자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거듭거듭 시도해 보았으나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처럼 갈망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이처럼 가까이 와 있는데, 어떻게 그 희망을 버릴 수 있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그를 지붕으로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MH 75.1}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슬픔에 잠긴 그 얼굴을 바라보시고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애원하는 눈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잘 아셨다. 그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때 그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 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자비는 그의 심령에 복을 주셨다.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도와 줄 유일의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그분께서는 주시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나오고자 하는 온갖 노력과 함께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이제 구주께서는 그 병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음성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9:2). {MH 75.2}

죄의 짐이 그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간다. 그는 의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 준다.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부인할 것인가? 희망이 절망을 대신하고, 즐거움이 우울한 심정을 대신한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그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누워 있다. 너무나 행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MH 76.1}

많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이상한 사건을 하나 하나 지켜 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초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심령의 병이 들어있지 않았던가? 그들은 그 짐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지 않았던가? {MH 76.2}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에게 자기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음 속으로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말하였다(막 2:7). {MH 76.3}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과 마주치자 그들은 그 시선을 피하여 움츠렸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분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마 9:4-6). {MH 76.4}

그러나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은 젊음의 탄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발로 일어섰다. 그는 즉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막 2:12). {MH 77.1}

그 썩어가는 육체에 건강을 회복시키는데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이 회복되도록 말씀하셨다.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 시에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시 33:9) 서게 하신 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육체의 치료는 마음을 새롭게 해 준 능력의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MH 77.2}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가 모두 치료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육체의 건강을 누리기 전에 심령의 건강이 필요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기별을 듣고자 갈망하고 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심령을 고쳐 주시는 분 앞에 나오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MH 77.3}

중풍병자의 치료가 사람들에게 끼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 더욱 좋은 세상의 영광이 주어진 것과 같은 것이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발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짐을 마치 새의 깃털인양 가볍게 지고서 군중을 뚫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물러서면서 그에게 길을 비켜 주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그 사람을 응시하며, 저희들끼리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고 가만히 속삭였다(눅 5:26). {MH 78.1}

불과 얼마 전에 가족들 앞에서 천천히 운반되어 갔던 그 사람이 침상을 가뿐히 가지고 돌아오자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는 큰 기쁨이 생겼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모였으나 그들의 눈을 거의 의심할 정도였다. 그 사람은 성인의 완전한 활기를 간직하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팔들이 그의 마음대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오그라들고 우중충한 색깔을 띠고있던 살은 이제 발랄하고 혈색이 좋아졌다. 그는 든든하고 자유롭게 걸었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 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순결과 화평의 표정이 죄와 고통의 흔적들을

대신하였다. 그집에서는 기쁨에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칠 준비가 이루어졌다. 조그마한 의심도 그들의 믿음을 흐리게 하지 않았고, 조그마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MH 79.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14절 {MH 79.2}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요 5:2, 3). {MH 81.1}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이는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이므로 누구든지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고침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수백 명의 병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움직일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없이 저들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까지 간 많은 사람들은 그 못 둑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병에서 놓여나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까지 기어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MH 81.2}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명상과 기도를 하시는 등 홀로 거니시다가 그 못까지 오셨다. 그분께서는 비참한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를 지켜 보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발휘하셔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건강하게 해 주시고자 열망하셨다. 그러나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치료행위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일으켜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MH 81.3}

그러나 구주께서는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의 형편을 보셨다. 그것은 38년 동안 속절없는 앉은뱅이로 지내온 한 사람의 경우였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사람 자신의 악습의 결과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친구도 없이 홀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며 오랫 동안의 불행한 세월을 지내왔다. 물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는 때가 되면 그의 절망적인 형편을 동정한 사람들이 그를 행각까지 운반해 주곤 했다. 그러나 혜택을 입을 절호의 기회가 되면 그를 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마는 못가에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 사람보다 더 강한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곤 하였다. 가련하고 속절없는 그 환자는 이기적으로 날뛰는 무리들과 성공적으로 겨룰 수가 없었다.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끈덕진 그의 노력과 근심, 거듭되는 실망 때문에 그에게 남아 있는 힘까지 빨리 사라져 가고 있었다. {MH 81.4}

그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간혹 그 못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어보곤 하였다. 바로 그 때에 친절하고 인자한 얼굴을 한 한 분이 그를 굽어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하므로 그는 주목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 속에 희망이 솟았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 버렸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가를 회상하였다. 그는 지금 물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살아 있을 가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고 말한다. {MH 83.1}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다(6-8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음성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계신 곳에서 풍겨오는 것같다. 그 앉은뱅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의심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온 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MH 84.1}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하고, 불구가 되었던 그의 사지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 사람은 제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찾은 힘을 기뻐하면서 든든하고 거리낌없는 발걸음으로 걸어간다. {MH 84.2}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 주신다면,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 사람은 의심을 품음으로써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즉시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가 걸어가고자 작정하자 걷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는 낫게 되었다. {MH 84.3}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 우리의 심령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약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 줄 영적 생명을 갈급하며 그것을 얻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그들은 절망을 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는다(롬 7:24). 그처럼 절망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말할 수 없는 친절과 긍휼로써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건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 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 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 주시고자 갈망하신다. 그분께서는 "죄로 죽었던"(엡 2:1)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약점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MH 84.4}

죄책감은 생명의 샘을 망쳐 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그대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 줄 것이다. 나는 그대의 죄책감을 제거해 줄 것이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入籍)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 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MH 85.1}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 주위에 계신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찾아라. 그분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당신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 {MH 85.2}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장막절은 이제 막 끝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들의 계책에 있어서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밤이 되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요 7:53, 8:1). {MH 86.1}

도시의 흥분과 혼잡, 열렬한 군중들과 반역적인 랍비들을 피하여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과만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그분께서는 성전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자 그분의 주위에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MH 86.2}

그분께서는 얼마 후에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셨다.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포에 질린 어떤 여자를 끌고와서, 거칠고 열띤 음성으로 그 여자가 일곱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밀어 버렸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 8:4, 5). {MH 87.1}

그들의 가장된 존경에는 그분을 죽이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으실 것이었다. 만일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면 그분께서는 로마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권리를 빼앗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로마인들에게 고소를 당할 것이었다. {MH 88.1}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 곧 수치심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희생자와 인간적인 동정조차없이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고관들을 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 앞에 전율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들은 척도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을 보시며 땅 위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 {MH 88.2}

예수님께서 시작하심과 동시에 외관상으로 무관심하신 듯하자, 초조해진 고소자들은 가까이 접근해 와서 그분의 주의를 그 문제에 집중시키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저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 위로 쏠렸을 때, 그들의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저희 자신들의 생애에 숨겨 있는 죄의 비밀들이었다. {MH 88.3}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드시고 음모를 꾸민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그리고 몸을 굽혀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계셨다. {MH 88.4}

그분께서는 모세의 율법도 깨뜨리지 않고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들은 패배당하였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옷은 벗겨져 나가고,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서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시선을 떨어 뜨린채 저들의 희생자와 그를 동정하는 구주를 남겨두고 도망쳐 버렸다. {MH 88.5}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0, 11). {MH 88.6}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자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 여자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그는 자기를 고발하던 자들이 부끄러워 하면서 말없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희망의 말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의 마음은 녹아졌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 {MH 89.1}

이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헌신한 새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아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었다. 잘못을 범한 이 여자에 대하여 세상은 다만 멸시와 조롱만을 했지마는, 그 여자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죄없는 그분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그 여자에게 뻗으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였지마는, 예수심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MH 89.2}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진 그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속절없이 원수의 올무에 사로잡혀있는 사람에게로 끌려간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의 해방문서에 조인하셨다. {MH 89.3}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귀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들이 원수의 유혹의 놀림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정복당하여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시고, 불꽃 가운데서 당신의 충성된 증인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분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오늘날 그분께서는 은혜의 제단 앞에 서서 당신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울며 통곡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사유와 회복을 위하여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값없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누구에게나 당신이 나타나실 것을 모두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분과 화평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화평하게 해 주실 것이다. {MH 90.1}

예수님께서는 피난처를 찾아 당신께 돌아온 사람들을 높여 주시고 그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면하게 해 주신다. 어떤 사람이나 악한 천사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송사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 자신의 신성과 인성에 연합시켜 주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를 담당하신 위대한 예수님 곁에 서게 된다. {MH 90.2}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준다(요일 1:7).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3, 34).* {MH 90.3}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물결, 귀신들린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폭풍을 잔잔케 하고 흉용한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그분께서는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눌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말씀하셨다. {MH 90.4}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에 질린 한 비명으로 방해를 받으셨다. 미친 사람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달려나오며 소리질렀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막 1:24) {MH 91.1}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눅 4:35). {MH 91.2}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 역시 그 자신의 생애에 있었다. 그는 죄의 쾌락에 매혹되어 인생을 하나의 큰 오락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부절제와 천박한 생활이 그의 성격에서 고상한 특성들을 망가뜨려 버렸으므로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 버렸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 왔다. 그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물과 향락을 희생하고자 하였을 때 그는 이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속절없이 되어 있었다. {MH 91.3}

구주의 면전에 나타나자 그 사람은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항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을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었으므로 그는 공포의 괴로움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귀신들린 사람은 자기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위대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자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었으며, 그를 통하여 다른 말이 나오게 되었다. {MH 91.4}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얻고자 한 그 사람의 욕망 사이에 전개된 투쟁은 무서웠다.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은 자신의 인간성을 파멸시킨 그 원수와의 투쟁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은 해방되었다. 귀신들린 그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착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MH 92.1}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쁜 음성으로 찬양하였다. 바로 얼마 전까지 광증으로 빛나던 눈이 이제는 지성으로 빛나고, 감사의 눈물이 흘러 나왔다.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말문을 열게 되자 그들은 피차에 "이는 어찜이뇨 권세 있는 새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고 외쳤다(막 1:27). {MH 92.2}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의 권세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고의적으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악습과 친근해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혹당하므로 그는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자아를 마침내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 신비한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은밀한 죄와 강력한 정욕은 그를 마치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사람처럼 속절없는 포로로 만들 것이다. {MH 92.3}

그럴지라도 그의 상태는 절망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귀신들린 사람은 기도대신에 다만 사단의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말없는 호소는 주님께 알려졌다. 영혼이 필요를 느끼고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능력이나 자신의 본성의 연약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지 않는다. {MH 93.1}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사 49:24, 25). {MH 93.2}

믿음으로 구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MH 93.3}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열 두 사도들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파견한 70인의 제자들도 그들의 사명의 표로서 초자연적 능력의 선물을 받았다. 그들이 사업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대답하셨다(눅 10:17, 18).* {MH 94.1}

그 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 승리를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0:19). {MH 94.2}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은 모든 회개한 영혼의 방비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당신의 보호를 간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의 세력 아래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단이 강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를 하늘에서 내어쫓으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자. 사단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하여 나타낼 때 기뻐한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가? {MH 94.3}

하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한 말씀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요 3:16).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과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주에 증거해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능력과 보호를 약속해 주는 보증이 된다. {MH 94.4}

6장 봉사를 위하여 구원해 줌

갈릴리 바다에 아침이 왔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바다에서 폭풍의 하룻밤을 새운 후 해안에 도착하셨다. 마침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인 양 바다와 육지를 어루만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 격노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들의 눈 앞에 전개된다. 무덤들 사이에 있는 어떤 은신처에서 두 사람의 미치광이가 마치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라도 할 것처럼 그들에게로 달려든다. 그들의 몸에는 그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벗어날 때 끊어 버린 쇠사슬이 달려 있다. 그들의 눈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다. 인간의 형상 그것은 말살되어 버린 것 같다.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야수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MH 95.1}

제자들과 그 일행은 무서워 도망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즉시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자 돌아선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버리고 떠나간 그 자리에 서 계신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이미 사단과 대결하여 정복시킨 그분께서는 그 사귀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입에서 거품을 뿜으면서 예수님께 접근해 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가리켜 잔잔케 하신 그 손을 드신다.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해 올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화를 내지마는 어쩔 수 없다. {MH 95.2}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신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귀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심을 깨닫는다. 그들은

구주의 자비를 탄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린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사귀들이 외친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 8:29). {MH 96.1}

그 악한 영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을 놓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사귀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친다. 그들의 눈은 지성으로 빛난다. 그처럼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찌그러져 있던 얼굴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피묻은 손들은 조용해진다. 그들은 음성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MH 97.1}

한편 사람에게서 쫓겨난 사귀들은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 그것들을 멸망으로 달려가게 한다. 돼지를 지키던 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달려간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몰려든다. 귀신들린 그 두 사람은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올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을 고쳐 주신 예수심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어버린 것이 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에게서 떠나가주기를 간절히 요구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 해안을 향하여 떠나신다. {MH 97.2}

그러나 고침을 받은 광인(狂人)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생애를 괴롭히고 폐인이 되게 했던 귀신들에게서 벗어나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고자 하실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들은 그들을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해 주시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신다. {MH 98.1}

여기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방인 가정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일이다. 그들이 구주와 헤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이방인 동족들과 교제할 때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의무를 지적해 주시자 그들은 즉시 순종할 자세를 취한다.* {MH 98.2}

그들은 집안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어디에서나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전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MH 98.3}

비록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흑암 가운데 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떠나가도록 말하였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보내시되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지 아니할 사람들을 통하여 하셨다. {MH 98.4}

돼지가 멸망당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주께서 떠나가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건은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그 지방에서 일어나게 했고, 그리스도께로 주의를 집중시켰다. 비록 구주께서는 떠나셨지마는 그분께서 고쳐 주신 그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남아 있었다. 흑암의 왕의 매개체가 되었던 사람들이 빛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使者)들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3일 동안 그 주위의 모든 동네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MH 98.5}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짧은 기간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단 한 번의 설교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 곧 구주의 능력에 관하여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그와 같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세상은 멸망하여 가고 있다. {MH 99.1}

복음은 하나의 생명없는 이론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고 생애를 변화시키는 산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고 당신의 위대한 사랑의 보증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들이 증거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구원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의 거룩한 특권을 회복하고 누리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MH 99.2}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하여 가장 반항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일지라도 아낌없이 받아 주신다. 그들이 회개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불충실한 자들의 진영으로 보내어 당신의 자비를 선포하게 하신다. 사단의 도구로 타락한 영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의의 사자로 바뀌어져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증거하도록 파견되고 있다. {MH 99.3}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가버나움의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제공해 주는 선물은 몰래 간직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된다. {MH 100.1}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3장 12절 {MH 100.2}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공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이 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생애를 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에 의하여 입증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항거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 {MH 100.3}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믿음이 강하여져서 더욱 많은 것을 달라고 주장하고 받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하여 읽을 수 있는 모든 기록에서 얻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속에 우리를 위한 더욱 큰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물을 댄 동산과 같아질 것이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은 흑암 중에서 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MH 100.4}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MH 101.1}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MH 101.2}

"뉘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꼬" {MH 101.3}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MH 101.4}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MH 101.5}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MH 101.6}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MH 101.7}

"주 여호와여 주는 ...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MH 102.1}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시 116:12-14; 104:33, 34; 106:2; 105:1, 2, 3; 63:3-7; 56:11-13; 71:22-24, 5, 6, 45:17 {MH 102.2}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의 초청은 범위를 좁혀서 다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그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증가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MH 102.3}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사마리아 여인은 구주를 발견하자 즉시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해 왔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유망한 선교지라는 것을 알려 주는 아무런 흔적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생각은 장차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들 바로 주위에 거두어 들여야 할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자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MH 102.4}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신앙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예증이다.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 주고자 열망한다. 구원하고 거룩케 하는 진리는 그의 마음 속에 숨겨둘 수 없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 되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에 있는 샘과 같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해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고자 갈망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일함으로써 구주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 {MH 102.5}

당신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MH 103.1}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겔 34:26). {MH 103.2}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 38). {MH 103.3}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각 방면에서 도와달라는 호소가 들려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요구하신다. 영생의 면류관을 얻어야 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해야 하고, 무지로 죽어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쳐야 한다. {MH 103.4}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요 4:35, 36).* {MH 103.5}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모본을 목격해 왔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걸어다니며 이야기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기쁘게 해 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분의 능력을 보았다. 그들을 떠나가실 때가 되자,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이릭으로 당신의 사업을 완수할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치료의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춰야 하였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 사람들 사이를 직접 걸어 다니시던 때보다도 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MH 103.6}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도 또한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정과 긍휼로써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타적(利他的) 열성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가볍게 해 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MH 104.1}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활동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구주께서는 당신 자신을 모든 인류와 동일하게 간주하신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자 그분께서는 지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께서 인자가 되시므로 아담의 모든 아들 딸들과 형제가 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큰 직물(織物)의 일부분이므로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의 형제로 여기는 것은 물론이요 죄인들의 형제들로도 여긴다. {MH 104.2}

질병과 무지와 죄에 빠져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들어야 할 만큼 듣지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이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하여 해 주어야 한다. 심판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설 수 있을 것인지 넘어질 것인지를 측정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법칙이다(마 7:12). {MH 104.3}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들이 교육과 교양, 고결한 품성, 그리스도인 교육, 종교적 경험 등임을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MH 105.1}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는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기뻐한다. 천사들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나타나며, 자아와 더불어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그들의 환경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과 함께 한다. 천사들은 많은 성품의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불안한 영혼들을 특별히 돌봐 준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품성이 열등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마는, 그것은 바로 하늘 조정에서 온 순결하고 죄없는 천사들의 사업이다. {MH 105.2}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 수치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무한한 보화로 부요하셨던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궁핍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그분께서 밟으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MH 105.3}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워진 사슬의 한 고리로, 그리스도의 자비의 계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그분과 함께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MH 105.4}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여 그분께서 걸어가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께서 가르치기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그처럼 자주 머물렀던 들과 골짜기들을 바라보는 것이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병자의 침상 곁에서, 가난한 오두막에서, 사람이 많은 대도시의 뒷골목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MH 105.5}

우리는 주린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고취시켜야 한다. {MH 106.1}

이타적 봉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을 행하는 자를 개혁시키는 일에 있어서 칼이나 공의의 법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일을 할 것이다. 칼이나 공의의 법정은 범법자에게 공포감을 안겨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때때로 견책 때문에 굳어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질 것이다. {MH 106.2}

선교사는 육체적 질병을 고쳐 줄 뿐만 아니라 죄의 문둥병에서 영혼을 정결케 해 줄 위대한 의사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자들, 불행한 자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의도하신다. 당신의 인간 기구들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MH 106.3}

구주께서는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시험받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신자의 무리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와 심지어는 지역 저편을 넘어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토록 멀리 미칠 사업을 할 수 있다. {MH 106.4}

최초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해당된다. {MH 106.5}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 28:18, 19, 막 16:15). {MH 106.6}

그리고 그분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MH 107.1}

오늘날은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적한 장소에 몰려들지 않는다. 그분의 음성은 번화한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 길 거리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고 외치지 않는다(눅 18:37). 그러나 그 말은 오늘날도 해당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거리를 걸어다니신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찾아 오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MH 107.2}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사 49:8, 9). {MH 107.3}

"좋은 소식을 가져 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 {MH 107.4}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 52장 9, 10절 {MH 107.5}

2편 의사의 사업

7장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치료봉사에 있어서 의사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다 같이 돌보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의 치료는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 꼭 같은 봉사가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는 동료 인간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다 같이 해결해 주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는 병자들에게 긍휼의 사자가 되어 그들에게 병든 육체와 죄로 병든 심령을 위한 치료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MH 111.1}

그리스도께서는 의료사업의 머리가 되신다. 수석 의사이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활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의사 곁에 계신다. 의사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연요법을 이용하는 한편, 그의 환자들에게 심령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어야 한다. 의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일을 다만 도와 주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들은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천연의 역사(役事)를 도와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자신은 치료자가 되신다. 의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MH 111.2}

치료의 근원

당신의 이적을 통하여 구주께서는 사람을 지탱해 주고 고쳐 주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다. 천연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MH 112.1}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MH 113.1}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MH 113.2}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2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 {MH 113.3}

그분께서는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다(시 103:3, 4). {MH 113.4}

그리스도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많은 병자들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셨다(요 5:14).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므로 질병이 그들에게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건강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MH 113.5}

의사는 환자들에게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의사는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더욱 더 깨닫게 된다. 그는 천연의 법칙이 십계명과 꼭 마찬가지로 신성하다는 것과 다만 그 법칙에 순종할 때에만 건강이 회복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땅히 할 일을 했다면 건강하게 되었겠지마는 그들의 나쁜 습관 때문에 많은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파괴시키는 모든 행동이 죄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세워 주신 법칙에 순종함으로 건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MH 113.6}

만일 의사가 부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과 그 밖의 다른 나쁜 습관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를 보고서도 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일을 등한히 하면 그는 그의 동료 인간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술주정뱅이들과 정신착란자들과 지나치게 방탕한 사람들은 모두 의사에게 그 고통이 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통과 싸우는 끊임없는 투쟁과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고서도 의사가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질병의 치료제가 되는 엄격한 절제를 가르치지 않을 것같으면, 과연 그가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MH 114.1}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밝혀 주라. 하나님께서 천연의 법칙을 세우셨다. 그러나 그분의 법칙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법칙이 아니다. 육체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을 막론하고 "하지말라"는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에 축복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선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신다. {MH 114.2}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습관에 관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육체적 영적 번영에 다 같이 관련된 법칙을 그들에게 알려 주시고, 순종하는 조건으로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시겠다고 보증하셨다(신

7:15).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신 32:46, 잠 4:22). {MH 114.3}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완전한 표준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생명의 법칙을 계시하셨다. 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 심령의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MH 114.4}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 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 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MH 115.1}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 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말 4:2).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 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 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MH 115.2}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安靜)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 준다. {MH 115.3}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MH 115.4}

비록 각 시대를 통하여 죄가 인류를 더욱 힘 있게 장악해 오고, 거짓과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해석의 검은 그림자를 던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으로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MH 116.1}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의사는 그의 사업의 모든 면에서 유능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전문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을 훌륭하게 갖추기 위하여 부지런히 연구할 것이며, 더욱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기술과 명석한 판단력을 구함으로써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약하고 비능률적으로 일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의사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의사는 깨달아야 한다. 낮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으로 만족하는 의사는 의료사업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석 의사되시는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게 된다. {MH 116.2}

의료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직업을 택해야 한다.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매우 잘 할지라도 교육과 의사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간호원으로서 충실히 봉사함으로 보다 낮은 분야의 사업을 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숙련된 의사들 밑에서 참을성 있게 봉사함으로써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얻을 온갖 기회를 이용함으로 때가 되면 의사의 사업을 위하여 완전히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젊은 의사들은 "하나님(수석 의사)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환자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고후 6:1-4). {MH 116.3}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언제나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일이다. 참된 의료선교 의사는 끊임없이 기술이 향상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전문직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재능 있는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료 선교사가 되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자 노력하고 권장을 받아야 한다. {MH 117.1}

의사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는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종교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영향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그는 숭고하고 거룩한 동기, 곧 우리에게 악을 정복할 능력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 동기에 의하여 행동해야 한다. {MH 117.2}

만일 의사가 자신의 직업에서 스스로 유능하게 되고자 성실하고 부지런히 노력할 것같으면,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바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같으면, 그는 자기의 신성한 소명의 신비를 이해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킴으로써 자기의 감화의 영향력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얻은 교육과 지혜의 탁월함을 보여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MH 117.3}

의사의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한 교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의사의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사람은 매일 매시간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야 한다. 환자의 생명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 병세가 위독한 경우에 있어서, 한 번의 부주의한 진단, 한 번의 잘못된 처방, 또한 수술에 있어서, 비록 털끝만한 것일지라도 한 번의 서투른 손놀림은 한 생명을 희생시켜 영원한 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이 얼마나 엄숙한 생각인가! 의사가 언제나 거룩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MH 117.4}

구주께서는 지혜와 명석한 생각을 달라고 당신께 구하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도와 주신다. 의사의 결정이 그처럼 큰 영향을 준다면, 의사보다 더 많은 지혜와 명석한 생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동작을 지도해 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구주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기지(機智)와 슬기를 주실 것이다. {MH 117.5}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참으로 놀랍다.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의사는 질병과 싸우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 걸어가는 매 걸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도록 지도하라. {MH 118.1}

환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있다고 확신되는 의사를 더욱 크게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의사의 말을 믿는다. 그들은 그 의사가 곁에 있거나 지도해 줄 때 안전감을 느낀다. {MH 118.2}

주 예수님을 앎으로 기도로써 그분을 병실에 들어오시게 초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사의 특권이다. 위험한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과 그분께서 고통의 시간 동안 내내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환자에게 확신시켜 주도록 하라. 이 일을 할 수 없는 의사는 살릴 가능성이 있었던 많은 환자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그가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인자하신 구주를 믿는 믿음을 깨우쳐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영혼의 필요를 기도로써 그분께 아뢸 수 있었을 것같으면, 그 위기는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MH 118.3}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의사의 손에 수술을 받고자 하는 많은 환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아신다. 환자들은 그들의 위험을 안다. 비록 그들이 의사의 기술을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머리를 숙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된다. 감사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고, 온 몸의 정력이 소생되고, 생명력이 기뻐 날뛰게 된다. {MH 118.4}

의사에게도 구주의 임재가 일종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 때때로 그의 사업에 대한 책임과 전망이 심령에 두려움을 안겨 준다. 불안과 공포에 의한 흥분이 손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대한 고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고 도와 주기 위하여 곁에 계시다는 보증은 그에게 안정감과 용기를 준다. 그리스도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으면, 생기와 평안과 확신과 능력이 주어진다. {MH 119.1}

위기가 무사히 지나가고 성공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면 그 환자와 함께 잠간 동안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 그 생명을 건져 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나타내라. 감사의 말이 환자에게서 의사에게로 전달되면,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라. 환자가 하늘에 계신 위대한 의사의 보호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그에게 말해 주라. {MH 119.2}

그와 같은 길을 따르는 의사는 그의 환자를 생명을 좌우하고 계시는 분, 당신께 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로 이끌게 된다. {MH 119.3}

의료 선교사업에는 영혼들에 대한 깊은 동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의사에게는 복음 사역자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껏 사람에게 맡겨진 최고의 의무가 위탁되어 있다. 그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간에, 각 의사에게는 영혼의 치료가 위탁되어 있다. {MH 119.4}

의사들은 질병과 죽음을 취급하는 그들의 사업에서 미래의 생애에 대한 엄숙한 사실을 너무도 흔히 망각해 버린다. 그들은 육신의 위험을 방지하는 일에 열렬한 노력을 하는 나머지 영혼의 위험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맡아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상실해 가고 있을 수도 있다 봉사의 마지막 기회는 그의 영역에서 지나가고 있다. 의사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판과정에서 다시 만나야 하다. {MH 119.5}

이따금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 주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가장 귀중한 축복을 잃어버린다. 황금 기회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환자의 침상 곁에서는 신조나 논쟁에 속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즐겨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분을 가리켜 주라.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열렬하고 친절하게 노력하라. {MH 120.1}

자신이 피난처되시는 예수님께 인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개인의 구주가 되심을 아는 의사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가련하고, 죄 많고, 죄로 병든 영혼들을 어떻게 취급할지 알게 된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그는 구속주(救贖主)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는 회개와 믿음의 능력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단순하고 열렬한 말로써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환자에게도 긍휼이 많으신 구주의 자비를 구하고 받아들이도록 격려할 수 있다. 그가 그와 같이 병자의 침상 곁에서 봉사하고,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고자 애를 쓰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또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 {MH 120.2}

환자를 돌보는 동안 때때로 의사는 그 환자의 친구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환자의 침상 곁에서 보고 있는 동안 그들은 고통의 한 부분도 제거해 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유약해진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슬픔이 의사에게는 표현된다. 그 때는 그와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신 분을 가리켜 줄 기회이다. 때때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 드림으로 모든 불행의 치료자되시며, 모든 슬픔의 위로자되시는 분에게 그들의 필요를 아뢸 수 있다.* {MH 121.1}

하나님의 약속

의사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보고(寶庫)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 그들이 갈급하는 위로와 교훈의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말해 주어야 한다. 의사는 자신의 마음을 참신한 사상의 보고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봉사 동안에 교훈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을 반복해서 배워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치료의 사업과 그분의 친절과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여야 한다. 그는 그의 환자들의 마음을 수석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MH 121.2}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로 걸어다니실 때 나타내셨던 바로 그 능력이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분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MH 122.1}

성경을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그분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온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시대를 통하여 동일한 필요와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게 될 모든 사람들을 보셨다. 그분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의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구하게 될 고통당하고 죄의 짐에 눌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마 9:2, 눅 8:48). {MH 122.2}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두 그와 같다.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것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속한 잎사귀들이다(계 22:2).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면,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영성과 생명의 영양소가 된다. 그 외의 다른 어떤 것도 그와 같은 치료의 능이 될 수 없다. 그 밖의 어떤 것도 온몸에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없다. {MH 122.3}

무덤의 가장자리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서 있는 사람에게, 죄와 고통의 짐에 눌려 있는 영혼에게, 의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주의 말씀을 반복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경 말씀은 모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MH 122.4}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사 43:1-4, 25, 5). {MH 123.1}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 103:13, 14). {MH 123.2}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 하였음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렘 3:13, 요일 1:9). {MH 123.3}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사 44:22). {MH 123.4}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사 1:18, 19). {MH 123.5}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렘 31:3, 사 54:8). {MH 123.6}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1, 27). {MH 123.7}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같을 것이며 마른땅에 냇물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으리니"(사 32:2). {MH 124.1}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사 41:17). {MH 124.2}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사 44:2, 3). {MH 124.3}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사 45:22). {MH 124.4}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마 8:17, 사 53:5). {MH 124.5}

8장 교육자로서의 의사

참된 의사는 교육자이다. 그는 자기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는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육체적 도덕적 건강의 보호자로 서게 된다. 병자의 치료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습관을 권장하고 바른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시키는 것이 그의 활동이다. {MH 125.1}

건강원리를 교육시킬 필요성

건강원리에 대한 교육이 오늘날보다 더 필요했던 때는 없었다. 생활의 안락과 편리에 관하여 그처럼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되 심지어 위생문제와 질병의 치료에서까지도 놀라운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인내력의 감퇴는 놀라울 정도이다. 그것은 동료인간들의 복리에 마음을 쏟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MH 125.2}

우리의 인공적(人工的)인 문명은 건전한 원칙을 파괴시키는 악을 조장하고 있다. 습관과 유행은 자연과 싸우고 있다. 사람들이 거듭하고 있는 행동, 그들이 조장하고 있는 방종 등은 육체적 정신적 힘을 계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견딜 수 없는 짐을 인류에게 지우고있다. 부절제와 범죄, 질병과 불행이 도처에 있다. {MH 125.3}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건강법칙을 범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생애의 지침으로 삼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의사는 건강원리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는 일과 그 원리를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많은 기회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 바른 교훈을 통하여 그는 말로다 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는 악을 바로 잡는데 많은 일을 할 수있다. {MH 126.1}

많은 질병과 심지어는 더욱 위험한 악의 기초를 놓고 있는 하나의 습관은 독한 약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다.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주된 희망은 고통과 불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특성을 별로 알지도 못하는 특효약을 구하러 가거나, 그들의 비건강적인 습관을 고칠 생각은 없으면서 그들의 비행(非行)의 결과를 제거해 줄 어떤 치료를 받고자 의사에게 의뢰한다. 만일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약을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약을 시험해 본다. 그리하여 악은 계속된다. {MH 126.2}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해 주고,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 독을 제거해 주고 병의 원인이 되어있는 상태를 고쳐 주기에 충분한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꾸어주는데 불과하다.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마는,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 있게 되며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된다. {MH 126.3}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적 치료법을 사용하였다면 살았을 뻔한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소위 많은 치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들은 심령과 육체를 둘 다 파괴하는 습관과 욕구를 조성해 준다. 소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많은 특효약들, 심지어 의사들이 조제하는 어떤 약품들까지도 사회에 그처럼 무서운 저주가 되고 있는 음주, 아편, 마약 등의 습관의 기초를 놓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MH 126.4}

더욱 호전되는 유일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의사들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질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건강적 조건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불순을 제거하고 육체적 조직에 올바른 조건을 재건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MH 127.1}

자연요법(自然療法)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같이 요긴하다. {MH 127.2}

자연요법의 이용은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자연의 과정은 점진적이므로 참을성없는 사람들에게는 느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로운 방종을 버리는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자연이 일을 현명하게 잘 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자연법칙에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MH 127.3}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너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유기적 조직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체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여러 기관들의 기능과 모든

기관들의 건전한 작용을 위한 상호의존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연구해야 한다. {MH 128.1}

생애의 투쟁을 위한 훈련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건강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건강은 법칙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다. 그것은 운동경기와 힘을 겨루는 시합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 사람들은 가장 세심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들은 철저한 연습과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 모든 육체적 습관은 엄격한 규칙의 지배 아래 놓인다. 그들은 육체의 어떤 기관이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태만과 부절제와 부주의가 분명히 패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안다. {MH 128.2}

인생의 투쟁에서 성공을 보장받으려면 이와 같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우리가 참전하고 있는 것은 모의전(模擬戰)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과가 달려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대결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 악한 천사들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육체적 힘을 감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어떤 비건강적 습관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악을 저항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그것은 실패와 패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MH 128.3}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9:24).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서는 바른 원칙에 순증함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모두 상을 얻을 것이다. 흔히 생애의 각 부분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는 일을 너무도 중요하지 않는 일, 주의를 기울이기에는너무도 사소한 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성패(成敗)가 걸려 있는 그 문제의 중요성에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소한 것이 전혀 없다. 모든 행동은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가름하는 저울판 위에 놓여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명령한다(고전 9:24). {MH 129.1}

우리의 첫조상들은 부절제의 욕망 때문에 에덴동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은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MH 129.2}

고대 희랍의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천한 극기(克己)를 지적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고전 9:25-27). {MH 129.3}

개혁의 발전은 기본적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일에 좌우된다. 편협한 인생관과 딱딱하고 냉랭한 정통주의에 위험이 잠재해 있는 한편, 또한 무관심한 자유주의에도 큰 위험이 있다.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할 필요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 원칙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준수되어야 한다. 그 원칙들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하고 불변한 것들이다. {MH 129.4}

최초의 반역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한 일이었다. 오직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MH 129.5}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 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과육을 다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MH 130.1}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고상한 이성(理性)의 힘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MH 130.2}

하나님의 요구는 양심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남녀들은 자제(自制)의 의무와 순결의 필요와 각종 타락한 식욕과 더러운 습관에서의 해방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임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MH 130.3}

복음을 상징한 옛날의 의식(儀式)에서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갈 수 없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할 당신의 자녀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르쳐 준다(롬 12:1, 엡 5:27). {MH 130.4}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될 수 없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벽(性癖)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적 방호벽은 마치 급류(急流)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로써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다. {MH 130.5}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영혼을 부패케 하는 자연적 경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 주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애하셨다. 그분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MH 130.6}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고귀한 율법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MH 131.1}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나오고, 인간의 정욕과 감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엡 6:12)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MH 131.2}

이와 같은 교훈이 가정에서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고, 가정에서 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도 없다. 부모는 바로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해야 한다. 개혁사업은 육체적 도덕적 건강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멸망으로 쓸어넣는 악에 대한 유일의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라. 부모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알려 주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범법 중 어느 하나의 본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모본과 교훈에 의하여 가정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꼴지어 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MH 131.3}

만일 부모들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검토해 보든지 그들의 모본과 교훈으로 죄의 세력이나 의의 세력을 어느 정도 지속시키며 증가시키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유전과 습관에서 돌이켜 거룩한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MH 131.4}

모본의 힘

병자들의 침상 곁에서 간호를 해 주고,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며, 그들을 무덤의 경계선에서 돌아서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가정에서 봉사하는 의사는 그들의 신임과 애정을 얻게 된다. 그와 같은 일은 사람들에게 별로 허락되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그처럼 큰 가능성과 그처럼 널리까지 감화를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MH 132.1}

의사의 모본은 그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옳은 면에서 적극적 힘이 되어야 한다. 개혁사업은 생활습관에서 자제의 본을 보여 주는 남녀들을 요구한다. 우리가 차근차근 가르치는 원칙들이

실천될 때 그것들은 귀중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켜 주고 그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제공해 주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모본을 요구한다. 세상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에 나타난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지식보다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MH 132.2}

의사는 올바른 모본의 힘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힘이 약하다. 그들은 자제력이 부족함으로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 다만 의사가 모든 해로운 습관과 더러운 정욕에서 그를 승리하게 해 주는 원칙의 힘을 자신의 생애에서 나타내 줄 때만 그 영혼들을 도와 줄 수 있다. 그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그가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의 말이 아무리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그의 감화력은 악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MH 133.1}

자신들의 그릇된 습관 때문에 도덕적으로 파멸된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 권고와 치료를 요구한다. 그들은 터지고 약해지고 상해 있으므로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데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계속해서 갖게 해 주는 요소를 그들의 환경에서 찾아서는 결코 안된다. 그들은 순결한 분위기, 곧 높고 고상한 사상의 분위기를 호흡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해로운 습관의 노예가 되어 그들 자신의 감화력으로 유혹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을 볼 때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 {MH 133.2}

의사와 절제사업

담배와 주정음료(酒精飮料)를 사용함으로 심령과 육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으러 온다. 자신의 사명에 성실한 의사는 그와 같은 환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지적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의사가 담배나 알코올 음료를 사용하는 자일 것같으면, 그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는 환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방종을 의식하므로 그 환자의 불행의 원인을 지적해 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그것들의 해로운 결과를 확신시켜 줄 수 있겠는가? {MH 133.3}

의사 자신이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순결과 자제의 모본자로서 지역사회에 설 수 있으며, 절제 사업에서 효과적인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그의 호흡이 술과 담배로 더럽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면서 어떻게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의 침상 곁에서 바람직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MH 134.1}

마약을 사용한 결과로 그의 신경이 혼란하고 뇌가 흐려 있으면서, 어떻게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유능한 의사로서 성실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신속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MH 134.2}

만일 그가 자신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보다 이기적 만족을 택한다면, 그는 그 사실로써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MH 134.3}

의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할지라도, 그의 경험에는 분명한 실망과 실패가 많다. 때때로 그의 사업은 그가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비록 그의 환자들에게 건강이 회복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이나 세상에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지마는 그들은 다만 병을 초래했던 그 방종을 되풀이할 뿐이다. 전과 꼭 같은 열성으로 그들은 방종과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생할로 빠져들어 간다. 그들을 위한 의사의 사업은 쓸데없는 노력처럼 보인다. {MH 134.4}

그리스도께서도 꼭 같은 경험을 하셨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한 당신의 노력은 그치지 않으셨다. 깨끗함을 받은 열 사람의 문둥병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열 사람을 고치셨다. 만일 의사가 구주께서 거두신 것보다 더 좋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는 수석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는 ...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사 42:4, 53:11). {MH 134.5}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한 사람이 향상되고 고상하게 되어 주님의 왕궁에서 빛을 비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MH 135.1}

의사의 의무는 고되고 힘든 것이다. 그 의무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는 강한 체질과 튼튼한 건강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연약하거니 병든 사람은 의사의 직업에 따르는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완전한 자제가 부족한 사람은 각종 질병을 취급할 자격을 갖출수 없다. {MH 135.2}

때때로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는 일까지도 등한히 하고, 주로 사교적 오락과 종교적 특권에서 제외되므로 의사의 생활은 계속적으로 그늘 아래 놓인 것처럼 보인다. 그가 목격하는 고통, 도움을 구하는 속절없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과의 접촉 등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간성에 대한 확신을 거의 파괴시킨다. {MH 135.3}

질병과 죽음으로 더불어 싸우기 때문에 모든 정력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된다. 이 무서운 긴장 때문에 생기는 반응은 품성을 극도로 시험한다. 유혹이 가장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이다. 다른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의사는 더욱 많은 자제와 순결한 정신과 하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는 신체의 법칙을 등한히 할 수 없다. 육체적 습관을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도덕적 습관도 아무렇게나 하게 된다. {MH 135.4}

의사의 유일의 안전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은 확고한 목적으로 강화되고 고상하게 된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에 속한 도덕적 탁월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는 매일, 매시간, 매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계(視界)에서 사는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는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참아야 한다. {MH 135.5}

의(義)는 경건 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어떤 사람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숨겨지지 아니하면 그의 동료 인간들 앞에서 순결하고 강력한 생애를 굳게 지탱할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개하는 활동이 크면 클수록 하늘과 나누는 마음의 교통은 더욱 밀접해져야 한다. {MH 136.1}

의사의 의무가 더욱 긴급하고 그의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 영원한 사물을 명상하기 위하여 일시적 사물에서는 시간이 절약되어야 한다. 그는 능력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강하게 압박하는 잠식력이 강한 세상을 저항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는 기도와 성경 연구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 아래 두어야 한다. 그는 진리와 의의 원칙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 주는 자비를 매시간 느끼고 의식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야 한다. {MH 136.2}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만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모든 행동의 동기와 품성의 모든 면에 접촉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순결하게 해 주고, 모든 욕망을 조절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내답게 행동하며 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온갖 비천한 것들을 초월하여 더러운 것과 상관이 없는 분위기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MH 136.3}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요셉과 다니엘을 부패한 이교도의 궁정에서 보호해 준 그 확고한 목적이 그의 생애를 오점없는 순결한 생애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의 품성의 옷은 흠이 없을 것이다. 그의 생애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밝고 광명한 새벽별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떠올라 그에게 불변의 영광으로 줄기차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MH 136.4}

그와 같은 생애는 지역사회에서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악을 저항하는 방호벽이 되고, 시험받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되며, 어려움과 실망 중에서 바른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이다. {MH 136.5}

3편 의료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업

9장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

그리스도께서 열 두 제자들을 최초의 선교여행에 내어 보내시면서 그분께서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명령하셨다(마 10:7, 8). {MH 139.1}

그 후에 파견한 70인에게 그분께서는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하셨다(눅 10:8, 9).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고 하였다(17절). {MH 139.2}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었다. 예수님 자신의 봉사사업의 장면이 되풀이되었다.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행 5:16). {MH 139.3}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막 16:20).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 8:5-8). {MH 139.4}

제자들의 사업

그의 이름으로 된 복음서의 기자, 누가는 의료 선교사였다. 그는 성경에서 "사랑을 받는 의원"(골 4:14)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의사로서의 그의 기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심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업을 맡겨 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를 찾았다. 그는 그의 협력을 얻게 되었으며, 얼마 동안 누가는 이곳 저곳으로 다니는 바울의 여행에 동행하였다. 얼마 후에 바울은 누가를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남겨두었다. 여기에서 그는 여러 해 동안 의사와 복음의 교사로서 계속해서 일하였다.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는 병자들에게 봉사하였고,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복음 기별을 위한 길이 열렸다. 의사로서 누가가 거둔 성공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많은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 제자들이 일한 것처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육신적 치료는 복음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복음사업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과 병고치는 일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MH 140.1}

제자들의 사업은 복음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신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업이 위탁되었다. 그들은 그 사업을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하여 성취하였다.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 단 한 세대 동안에 전해 졌다. {MH 141.1}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위탁하신 사업이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의 해독제(解毒劑)이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을 알려 주는 것이 그 치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의 첫째 과업이다. {MH 141.2}

그리스도께서 복음 기별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당시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거의 떠나갔다. 여호와의 지식을 가졌노라고 공언한 유대 백성들 사이에도 그분의 말씀은 유전과 인간적 이론 때문에 무시당하였다. 이기적 야망, 허영에 대한 사랑, 이득에 대한 탐욕 등이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았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떠나가자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사라졌다. 이기심이 지배적 원칙이 되고, 사단이 인간의 불행과 타락에 그의 뜻을 행사했다. {MH 142.1}

사단의 대리자들이 인간을 사로잡았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창조된 인간의 육체는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 사람의 감각과 신경과 기관들은 가장 타락한 정욕의 방종에 있어서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바로 마귀의 인이 인간의 얼굴에 찍혀졌다. 사람들의 얼굴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악의 군대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MH 142.2}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상태는 어떠한가? 성경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당시의 유전과 유대의 율법주의로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고등 비판과 인간적 이론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파괴되고 있지 않는가? 탐욕과 야망과 쾌락을 사랑하는 일은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믿노라고 공헌하는 그리스도교계, 심지어 믿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인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사업, 사교적 모임, 가정, 심지어 종교적 모임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 악을 떠나는 자가 약탈을 당하는도다"고 한 말이 사실이 아닌가?(사 59:14, 15). {MH 142.3}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려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범죄의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만연되고 있는 부패는 사람의 필력(筆力)으로 묘사할 수 없다. 매일 정치적 투쟁, 증회(贈賄), 사기 등이 새롭게 폭로되고 있다. 매일 폭력과 불법,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잔인성과 극악한 파멸 등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이 전달된다. 매일 정신이상, 살인, 자살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사단의 부하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여 마음을 괴롭히고 부패케 하며, 육체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MH 142.4}

그런데 세상이 이와 같은 악으로 충만해 있는 한편, 복음은 너무도 흔히 사람들의 양심과 생애에 별반 감동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무관심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도처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를 정복하게 해 줄 능력, 그들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 줄 능력, 건강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능력을 갈망한다. 한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MH 143.1}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망된다. 위대한 개혁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MH 143.2}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MH 143.3}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死別)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MH 143.4}

우리는 의료선교사업의 목적이 죄로 병든 남녀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갈바리의 사람을 가리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해야 한다. 사역자들은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의사, 그리스도를 언제나 제시해야 한다. 그들에게 육체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아울러 치료해 줄 분을 가르쳐 주라.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동정하시는 분을 이야기해 주라.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그들에게 영생이 되게 해 주신 분의 보호에 그들 자신을 맡기도록 권면하라.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라. {MH 144.1}

이것이 의료 선교사의 고상한 의무이며 귀중한 특권이다. 그리고 개인적 봉사가 이따금 이 사업을 위한 길을 마련해 준다. 이따금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하신다. {MH 144.2}

의료선교사업은 복음의 개척 사업이다. 말씀을 전하는 활동과 의료선교사업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MH 144.3}

거의 모든 지역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어떤 종교적 예배에 참석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 지면 그 복음은 그들의 가정으로 틀림없이 전달된다. 때때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과 접촉할 유일의 길이 된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선교 간호원들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고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욕을 타락시킨 식욕을 지배할 힘을 소유하지 못한 속절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들은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들의 생애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 사심없는 친절한 행동 속에 나타난 그들의 이타적 사랑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MH 144.4}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임마저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동정해 주고 도와 주는 행동에는 감사한다. 어떤 사람이 세속적 칭찬과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집에 찾아 와서 병자들을 간호해 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주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인간 일꾼은 다만 그분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다.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고, 믿음이 타오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이루게 된다. {MH 145.1}

외방 선교사업이나 본국 선교사업이나 간에 남녀를 막론한 모든 선교사들이 병자들에게 봉사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하고, 그들 자신의 유용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교의 지역에 선교사로 가는 여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다른 문들이 닫혀 있을 때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 지역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고통을 없애 주고 질병을 제해 주는 간단한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 {MH 145.2}

건강 원리를 가르침

복음 사역자들은 건강 생활의 원리에 관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곳에나 질병이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건강 법칙에 유의함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사람들은 건강 원리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막론하고 그들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그들의 창조주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써 그분께서는

그들을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로써 감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MH 146.1}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MH 146.2}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간단한 방법, 곧 독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요구하며,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자 한다. 식사의 개혁에 관한 가르침이 크게 필요하다. 그릇된 식사 습관과 불건전한 음식물의 사용은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부절제와 범죄와 불행에 대하여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MH 146.3}

건강 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개혁의 위대한 목적, 곧 그 목적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고의 발달을 이루어 주는데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라.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법칙이라는 것과 그 법칙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증진되고 내세를 위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라. {MH 146.4}

천연계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을 연구하도록 사람들을 지도하라. 놀라운 기관, 곧 인간의 육체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연구하도록 그들을 지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깨닫고 그분의 법칙의 지혜와 은혜에 대한 것과 순종의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견해에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건강 법칙의 준수를 희생과 자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은 사실 그대로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간주할 것이다. {MH 147.1}

모든 복음 사역자는 건강 생활의 원리를 교육시키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업의 일부임을 느껴야 한다. 이 사업은 크게 필요하며, 세상은 그 일을 위하여 문이 열려 있다. {MH 147.2}

어디에서나 단체의 사업이 개인의 노력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지혜가 통합하고, 한 곳으로 집중되고 큰 교회들과 기관들을 세우는 데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선사업을 기관과 조직체에 일임시킨다. 그들은 세상과 접촉하지 않은데 대하여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져 간다. 그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감각해진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심령 속에서 죽어간다. {MH 147.3}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 곧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맡겨 주신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원회나 조직된 자선단체에 맡겨져서는 안된다. 개인적 의무, 개인적 노력, 직접적인 희생 등이 복음의 요구이다. {MH 147.4}

"길과 산울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자들과 교제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말씀하신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눅 14:23, 사 58:7, 막 16:18).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리고 개인적 봉사를 통하여,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한다. {MH 147.5}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면서 오로지 어떤 한 계급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의 왕족이었다. 이사야 역시 왕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아모스는 목자였다. 스가랴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엘리사는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왕족들, 귀족과 천한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부르셔서 세상에 전해 줄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 주셨다. {MH 148.1}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야 한다(사 6:8).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간호원 선교사와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그리고 상인, 농부, 전문직의 사람, 기술자 등을 막론한 그리스도인 개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지워져 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MH 148.2}

맡겨진 사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은 그들 자신의 심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낙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실망을 잊어버리고, 약한 사람들은 강해지고, 무지한 사람들은 영리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부르신 분 안에게 실패가 없는 조력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MH 148.3}

그리스도의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며, 그 표어 역시 봉사이다. 교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싸움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할 군사들이다. 그리스도인 목사들과 의사들과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사업을 맡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바른 원칙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을 전해 주도록 청중들을 교훈시켜야 한다. 생활에 실천되지 않는 진리, 나누어 주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력과 치유력을 상실하게 된다. 진리의 축복은 오직 나누어 줄 때 보존될 수 있다. {MH 148.4}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단조로운 봉사는 깨어져야 한다. 모든 교인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봉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질병과 고통의 물결을 물리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MH 149.1}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과 안식일 학교의 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 주는 최선의 방법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는 건강학교, 요리학교, 그리스도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치는 반들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들이 보여 주는 실제적 시범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함으로써 방법을 지도해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과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가지의 모본은 많은 교훈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 {MH 149.2}

모든 사람은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이르러 그들을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구별지어 준 동일한 은혜가 오늘날도 헌신적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능과 지식을 갖추어 분명하고 능력있게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MH 149.3}

하나님께 헌신한 교육받은 일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분야에서 봉사하고 더욱 넓은 분야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들의 정신적 훈련은 그들을 유리한 위치에 놓아 준다. 그러나 큰 재능도 없고 광범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봉사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구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에서 온 기별을 듣는 남녀들이 필요하다. 가장 유능한 일꾼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는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MH 150.1}

필요한 것은 동정심이 많은 선교사들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심령에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큰 열망으로 충만해진다. 그들의 상태가 그에게 비통한 느낌을 준다. 그는 생명을 내걸고, 하늘에서 파견된 영감의 사자로서 천사들이 협력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가게 된다. {MH 150.2}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능의 선물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 지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들은 한 동안의 시험 기간이 끝난 뒤 그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재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아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하여 해 주실 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는 봉사를 받아 주시되 부족한 것은 그분께서 친히 채워 주실 것이다. {MH 150.3}

주님께서는 이따금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택하셨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가장 근면하게 활용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성실성과 근면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급성에 보상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바벨론 궁전의 포로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MH 150.4}

학교 교육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때때로 그분을 위한 영혼 구원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확신에 있었다. 그들은 놀라운 권고를 해 주며 능력이 많으신 분을 날마다 배웠다. {MH 151.1}

그런 일꾼들은 용기를 얻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은 공백을 메우게 하신다. 이루어져야 할 일을 깨닫는 그들의 민첩성,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자진하여 도와 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들의 친절한 말과 행동 등은 그렇지 않으면 닫혀 있을 뻔한 유익한 문들을 열어 준다. 그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접근해 간다. 그리고 그들의 설득력 있는 말에는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 그들의 사업은 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MH 151.2}

보다 넓은 생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만큼 자아 희생적 열성을 고취시켜 주고 품성을 넓혀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쓸 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교회의 친교와 목사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 그들은 크고 번영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귀중한 축복을 스스로 빼앗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유쾌하고 안이(安易)한 교제를 희생함으로써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정력을 그리스도인 사업에 사용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다. {MH 151.3}

빽빽하게 밀식(密植)된 나무들은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정원사는 그 나무들에게 발육할 여유를 주기 위하여 그것을 이식(移植)한다. 그와 유사한 일이 큰 교회에 속한 많은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힘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활동에 쓰여질 수 있는 곳에 놓여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아 희생적(自我犧牲的) 노력이 결핍하므로 영적 생명을 잃고,

성장이 저해되고 무능해져간다. 어떤 선교지역으로 옮겨지므로 그들은 튼튼하고 활발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MH 152.1}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먼 지역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는 일을 착수할 수 있다. 봉사의 문은 어느 곳에나 열려 있다. 우리의 모든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부, 고아, 병자, 죽어가는 사람, 마음 아픈 사람, 낙심한 자, 무식한 자, 소외된 자들은 도처에 있다. {MH 152.2}

우리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그대는 종교적 사물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 줄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라. 그대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들의 세속적 복리에는 물론이요 그들의 영적 복리에도 흥미를 나타내라.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이야기해 주라. 이웃 사람들을 그대의 가정으로 초청하여 귀중한 성경과 성경의 진리를 해석해 주는 책들을 그들과 함께 읽어라. 그들에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대와 연합하도록 요청하라. 이와 같은 작은 모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직접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그분의 은혜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MH 152.3}

교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한다. 이것은 외방 선교지에서 미개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꼭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먼 나라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한편,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귀중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꼭 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MH 152.4}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좁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후회한다. 만일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생애를 넓고 영향력 있는 생애로 만들 수 있다.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감화력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분야를 갖게 된다.* {MH 153.1}

작은 기회들

누구든지 보다 큰 일을 바라기 위하여 작은 기회들을 놓쳐 버려서는 안된다. 그대는 작은 일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일을 시도하면 완전히 실패하고 실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여 그대의 힘으로 그 일을 함으로 보다 큰 일을 위한 적성을 계발시키게 될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결실없이 시들어 버리는 것은 매일의 기회들을 소홀히 하고, 바로 곁에 있는 작은 일들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다. {MH 153.2}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힘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비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자 지정해 주신 분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대가 할 일을 발견할 때마다 그 일을 착수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추진해 나가라. 힘과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타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과 끈기 있는 힘으로 일하라. {MH 153.3}

조건들이 너무 불리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들에서 자아 희생적 일꾼들이 노력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놓았다. 그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활동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써 그들을 지탱해 주셨다. 이와 같이 성취된 훌륭한 일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위대한 내세에서 그 복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MH 153.4}

자급 전도자

많은 지역에서 자급 전도자들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하여 활동한 것은 자급 전도자로서였다. 날마다 아시아와 유럽의 큰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편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동료들의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手工業)에 종사하였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그의 고별의 말은 그가 일한 방법을 알려 주고, 모든 복음의 역군들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남겨 준다. {MH 154.1}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18-35). {MH 154.2}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고무되었을 것같으면 유사한 방법으로 선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전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라. 그들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병자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서전도자로서 자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처럼 어떤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그들은 복된 경험을 얻는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은 부요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호의와 도움을 발견하게 된다. {MH 154.3}

외국에서 의료선교사업을 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미구에 그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MH 155.1}

세계의 전역에 자비의 사자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흑암과 오류가 덮여 있는 지역사회로 들어가고, 외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만일 그런 가정들이 세상의 어두운 장소, 곧 영적 흑암이 덮여 있는 곳에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들을 통하여 비추게 되었을 것같으면 참으로 고귀한 사업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MH 155.2}

이 사업은 자아 희생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들이 이룰 수 있었던 사업은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많은 무리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상업상 혜택을 위하여, 혹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불안정한 지역으로 들어가 희생과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즐거이 옮겨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MH 156.1}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위치와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들을 가르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이다.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접근할 문을 열게 될 것이다. {MH 156.2}

그대의 모든 사업에 있어,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생명을 주는 물결이 그대의 생애를 통하여 흘러나야 한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자 노력할 때, 그대의 순결한 언어와 그대의 이기심 없는 봉사와 그대의 기쁨에 넘치는 태도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자. 그분을 순결하고 의롭게 세상에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매력 있게 바라보게 하라. {MH 156.3}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공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고자 시도하는 일은 별반 소용이 없다. 그런 노력은 유익보다는 흔히 더 큰 손해를 가져 온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멸시하는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다. 그분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다(요 4:10). 그분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한 보화로 화제를 돌려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곧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생수까지 제시하셨다. {MH 156.4}

이것은 우리가 일할 방법을 알려 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까지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해 주어야 한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덧없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초월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 주라. 구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안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분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4:14). {MH 157.1}

예수님을 높이 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부르짖으라(요 1:29). 오직 그분만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고 심령에 평안을 주실 수 있다. {MH 157.2}

개혁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의가 발라야 한다. 그들의 생애에서 이타적 행위의 미덕이 나타나야 한다. 예의의 부족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무지와 고집에 대하여 참을성 없는 태도를 보여 주고, 빨리 말을 하거나 생각없이 행동하는 일꾼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므로 그들과 결코 접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MH 157.3}

사람들을 오류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는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 나와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에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 {MH 157.4}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중심적이며 고집을 세우게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명하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본, 곧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피곤한 발길을 편안하게 해 줄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MH 157.5}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사 50:4). {MH 158.1}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 우리는 이곳 저곳 어디에서나 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해 주도록 하자. 우리는 언제나 신선한 동정의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MH 158.2}

우리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는 인간의 눈에 가리워진 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의 페이지에는 호기심 있는 사람들의 눈에 신비하게 가리워져 있는 슬픈 역사들이 있다. 거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치루는 지루하고 고된 싸움, 아마도 날마다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커다란 장애물을 놓고 생애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친절한 노력만으로 보여 주는 작은 주의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내미는 강하고 유용한 손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MH 158.3}

적은 임금을 위하여 힘겹게 일할 수 밖에 없는, 빈곤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겨우 연명할 정도의 필수품 밖에 얻을 수 없다.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없이 당하는 수고와 손실은 그들의 짐을 매우 무겁게 해준다. 고통과 질병이 첨가되면 그 짐은 거의 질 수 없게 된다. 근심에 시달리고 억압된 나머지 그들은 헤어날 길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시련과 마음의 고통과 실망을 동정해 주라. 그렇게 할 때 그대에게는 그들을 도와 줄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라. {MH 158.4}

심령이 병들고 용기의 맥박이 떨어질 때 들려주는 격려와 권면의 말, 구주께서는 그것을 마치 자신에게 한 말처럼 간주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될 때, 하늘의 천사들은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MH 159.1}

각 시대를 통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신성한 형제의 의식을 넣어 주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라. 불신과 분열이 세상에 편만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늘을 지배하는 그 정신을 나타내야 한다. {MH 159.2}

그분께서 말씀하실 그런 말을 하고, 그분께서 행동하실 그런 행동을 하라.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 주라. 그분의 모든 교훈과 그분께서 사람을 취급하시는 모든 행동의 저변에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라. 가장 비천한 일꾼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 진동이 땅 끝까지 울려 퍼지고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화음을 이루게 될 심금(心琴)을 울릴 수 있다. {MH 159.3}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은 인간 기구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아를 버리고,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를 하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무한한 하늘의 자원이 그들의 마음대로 쓰여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소유하신 성령의 능력과 당신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위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우리 자신의 그릇된 이견과 선입견, 품성의 결함, 믿음의 부족 등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MH 159.4}

아무것도 보류해 두지 않고 봉사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모든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므로 이 세상에도 그들의 생애에서 장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MH 160.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위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MH 160.2}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MH 160.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무서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35장 1-10절 {MH 160.4}

10장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며 돌아가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비록 우리의 죄는 정죄받기에 합당하지마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우리의 냉담과 고집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우리가 방황하고, 심령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팔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뻗쳐 있다. {MH 161.1}

은혜는 은혜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의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MH 161.2}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고 타락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자 온 종일 당신의 손을 뻗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신다. 죄인들의 괴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그분께서는 사로잡힌 자를 강한 자에게서 빼앗으시고, 포로된 자를 건져내시고, 나무토막을 붙는 불에서 꺼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장 깊은 인간의 불행의 심연(深淵)까지 당신의 자비의 황금 사슬을 내려서 죄로 병든 타락한 영혼을 끌어올리실 것이다. {MH 161.3}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부드러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죄 많고 속절없는 영혼들, 사단의 간계와 사슬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영혼들이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MH 162.1}

구주의 모본은 시험당하는 자와 실수한 자들을 위하여 나타내는 우리의 봉사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과 꼭 같은 흥미와 친절과 인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요 13:34).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이기심 없는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동정과 도움이 필요되는 남녀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고 자문해야 할 것이다. {MH 162.2}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자유인과 종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다. 인류를 구속(救贖)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유한한 인간이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보신다. 십자가의 오묘한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바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비록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냉대와 모멸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리만큼 큰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MH 162.3}

구주의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은 비록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의 은이었다.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은전의 주인은 그것을 찾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은전이 통치자의 상(像)과 명각(銘刻)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명각을 간직하게 되었다.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은 훼손되고 희미해졌을지라도 각 영혼에는 그 명각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와 성결로써 그 위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신다. {MH 163.1}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되는 동정심, 곧 타락하고, 죄 많고, 고통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그분과 같이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엄격하고 가혹하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유혹의 압박을 받는다. 사단은 그와 같은 영혼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거칠고 냉랭한 말은 그들을 낙담케 하고, 그들을 유혹자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한다. {MH 163.2}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미묘한 일이다. 오직 마음을 아시는 분만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하도록 인도할 것인지 아신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실 수 있다. 그대는 엄격하게 혼자 서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의 이론이 아무리 정확하고 그대의 말이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세는 사람들의 마음과 결코 접촉될 수 없다. 교훈과 논쟁의 반복이 아무런 일을 성취하지 못할 때, 말과 행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MH 163.3}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이 더욱 필요하다. 그와 같은 동정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결점에 사로잡혀 있고, 죄를 짓고 통회하며, 시험을 받아 낙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갈등속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약점들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접촉해야 한다. {MH 164.1}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부드러운 친절로 당신께 오도록 강권하신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곧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 그분께서 결코 호의를 보이실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MH 164.2}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야한다. "세리들과 창기들"도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친절과 인내를 통하여 그 초청은 가장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는 강권하는 힘이 된다. {MH 164.3}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사단이 멸망시키고자 애쓰는 영혼들을 위하여 확고한 목적과 끊임없는 관심과 불굴의 인내로 일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어떠한 것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하고 열렬한 활력을 냉각시켜서는 안된다. {MH 164.4}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남녀들을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호소하고 강권하는 정신이 나타나 있음을 주목해 보라. 우리는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기 위하여 공사(公私)간의 온갖 기회를 포착하여 모든 이론을 전개하고, 모든 동기를 한량없이 일으키도록 격려해야 한다. 우리는 온갖 능력을 기울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극기와 희생의 생애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분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다 활용함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MH 164.5}

소망으로 구원을 받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롬 8:24).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답게 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인류를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인류의 명예를 스스로 간직하게 하셨다.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적의(敵意)와 부패와 불순을 접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감정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당신의 고상한 취미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결코 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악습과 강한 편견과 거만한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동정 깊은 친절로 대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유사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형제들로, 또한 이따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애쓰며, 낙담과 어려움에 부딪혀 싸우고, 동정과 도움을 갈망하고 있는 형제들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낙심시키거나 쫓아 버리기 위하여 만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속에 소망을 일으켜 주기 위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면 그들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미 7:8, 9). {MH 165.1}

하나님께서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시편 33편 14, 15절) {MH 166.1}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실수하는 사람들을 취급할 때 "네 자신을 돌아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갈 6:1)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MH 166.2}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신여기느뇨."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전 4:7, 마 23:8, 롬 14:10, 13). {MH 166.3}

사람이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언제나 굴욕적인 일이다.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비난으로 그 경험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지금껏 비난으로 개선된 일이 없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난으로 반감을 갖게 되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고 많은 죄를 가리워 준다. {MH 166.4}

사도 바울은 잘못을 책망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실수한 사람의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하여 얼마나 신중하게 노력하였던가!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그들에게 얼마나 열렬하게 설명하였던가! 그는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그에게도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승리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확신과 동정을 보여주었다. {MH 166.5}

그는 "내가 큰 환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고후 2:4).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고후 7:8-13). {MH 166.6}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후 7:16, 빌 1:3-5, 1:6, 7, 4:1, 살전 3:8). {MH 167.1}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는 품성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혹을 대항하여 싸우는 한편, 또한 넘어질 위험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그들에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분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을 보증하였다(히 13:20, 21). {MH 167.2}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의 실수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관심과 불신으로 그 사람을 낙담케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끝까지 잘 해 나갈 것인지 본 후에 그를 신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흔히 바로 그와 같은 불신이 시험받는 사람을 실족케 한다. {MH 167.3}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흑암의 사슬에 매인 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결심과 도덕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의 시련을 별로 알지 못한다. 가장 비참한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상태이다. 그는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비틀거리며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는 아무것도 분명하게 볼 수 없다. 마음이 흐려져 있으므로 발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른다.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오해를 받고,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번민에 싸인 채 잃어버린 양이 되어 방황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그는 용서와 평안을 갈급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MH 168.1}

아,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해 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죄악 생애에 지쳐있으면서도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많으신 구주를 알려 주라. 그의 손을 잡아 주고, 그를

일으켜 주고, 그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해 주고, 그를 도와서 구주의 손을 붙들게 해 주라. {MH 168.2}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즉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실망한다. 우리는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남아 있으면 영혼을 위한 노력을 결코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 구속주의 희생으로 산 귀한 영혼들은 유혹자의 세력에 가볍게 버려두기에 너무나 귀중하다. {MH 168.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받는 사람들의 처지에 놓을 필요가 있다. 유전의 힘, 나쁜 교제와 환경의 영향, 나쁜 습관의 힘 등을 생각해 보라. 그와 같은 영향 아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에 그들이 느리게 반응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MH 168.4}

때때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외관상으로 보잘 것없고 유망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충성스런 복음의 신봉자와 옹호자들 중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대체로 더럽혀져 있지 않다. 외관상으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이면에는 접촉할 수 있는 선량한 본성이 잠재해 있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염려와 실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마음 속에 있는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종류의 권면이 필요하다. 그들과 접촉하는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MH 168.5}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애에서 더 나은 환경에 결코 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은 그 영혼에게도 비추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가되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 숭고하고 고상한 사상을 심어 주라. 그대의 생활로써 부도덕과 순결, 흑암과 빛의 차이점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 그대의 모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 주라.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두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유업(遺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MH 169.1}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생활에 적합해질 수 있다. 그들은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나머지 완전히 낙심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냉랭하고 완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참으로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리석음은 성령의 역사 아래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둔하고 흐려 있던 정신은 각성될 것이다. 죄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다. 부도덕은 사라지고, 무지는 극복될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은 순결해지고, 정신은 계발될 것이다. {MH 169.2}.

11장 부절제한 사람을 위한 봉사

모든 참된 개혁은 복음사업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새롭고 더욱 고상한 생애로 영혼을 향상시켜 준다. 특별히 절제 개혁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의 지원을 요망한다. 그들은 이 사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하나의 실제적 문제로 삼아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참된 절제 원칙을 가르쳐 주고 절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악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MH 171.1}

부절제로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사업이 어느 곳에나 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 기관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 부절제의 습관으로 그들은 스스로 질병을 초래하고 죄악적 방종에 쓸 돈을 벌기 위한 탐욕 때문에 부정직한 생활로 전락한다. 건강과 품성은 파괴된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회에서 버림 받은 그 가련한 영혼들은 이생과 내생에서 한 가지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릇된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런 상태로 만든 모든 환경을 이해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신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요구되는 계급에 속한다. 그들에게 "아무도 내 영혼을 돌봐 주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주지 말라. {MH 171.2}

부절제의 희생이 된 사람들 중에는 온갖 계급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탁월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 위대한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식욕의 방종에 빠져, 마침내 유혹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한때 크게 부요하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고통과 불행과 질병 속에서 타락 상태가 되어 집도, 친구들도 없어진다. 그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이 뻗혀지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방종에는 도덕적 죄악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도 수반된다. {MH 172.1}

때때로 부절제한 사람들을 도와 줌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흔히 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들의 육체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건전하고 비자극성 식물과 음료, 깨끗한 의복, 육체적 청결을 얻을 기회가 필요하다. 그들은 유익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일 필요가 있다. 모든 도시에는 악한 습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사슬을

끊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독한 술을 고통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의 위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을 따를 것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독한 술을 위로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MH 172.2}

부절제의 희생자들을 취급할 때 우리는 정신이 건전한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내하고 참으라. 혐오감이 들고 가까이 가기 싫은 외모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귀중한 생명을 생각하라. 주정뱅이가 자신의 타락상을 깨닫게 되면, 그대가 그의 친구임을 보여 주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라.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행동이나 표정으로 비난이나 혐오감을 결코 나타내지 말라. 가련한 영혼은 매우 쉽사리 자신을 저주한다. 그가 일어서도록 도와 주라. 믿음을 고취시켜 줄 말을 해 주라.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좋은 특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노력하라. 향상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라.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할 가능성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셨지마는 그가 계발하기를 등한히 한 재능들의 가치를 볼 수 있게끔 그를 도와 주라. {MH 172.3}

비록 의지가 타락되고 약화되었을지라도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다. 그는 마음 속에서 더욱 고상한 동기와 더욱 고귀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다. 복음을 통하여 자기 앞에 제시된 희망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하라. 시험을 받아 투쟁하고 있는 사람 앞에 성경을 펴고 거듭 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 주라. 그 약속들은 그에게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을 것이다.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떨리는 손을 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속의 소망을 붙잡을 때까지 그대의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라. {MH 173.1}

그대는 그대가 도와 주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는 결코 그대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거듭거듭 독한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에 거의 정복당할 뻔할 것이다. 그들은 거듭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대의 활동을 중단하지 말라. {MH 173.2}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에 힘을 다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력은 약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으로 알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심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남자다운 기백을 잃어버렸으므로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강한 유전적 성질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부자연스런 욕망, 감각적 충동 등은 그들의 선천적 유산(遺産)이다. 그와 같은 것들은 주의 깊이 경계되어야 한다. 내외(內外)에서 선(善)과 악(惡)은 서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압도적인 식욕의 세력, 또한 방종의 습관과 모든 일에 절제하고자 하는 결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세력을 이해할 수 없다. 거듭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MH 173.3}

그리스도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을 대항하는 싸움을 계속할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역자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된다. 그들이야말로 타락의 밑창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할 유일의 대상이 아닌가? {MH 173.4}

그대는 혼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섬기는 천사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봉사하는 일에 연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회복자시다. 위대한 의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꾼들 곁에 서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막 2:5). {MH 174.1}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제시된 소망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큰 기회와 큰 빛으로 축복을 받았으나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질 것이다. {MH 174.2}

악습의 희생이 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가장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탄원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이 봉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싸우고자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될 것이다. {MH 174.3}

당시에 하나의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미구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마지막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다(왕상 2:2). 인류의 모든 자녀, 곧 불멸의 면류관을 얻을 후보자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한 영감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 {MH 174.4}

방종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대장부가 되려면 위대한 도덕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어나서 죄악적 방종으로 희생시켜 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장부다운 기백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 입어 다시 찾으라고 호소하신다. {MH 174.5}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유혹의 힘, 곧 방종으로 빠져 들어가는 욕망의 힘을 깨닫고서 절망 중에 "나는 악을 저항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다. 그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라. 그는 거듭거듭 정복당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그는 죄악 생활의 습관에 지배된 나머지 도덕적 능력이 약하다. 그의 약속과 결심은 마치 썩은 새끼와 같다. 그가 약속을 깨뜨리고 서약을 어긴 것을 알므로 그는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 주시거나 그와 함께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MH 174.6}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전과 후천적 습관과 기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보다 낮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오히려 모든 식욕과 정욕을 지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MH 175.1}

의지력(意志力)

시험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선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기질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하는 동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지 않는다. {MH 176.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성격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MH 176.2}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MH 176.3}

식욕의 힘을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생활의 원칙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질병의 조건을 만들고 부자연한 욕망을 일으킴으로써 건강 법칙을 깨뜨릴 때 음주의 습관에 대한 기초가 놓인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다만 건강의 원칙에 순종하여 생활함으로써만 그들은 부자연한 흥분제를 구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식욕의 속박을 깨뜨리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동안 그들은 도덕적, 육체적 법칙을 막론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MH 176.4}

개혁을 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감이 주어져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무료로 의식주(衣食住)가 해결되기를 바라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도 그들이 받는 것만큼 갚아 줄 수 있는 각종의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급(自給)하도록 권장하라. 그 일은 자중심(自重心)과 고상한 자립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유용한 분야의 정신적, 육체적 직업은 유혹을 저항하는 안전책으로서 필수적이다. {MH 177.1}

실망의 위험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약속하는 많은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과 행동에 있어서 다만 피상적인 변화만을 보일 것이다. 그들은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고, 일시적으로 개혁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없다. 그들은 전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어리석은 쾌락을 갈망하는 마음과 방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품성을 형성하는 사업을 알지 못함으로 원칙적인 사람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식욕과 정욕의 만족으로 정신적, 영적 능력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변하기 쉽다. 그들의 감정은 관능적으로 기울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의 요인이 된다. 그들이 개혁한 남녀로 인정되어 책임이 위탁되면 그들은 그들의 감화력으로 순결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MH 177.2}

개혁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넘어질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매우 지혜롭게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장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 주는 처사가 흔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임이 입증된다. 남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죄악 생활의 경험을 공중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에게 다같이 위험하다. 죄악적 장면에 머물러 있으면 정신과 심령이 타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게 되면 그들에게 해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생활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탁월성을 주었다고 느끼게 해 준다. 영혼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입증된, 나쁜 평판을 좋아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정신이 고무된다. 그들은 오직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함으로써 굳게 설수 있다. {MH 178.1}

회개의 참 증거를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아무도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보이면, 주님의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에게 온갖 권면을 해 주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유 22).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로 현명하게 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했으나 권면이 없으므로 소망의 줄을 담대히 붙들 수 없는

사람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떨며 회개하는 영혼들을 영접하여 친절하게 교제하도록 당신의 종들의 마음 속에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둘러 있는 죄악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느 정도로 깊이 타락하였든지,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 그 때에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 만일 그들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활동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 그들을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게 함으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라. 그들의 마음과 손을 주님을 위한 일로써 채워 주라. {MH 178.2}

빛이 심령 속에 비춰질 때, 죄에 가장 깊이 빠졌던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때 처해 있던 것과 꼭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성공적인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봉사의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알며, 그들의 본성의 타락상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죄의 힘, 곧 악습의 세력을 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나는 나의 속절없는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고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MH 179.1}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다. 시험과 시련을 받으므로 희망이 거의 사라졌으나 사랑의 기별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의 이치를 깨달을 것이다. 구주께서 그 자신을 찾아내어 양의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길을 안다. 그는 죄인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줄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영접을 받았다. 연약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자 뻗은 손이 붙잡혀졌다. 그런 사람들의 봉사를 통하여 많은 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것이다. {MH 179.2}

죄악 생활에서 순결한 생활로 전환하고자 애쓰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마련된 위대한 능력의 요소는 오직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 이름"(행 4:12)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한 소망과 죄악적 기질에서의 구원을 주시고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다(요 7:37). 부도덕을 고치는 유일의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MH 179.3}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결심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세상의 온갖 서약이 악습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와진 후에야 비로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 순간도 우리 자신을 죄에서 보호할 수 없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MH 179.4}

참된 개혁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데서 시작된다.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다시 형성시키고 심령이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룰 때만 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MH 180.1}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하셨다. 그런 점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본을 남기셨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생애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교훈으로 살아야 한다. {MH 180.2}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그분께 충성할 필요성이 정신과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분을 섬기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멸시하는 일을 용서하실 수 없다. 사람들이 불성실의 결과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정부의 원칙이다. 오직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존중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행위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어야 한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 {MH 180.3}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달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요구를 분명치 않게 남겨 주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사람의 품성에 대한 그분의 이상(理想)을 지적해 주고, 이 이상에 도달하게 해 주는 유일의 은혜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MH 180.4}

구주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없는 생애를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MH 180.5}

구주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보여 주기 위하여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유혹하는 자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시험을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처하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벧후 1:4). {MH 181.1}

시험받는 자에게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의 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도록 알려 주라. 그 모든 힘은 우리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오며"라고 말한다(시 119:11, 17:4).* {MH 181.2}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그들이 기도로써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라. 시험에 정복당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원수의 암시에 속한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바로 그 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라.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MH 181.3}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마는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MH 182.1}

다음의 귀중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영혼이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이다. {MH 182.2}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미가 7장 7, 8절 {MH 182.3}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7장 19절 {MH 182.4}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MH 182.5}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사야 13장 12절 {MH 182.6}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도다.”

시편 68편 13절 {MH 182.7}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MH 182.8}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요한계시록 22장 4절) {MH 182.9}

12장 직업없고 집없는 사람들을 도와 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그들을 구제해 줄 어떤 방법이 없을까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관대한 남녀들이 있다. 직업없고 집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공통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하신 생활을 하게끔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찾고자 열렬히 노력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적 상태에 잠재해 있는 원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며, 심지어 교육자들과 정치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를 지도하는 사람들도 가난과 빈곤과 격증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보다 안전한 기초 위에서 일을 하고자 애쓰지마는 허사가 되고 만다. {MH 183.1}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더욱 유의하였을 것같으면,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노동문제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MH 183.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 가족은 경작하기에 충분한 땅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용하고 근면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위한 수단과 동기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지금껏 사람들의 어떤 고안(考案)도 그 계획을 능가하지 못했다. 세상이 그 계획에서 떠남으로써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빈곤과 불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MH 183.3}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그 땅은 온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다만 성소 봉사자로 구별된 레위인들만은 균등한 분배에서 제외되었다. 매 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계수되었고, 그 가족의 수에 따라 유업이 각 가정에 할당되었다. {MH 184.1}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었으나 자기 자녀의 유업을 영구적으로 팔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었다. 빚은 매 7년에 탕감되었고, 50년째 되는 해, 곧 희년(禧年)에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본래의 소유주께 돌려졌다. {MH 184.2}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레 25:23-28). {MH 184.3}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10절). {MH 185.1}

그와 같이 모든 가정이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빈부(貧富)의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책이 마련되었다. {MH 185.2}

직업훈련

이스라엘에 있어서, 직업훈련은 하나의 의무로 간주되었다. 모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어떤 유용한 직업을 가르치도록 요구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생산적 직업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모든 여자에게는 살림살이에 대한 의무를 아는 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 의무에 따른 기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의 명예로 여겨졌다. {MH 185.3}

여러 가지 직업들을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육체노동으로 자급자족하였다. {MH 186.1}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가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하였다. 빈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 빈곤은 품성을 계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중 하나이다. 그분께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하신다(신 15:11). {MH 186.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며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7, 8절). {MH 186.3}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레 25:35) {MH 186.4}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레 19:9, 신 24:19-21). {MH 186.5}

아무도 그들의 너그러운 구제 때문에 궁핍이 초래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신 15:10, 6). {MH 187.1}

사업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계급의 사람들이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고통케 함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 거래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의 위치에 놓으라는 것과, 우리 자신의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무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도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교훈을 다 같이 범하는 자이다.* {MH 187.2}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무릇 네 이웃에게 꾸어 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집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외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신 24:17, 10-12, 출 22:26, 27, 레 25:14). {MH 187.3}

"너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같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공평한 저울과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레 19:35, 신 25:13, 14, 레 19:36). {MH 188.1}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마 5:42, 시 37:21). {MH 188.2}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사 16:3, 4). {MH 188.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활계획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의 실물교훈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만일 그 원칙들이 오늘날 실천되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장소로 바뀌어졌을까! {MH 188.4}

광활한 천연계의 영역 안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해 줄 장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 천연의 품 속에는 그들에게 식물을 공급해 주기에 충분한 자원들이 있다. 땅속 깊은 곳에는 천연계의 보화를 캐낼 용기와 의지와 인내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다. {MH 188.5}

토지를 경작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인류에게 정해주신 직업은 수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場)을 열어 준다. {MH 189.1}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MH 189.2}

흙을 상대로 일하고 있어야 할 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들어 적은 돈을 벌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적은 돈은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돈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MH 189.3}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고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게 노력하기 보다는 술책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일하지 않고 생활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욕망은 거의 걷잡을 수 없는 불행과 부도덕과 범죄에 대하여 문을 연다. {MH 189.4}

도시의 빈민가

대도시들에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못한 보호와 동정을 받는 무리들이 있다. 형편 없는 셋집에 함께 몰려 사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 그런 거처들의 대부분은 습기와 더러운 오물로 악취가 나는 어두운 지하실이다. 이처럼 참혹한 장소에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정을 순화시켜 주기 위하여 창조하신 천연계의 사물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전혀 보지 못한다. 누더기를 걸치고 거의 굶주린 채로 그들은 부도덕과 타락 속에서 살아가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불행과 죄에 의하여 품성을 꼴짓는다. 어린 아이들은 다만 불경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뿐이다. 더러운 말과 저주와 욕설이 그들의 귀를 채우고 있다. 술과 담배냄새, 메스꺼운 악취, 도덕적 타락 등은 그들의 지각을 왜곡시킨다. 그리하여 수 많은 사람들은

범법자, 곧 자기들을 불행과 타락 속에 방치해 둔 사회에 대한 원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MH 189.5}

도시의 빈민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그와 같은 계급에 속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질병과 불행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동료들을 약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정직한 계략때문에 가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 정직하고 품성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의 부족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 무지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난관과 싸우기에 부적합하다. 그들은 도시로 밀려 와서 흔히 직업을 발견할 수 없다. 부도덕의 광경과 소리에 둘러싸여 그들은 무서운 시험에 굴복당한다.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무리를 짓고 때로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면, 다만 초인간적 노력, 곧 유한한 인간의 힘 이상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들은 그 동일한 깊이까지 빠져들어가는 일에서 보호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실성을 굳게 지켜 죄를 짓기 보다는 차라리 고난받는 길을 택한다. 특별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도움과 동정과 격려가 필요하다. {MH 190.1}

오늘날 도시들에 몰려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생활하였을 것같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오늘날 그들이 잃고 있는 건강과 행복도 찾았을 것이다. 고된 일, 적은 임금, 어려운 경제 사정, 잦은 역경과 궁핍 등이 그들의 운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유혹, 환란과 범죄, 불행과 불결 등이 있는 도시를 떠나 시골의 정적과 평안과 순결을 찾아간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가. {MH 190.2}

발 하나 들여 놓을 작은 잔디밭 하나 없고 몇 해가 지나도록 불결한 마당과 좁은 골목, 벽돌담과 포장된 도로, 먼지와 연기로 덮인 하늘을 보면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푸른 들, 수목과 언덕과 개울, 맑은 하늘과 신선하고 깨끗한 시골 공기 등으로 환경이 이루어진 어떤 농촌 지역으로 옮겨 간다면, 그곳이 거의 천국과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MH 192.1}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람들을 의존하는 일에서 거의 떠나고 세상의 부패한 처세술과 관습과 흥분에서 격리되어 천연계의 중심부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더욱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천연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영혼과, 몸이 치유해 주고 생명을 주는 능력에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MH 192.2}

만일 매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자급자족하게 되려면 그들은 도움과 격려와 교훈을 받아야 한다. 가난한 가정들이 많다. 그들을 시골에 정착하게 해 주고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그들을 도와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교사업이 될 것이다. {MH 192.3}

그와 같은 도움과 교훈의 필요성은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보다 훌륭한 생활을 할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는 시골에서까지도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매우 궁핍한 중에 있다. 모든 지역사회는 근면과 위생면에서 교육이 결핍되어 있다. 사람들은 빈약한 가구와 의복으로, 연장도 없고, 책도 없고, 생활의 이기(利器)와 편리한 시설과 문화적 시설도 없는 오두막에서 산다. 더럽혀진 정신과 연약하고 병든 몸은 악한 유전과 그릇된 습관의 결과가 어떠함을 나타내 준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기초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쓸모없고 게으르고 타락한 생활을 해 왔으므로 올바른 습관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MH 192.4}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개선의 필요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욱 고상한 생애에 대한 이상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일어나도록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인가?빈곤이 편만하고 발걸음마다 싸워야 할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그 사업은 어렵다. 남녀들이 자기들의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필요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다 같이 동정과 원조의 띠로 밀접히 결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재물과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선물들을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MH 193.1}

그리스도인 농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거처를 마련하도록 도와 주고, 그들에게 토지를 경작하며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참된 선교사업을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농기구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경작하고 과수원을 만들어 돌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라. {MH 193.2}

토지를 경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태만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확을 얻는 일에 실패한다. 그들의 과수원은 올바르게 관리되어 있지 않고, 곡식들은 적당한 때에 심겨지지 않고 있으며, 토지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다만 피상적인 일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땅이 불모하다는데 돌려 버린다. 적당하게 일을 하였을 것 같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땅을 정죄함으로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 빈약한 계획, 적은 노력, 최선의 방법에 대한 적은 연구 등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MH 193.3}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진보적 견해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치 않으면 조용히 가르쳐 주라. 그대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 사람들에게 한 마디씩 이야기해 주라. 그리하여 수확에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입증해 주게 하라. 적당하게 일을 하면 땅이 어떤 일을 해 준다는 것을 실증해 주라. {MH 193.4}

여러 가지 산업체들을 세워 가난한 가족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수, 대장장이, 또한 참으로 어떤 유용한 노동의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식하고 직업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 줄 책임을 느껴야 한다. {MH 194.1}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도 넓은 봉사의 분야가 있다. 유능한 요리사, 주부, 여자 재봉사, 보모,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난한 가족들에게 요리하는 법, 의복을 만들고 수선하는 법, 병자를 간호하는 법, 가정을 적당하게 관리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소년 소녀들에게 어떤 유용한 일과 직업을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MH 194.2}

선교사업을 하는 가족

선교사업을 하는 가족들은 미개척지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 농부, 금융업자, 건축가, 그 밖의 여러 분야의 기술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등한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땅을 개간하고, 산업체들을 세우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평범한 집들을 마련하고, 그들의 이웃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MH 194.3}

하나님께서는 가장 볼품없는 것들 사이에 아름다운 것들을 두심으로써 천연계의 거칠은 장소들, 곧 경작하지 않은 장소들을 매력 있게 만드셨다. 그것이 우리가 착수하도록 부름받은 사업이다. 이 땅의 버려진 곳들, 외관상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까지도 하나님의 동산같이 될 수 있다. {MH 194.4}

"그 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29장 18, 19절) {MH 194.5}

실제적 분야를 가르쳐 줌으로 우리는 때때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근면과 인내와 절약과 자제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어떻게 의무를 감당할지 모른다. 만일 주의 깊고 경제적으로 이용했을 것같으면 가족들을 안락하고 손색없이 부양해 주었을 것들이 이따금 주의력과 올바른 판단의 부족으로 없어진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므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잠 13:23). {MH 194.6}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어 그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렇게 주는 일은 이기심과 무능력을 조장한다. 때때로 그 일은 게으름과 낭비와 부절제로 기울어지게 한다. 자신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권리가 없다. "세상이 나를 먹여 살려 줄 의무가 있다"는 말은 그 속에 거짓과 사기와 절도의 요소가 들어있다. 세상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먹여 살려 줄 의무가 없다. {MH 195.1}

진정한 자선사업은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문전에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주린 채 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그의 가난은 재난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구제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복리에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도와 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생각과 시간과 개인적 노력을 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구제이다. {MH 195.2}

벌어서 얻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더욱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립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줄 길을 습득하고 있다.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라. 성경상 종교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결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라.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근면을 권장하신다. 그분께서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섰느뇨"라고 말씀하셨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마 20:7, 요 9:4). {MH 195.3}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그들의 가정생활과 그들의 습관과 행동과 질서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 주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본을 보여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애의 모든면에 있어서 올바른 본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특성이 외부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신다. {MH 196.1}

우리의 가정과 환경은 실물교훈이 되어 개선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근면과 청결과 취미와 세련이 나태와 불결과 조잡과 무질서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애와 모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성과 환경에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그리스도인 예절로써 개선을 권장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들의 정력을 최선껏 활용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MH 196.2}

희망과 용기

우리는 용기와 인내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과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도와 줌으로써 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실제적 증거를 보여 주라. 많은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많은 일에 여전히 실수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실수를 지적당할 때 고통스럽다는 것과, 그들 앞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적당한 모본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친절이 비난보다 더욱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할 때, 그들이 최고의 표준에 도달되기를 바란다는 것과 그대가 그들을 도와 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라. 혹시 그들이 어떤 일에 실패할지라도 그들을 빨리 정죄하지 말라. {MH 196.3}

단순, 극기, 검약 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워야 할 매우 요긴한 교훈들이지마는 때로는 그들에게 어렵고 달갑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의 모본과 정신은 자만, 과시, 방종, 타락, 나태 등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조장하고 있다. 그런 악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과 불행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MH 196.4}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낮은 계급의 가정에 태어나셨다. 하늘의 대왕, 영광의 왕, 모든 천군 천사의 사령관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빈곤과 굴욕의 생애를 택하셨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 처하셨다. 수고, 역경, 궁핍은 그분께서 매일 당하신 경험의 부분들이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눅 9:58). {MH 197.1}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군대를 지휘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부자들의 환심을 사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국가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 그분께서는 사회의 인위적 차별을 전혀 무시하셨다. 그분은 귀족계급의 사람들, 부자들, 재간 있는 사람들, 학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MH 197.2}

그분께서는 하늘의 왕이셨지마는 당신의 제자들을 학식 있는 법률가, 통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학식과 지위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유전과 미신적 관습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분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어부들을 택하셨다. 그분은 세리들과 죄인들로 더불어 함께 잡수시고 일반 사람들과 섞이셨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과 같이 비천해지고 세속화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른 원칙을 제시하고 그들을 속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였다. {MH 197.3}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의 거짓 표준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이 빈곤에 대하여 찍어놓은 낙인을 제거해 버리시고자 당신의 위치를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두셨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축복하심으로 빈곤으로부터 조소의 비난을 영원히 벗겨 버리셨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눅 9:23). {MH 197.4}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사람들을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만나 그들을 교육시키되, 자만심에서가 아니고 품성 형성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자신을 부인하셨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그분에게서 극기와 희생의 교훈을 배우도록 그들을 도와 주라. 그들이 경성하여 유행을 따라 방종하지 않도록 가르치라. 인생은 자아를 즐겁게 함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고, 엄숙하고, 신성한 책임으로 채워져 있다. {MH 198.1}

가장 좋은 것들

남녀들은 생애의 진정한 목적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빛나고 화려한 것들에 매력을 갖는다. 그들은 세속적으로 탁월한 목적이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 곧 단순, 정직, 진실, 순결, 성실 등은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그것들은 무식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 비천한 노동자나 명예로운 정치가에게 꼭 같이 값없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곧 순결한 사상과 이기심없는 행동을 개발함으로 얻는 기쁨, 동정어린 말을 하거나 친절한 행동을 하는데서 오는 기쁨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와 많은 그늘 때문에 어두워진 생애를 밝혀 준다. {MH 198.2}

세속적 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한편, 그들의 영적 필요를 언제나 명심하라. 그대 자신의 생애로써 구주의 보호의 능력을 증거해 주라. 그대의 품성으로써 모든 사람이 도달해야 할 높은 표준을 보여 주라. 단순한 실물교훈을 통하여 복음을 가르치라. 그대가 해야 할 모든 일이 품성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교훈이 되게 하라. {MH 198.3}

비천한 매일의 업무 속에서, 매우 연약하고 가장 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지탱해 주시는 은혜로 위로받을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염려로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정된 과업을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돌봐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MH 199.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 7). {MH 199.2}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돌봐 주신다. 그분께서는 생애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장 부드럽게 동정해 주시는 일 외에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기를 등한히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 {MH 199.3}

그분께서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경우에 처할 때이다.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온갖 비상사태에서 그대를 도와 주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놀라운 육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주신 분께서는 당신이 주신 생명을 지탱하는 일에 필요한 것은 결코 보류해 두지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는 말씀을 주신 분께서는 당신의 궁핍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인지 알려 주지 않은 채 있지 않으실 것이다. {MH 199.4}

쟁기를 쥐고 소를 모는 사람들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들은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사 28:26, 29). {MH 199.5}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께서는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다.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을 위한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전진할 길을 열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해야 하며, 당신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MH 200.1}

보리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무리를 먹이신 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채워 주신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통하여 당신께서 오늘날도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기를 원하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셔서 통치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도하시며 그들을 불러 수행하게 할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이해력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의무를 양심적이요 지혜롭게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세상을 소유하시는 그분에게는 자원이 풍부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MH 200.2}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관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해서는 안되며, 성공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낙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이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은이나 금보다 더 귀중한 보화를 땅이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변화되고 땅은 옷같이 낡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MH 200.3}

13장 도와 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도 동정과 보호를 요구하는 과부와 고아와 나이 많은 사람과 속수무책인 사람과 병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사람들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의 자비와 사랑과 친절한 보호를 받도록 위탁하신 사람들이다. {MH 201.1}

믿음의 가정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MH 201.2}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교인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의무를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교회 안에 당신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그들을 돌볼 개인적 책임을 맡기신다. {MH 201.3}

한 가정의 가족들이 병자를 돌봐 주고, 약한 자를 도와 주고, 무식한 자를 가르쳐 주고, 경험없는 자를 단련시켜 줌으로 서로 보호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도 가난하고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MH 201.4}

과부와 고아들

과부와 고아들은 주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MH 202.1}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MH 202.2}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MH 202.3}

"네 고아들을 남겨 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 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시 68:5, 사 54:5, 렘 49:11) {MH 202.4}

많은 아버지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라는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을 돌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의 안식에 들어갔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거나 까마귀를 시켜 음식을 가져 오는 이적을 행하심으로써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기심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과부와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사별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귀중한 위탁물로 맡겨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동정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MH 202.5}

생활의 이기(利器)들을 갖추고 있는 집들, 풍성한 수확물로 가득찬 저장소와 곡물창고들, 직조물을 저장해 둔 창고들, 금과 은을 넣어 둔 저장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생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비의 통로가 되도록 요구하신다. {MH 202.6}

아버지 없는 자녀들을 가진 많은 홀어머니들은 이중의 짐을 지고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그와 함께 있는 어린 것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 그에게는 그들을 훈육하고 교훈할 시간이 별로 없으며, 그들의 생애를 밝혀 줄 감화력을 그들에게 미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는 격려와 동정과 실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MH 203.1}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보호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채워 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초연한 입장에 서서 그들의 실수나 그들이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비난하는 대신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 주라. 걱정에 눌려 있는 어머니를 도와 주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의 짐을 가볍게 해 주라.* {MH 203.2}

그런데 부모의 지도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드러운 감화를 완전히 박탈당한 아이들이 수 없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가정을 그처럼 속절없는 아이들을 향하여 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의무로 그들에게 맡겨 주신 사업은 어떤 자선기관(慈善機關)에 넘겨지거나 세상의 자선사업에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남겨져서는 안된다. 만일 그 아이들에게 그들을 돌봐 줄 친척이 없을 경우에는 교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집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들과 반드시 연합하고, 어린이의 성격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가장 잘 계발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MH 203.3}

자신의 아이들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돌봐줌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애완동물에게 관심을 쏟거나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극진한 애정을 바치는 대신에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꼴지어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애정을 바쳐야 한다. 집 없는 인간

가족에게 그대의 사랑을 주라. 그대는 그런 어린 아이들 중 몇 사람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자기 자신이 크게 유익을 보게 될 것이다. {MH 203.4}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역시 가정의 유일한 감화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상실한 것을 거의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 만일 그 집안의 관심사와 직업에 동참하도록 권유를 받게 되면 자기들의 유위성(有爲性)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생각하게 해 줄 것이다. 그들의 도움이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라. 그리하면 그와 같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그들의 생애에 관심을 갖게 해 줄 것이다. {MH 204.1}

희어져 가는 머리칼과 떨리는 발걸음이 무덤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친구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끼리 지내도록 해 주라. 그들이 잘 알고 피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 주라. 그들이 상냥하고 친절한 손길에 의하여 보호를 받도록 해 주라. {MH 204.2}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들 자신의 친척에게 봉사하는 것이 각 가정에 속한 가족들의 특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 일이 교회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특권으로서, 또한 하나의 의무로서 수락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MH 204.3}

그처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자비의 봉사를 통하여 그분과 협력하고 그분의 품성과 동일한 품성의 특성을 계발시킬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교제하면 축복이 된다.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에 햇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 생명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망하고 쾌활한 젊은이들과 교제함으로 유익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타적 봉사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동정과 인내와 자아 희생적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많은 가정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정생활을 즐겁게 해 주고 순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을 거룩한 미(美)로써 꾸며 주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풍성하게 해 줄 그리스도와 같은 미덕을 환기시켜 준다. {MH 204.4}

품성의 시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막 14:7, 약 1:27). {MH 205.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의 보호에 의존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가난한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과 봉사로써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해 준다. 그들을 등한히 하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짓 제자들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보여 준다. {MH 205.2}

여러 가정에서 고아들을 위하여 집을 제공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지라도 돌봐 주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어린이들이 유전적으로 악을 이어받고 있다. 그들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매력적이 못되고, 성미가 비꼬여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앞에는 우리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꼭 마찬가지로 귀중하다. 만일 또 도움의 손길이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무식하게 자라나서 부도덕과 죄악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원의 사업을 통하여 구제받게 될 것이다. {MH 205.3}

그런 기관들이 효력을 가장 "잘" 나타내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 가정 계획에 가깝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많은 수의 어린이들을 함께 수용하는 큰 기관들보다 작은 기관들이 여러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 기관들은 어떤 도시나 대도시에, 혹은 그 가까운 곳에 세우는 대신에 경작할 땅을 얻을 수 있고, 어린이들이 천연계와 접촉할 수 있고, 노동의 훈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골에 세워야 한다. {MH 205.4}

그런 기관을 책임맡은 사람들은 마음이 관대하고, 교양적이며, 자아 희생적인 남녀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분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남녀들이어야 한다. 집 없이 버림받은 많은 어린이들은 그러한 보호하에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들이 되어 스스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준비하게 될 것이다. {MH 206.1}

많은 사람들은 절약을 인색과 편협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멸시한다. 그러나 절약은 가장 관대한 자선사업과 일치한다. 사실상 절약이 없으면 진정한 자선사업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주기 위하여 절약해야 한다. {MH 206.2}

어떤 사람도 극기없이 진정한 자선을 실천할 수 없다. 오직 단순, 극기, 엄격한 절약의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우리에게 지정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이타심의 원칙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 집들의 벽과 그림과 가구들 위에서 우리는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라는 글귀를 읽어야 한다. 우리의 옷장에서 우리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라는 글귀가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글귀처럼 쓰여진 것을 보아야 한다. 식당과 풍성한 음식이 실려 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라고 쓰여 진 것을 보아야 한다(사 58:7). {MH 206.3}

우리 앞에는 유용한 문들이 수 없이 열려 있다. 때때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음으로 탄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고 진지했을 것같으면, 그들은 그 자원들을 천 배로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유용성을 방해하는 것은 이기심과 방종이다. {MH 206.4}

단순한 우상에 불과한 것, 즉 더욱 고상한데 사용되어야 할 생각과 시간과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소비되는가! 얼마나 많은 돈들이 비싼 주택과 가구들, 이기적 쾌락, 사치스럽고 불건전한 음식, 해로운 방종등에 낭비되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선물에 낭비되는가 !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로운 것들을 위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유혹자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몇 배나 더 많이 돈을 쓰고 있다. {MH 207.1}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복에 너무 많은 돈을 써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둔 것이 없다. 그들은 가장 평범한 의복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값비싼 장신구들과 의복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H 207.2}

나의 자매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옷 입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한 원칙과 조화되게 한다면 그대들보다 더 가난한 자매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도 갖게 될 것이다. 때때로 이 일이 가장 필요하다. 그대들의 제안, 그대들의 기지(機智)와 기술로써 도와 주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단순하고 품위 있게 옷 입는 법을 알려 주라. 많은 여자들이 그들의 허름하고 어울리지 않은 의복이 다른 사람들의 의복과 너무나 큰 대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대조 때문에 감정이 예민한 많은 사람들은 심한 굴욕감과 불공평하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본질을 의심하고 복음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한다. {MH 207.3}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기근과 유혈사태와 화재와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안,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이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MH 207.4}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잘못이며, 우리의 사상을 낭비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이기적 욕구에 몰두됨으로 매 순간을 잃어버린다.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올바르게 활용할 것같으면 우리는 자신들과 세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금전을 사용하고 시간과 기회를 활용함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MH 208.1}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MH 208.2}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눅 6:35). {MH 208.3}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 28:27). {MH 208.4}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MH 208.5}

14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부유한 사람이며 귀족 출신이었다. 그는 신임과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이교도로 태어나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마는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고, 그분을 경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냄으로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 주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 였다(행 10:2). {MH 209.1}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 계시된 그대로의 복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그에게 기별을 보내셨고, 또한 다른 기별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그를 방문하여 가르치라고 지시하셨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으므로 랍비들에게 이방인이요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아시고, 당신의 보좌에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종과 연합하여 그 로마의 장교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다. {MH 209.2}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높은 계급의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와 연합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곧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과의 유대 관계가 그들을 굳게 붙들어 매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들어가려면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책임과 사회적 교제 때문에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MH 209.3}

외면당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하여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면당한 부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부유층의 사람들을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속적 영광에 눈이 멀고 현혹되어 영원한 것을 관심에서 상실해 버린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기 위하여 별반 일을 하지 않는다. 부유층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마는 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좋은 금을 "내 소망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한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전 5:10, 욥 31:24, 28, 시 49:7, 8). {MH 210.1}

부(富)와 세상의 영화가 심령을 만족케 할 수 없다. 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룩한 보증, 곧 어떤 영적 소망을 갈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없이 지루한 생애를 종식시켜

줄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반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는 교훈은 심령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MH 210.2}

궁핍과 죄에 희생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한 때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직업과 인생의 다양한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와 심한 음주와 정욕의 방종으로 유혹에 굴복당하였다. 그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동정과 도움을 구하고 있는 동안, 아직 그와 같은 깊이까지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과 동일한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MH 210.3}

신임과 영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에 파멸을 가져 오는 습관에 빠져 가고 있다. 복음사업에 종사하는 성직자들, 정치가들, 저술가들, 부유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 큰 사업을 할 힘과 유용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자제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위험에 빠져 있다. 그들은 편협하고 독단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대한 빛으로 절제의 원칙에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참된 절제 원칙이 그와 같이 제시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이 상류계급에 많다. {MH 211.1}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해로운 방종의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그들의 책임을 깨닫도록 도와 주라. 그들이 오늘날 다만 해가 되는 일에 쓰고 있는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절대 금주에 대한 서약서를 제시하고, 그들이 술과 담배와 방종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을 가난한 환자들의 구제와 세상에서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바치도록 요구하라. 그와 같은 호소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MH 211.2}

부유한 사람들이 특별히 당하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다. 그것 역시 의료선교사가 봉사할 분야이다. 세상에서 부요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일반적 부도덕에는 결코 빠지지 않을지라도 부를 사랑하므로 멸망을 초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에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MH 211.3}

실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본 떨기나무, 곧 불은 붙고 있었으나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에 의하여 묘사된다. 주님의 천사가 그 떨기나무 속에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손실과 고통 중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고 지탱해 준다.

이따금 질병과 역경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드린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번영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MH 212.1}

굴욕의 골짜기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궁핍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의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이른바 높은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들의 높은 지위 때문에 큰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놓여 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같으면 그들은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MH 212.2}

사람이 정직하게 재물을 획득하면 성경은 어떤 사람도 부자가 되는 일을 정죄하지 않는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재물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행동하는 사람의 손에서 이기심 없이 사용될 때, 재물은 그것을 소유할 사람과 세상에 꼭 같이 축복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에 그들의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요구와 동료 인간들의 필요에 무감각해진다.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토지에 토지를 더해간다. 그들은 그들 주위에 온통 불행과 범죄, 질병과 죽음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을 사치한 것으로 채우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생애를 자신의 잇속을 위하여 바치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계발시키지 않고 악한 자의 속성을 계발시키고 있다. {MH 212.3}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은 헛된 물질적 사물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보화의 가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주는 기쁨, 곧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MH 213.1}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다.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전 6:17-19). {MH 213.2}

부유하게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우연한 접촉이나 뜻밖의 만남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때때로 가장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교 정신으로 무장된 남녀들,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사람들에 의하여 개인적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 {MH 213.3}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상류계급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기에 적합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단순히 그들과 피상적으로 사귀기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적 노력과 산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혼의 필요성을 깨우쳐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알려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MH 213.4}

많은 사람들은 상류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려면 생활 방법과 활동 방식이 그들의 까다로운 취미에 맞도록 적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외양, 값진 건물, 비싼 의복과 가구와 환경, 세상 관습과의 조화, 사교계의 인위적 세련미, 전통적 교양, 세련된 언어 등이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세속적 수단에 속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상류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접촉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끈덕지게, 그리고 사심없이 제시하는 것이다. {MH 213.5}

아덴의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이 없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 때부터 바울은 활동의 방법을 바꾸었다. 그는 복잡한 논쟁과 이론적 토론을 피하고, 남녀들에게 죄인들의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MH 214.1}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1-5). {MH 214.2}

다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MH 215.1}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MH 215.2}

상류계급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들의 동료임을 기억하고 참된 위엄을 간직해야 한다. 그들은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으로 충만한 정신과 마음의 보고(寶庫)를 언제나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귀중한 말씀들을 기억의 보고에 넣어 두라. 그것들은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MH 215.3}

그리스도께서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는 낙담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분께서는 돈 버는 일에 생애를 바친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 기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으며, 또한 역사하실 것이다. {MH 215.4}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적, 곧 지금은 분별되지 않는 이적이 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밖에 있지 않다. 만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충실하고 용감하게 그들의 의무를 감당할 것같으면, 그분께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곧 지성과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을 회개시키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원칙을 받아들이게끔 지도될 것이다. {MH 216.1}

그들이 당신의 대표자로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제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은 반응을 나타내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재물과 동정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 관심에서 떠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키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과 재물의 냥쭝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구로 사용되었던 겸손한 전도자와 연합하여 기꺼이 자선사업에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보물을 올바르게 이용함으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하늘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게 될 것이다. {MH 216.2}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계급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 다만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시간과 돈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재능과 감화력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바쳐질 것이다. {MH 216.3}

오직 영원만이 이와 같은 종류의 봉사가 어떤 일을 성취하였는지, 곧 의심으로 병들고 세속적 일과 불안으로 피곤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열망하시는 위대하신 회복자께로 인도되었는지 알려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구주시며 그분에게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 {MH 216.4}

4편 병자의 간호

15장 병실에서

병자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건강 법칙에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어떤 곳에서보다 병실에서 이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다. 그 어떤 곳도 수종드는 사람들이 적은 일에 나타내는 성실이 그처럼 크게 영향을 주는 곳은 없다. 중한 병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특별한 필요성과 위험에 대한 조그마한 태만, 사소한 부주의, 공포와 흥분과 조급한 마음의 표현, 심지어 동정의 부족까지도, 생사가 달려있는 저울에 변화를 주고, 회복받을 뻔했던 환자를 무덤으로 보낼 수도 있다. {MH 219.1}

간호원의 능률은 신체적 활력에 크게 좌우된다. 건강이 양호하면 할수록 그는 환자를 돌보는 고된 일을 더욱 잘 감내하고 의무를 더욱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식생활과 청결과 신선한 공기와 운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구들을 돌봐 주는 것처럼 할 때 그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특별한 부담을 견디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받게 될 것이다. {MH 219.2}

병이 심해져 간호원이 밤낮으로 돌봐야 할 경우에는 그 일을 최소한 두 사람의 유능한 간호원에게 맡겨 줌으로 옥외의 공기 속에서 각각 휴식과 운동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병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풍부하게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일이 특별히 중요하다. 신선한 공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환기를 하지 않으므로 환자와 간호원의 생명이 다 같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다. {MH 220.1}

만일 적절한 예방조치만 한다면 비전염성 질병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옮겨질 필요가 없다. 습관을 바르게 하고, 청결과 적당한 환기로써 해로운 요소들을 병실에서 제거해 버리라. 그와 같은 상태에서 병자들은 훨씬 더 쉽게 회복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간호하는 사람들과 가족들도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될 것이다.* {MH 220.2}

햇빛, 환기, 온도

환자에게 가장 좋은 회복의 조건을 제공하는 길은 그가 들어있는 방이 크고, 밝고, 기분이 상쾌하고, 철저하게 환기를 하는 방이어야 한다. 집에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방이 병실로 사용되어야 한다. 많은 집들은 적당한 환기를 위한 특별한 설비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방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가능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병실을 주선함으로 신선한 공기가 밤낮으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MH 220.3}

할 수 있는 대로 병실에는 온도까지 유지해야 한다. 온도계를 참고해야 한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이따금 잠을 빼앗기거나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밤에 깨어 있어야 함으로 냉기(冷氣)에 빠져 있기 쉬우므로 건강에 적당한 온도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MH 221.1}

식사

간호원의 의무 중 중요한 한 부분은 환자의 식사를 돌봐 주는 일이다. 환자는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지나치게 약해 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과도하게 먹어서 소화기능이 약화되어도 안된다. 음식이 맛이 있게 준비되어 제공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양이나 질이 환자의 필요에 꼭 적합하게끔 현명한 판단력이 활용되어야 한다. 특별히 회복기에 있어서, 식욕이 예민하고 소화 기관이 힘을 회복하기 전에는 식생활의 잘못 때문에 손해를 볼 위험이 많다. {MH 221.2}

간호하는 사람들의 의무

간호원들과 병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쾌활하고, 조용하고. 침착해야 한다. 온갖 종류의 서두르는 일과 흥분과 혼란은 제거되어야 한다. 문들은 주의 깊게 여닫아야 하고, 온 집은 조용해야 한다. 열이 있을 경우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는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명하고 사려 깊은 간호원들로부터 적당한 간호를 받았으면 살았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태만과 무모한 행동 때문에 죽게 되었다. {MH 221.3}

환자의 방문

환자를 너무 자주 방문하는 일은 잘못된 친절이며, 예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병이 심한 사람들은 방문자들이 없어야 한다. 방문자들을 영접하는 일에 따르는 흥분은 환자에게 조용하고 절대적인 휴식이 가장 필요한 때 그를 괴롭게 한다. {MH 222.1}

회복기에 있는 환자나 만성적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는 자기를 친절하게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따금 기쁨과 유익을 얻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보증은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동정의 기별이나 어떤 작은 선물을 보냄으로써 흔히 그 목적을 더 잘 성취하게 되고, 동시에 손해를 입힐 위험도 없게 될 것이다. {MH 222.2}

기관에 소속된 간호원

많은 환자들을 끊임없이 대하는 요양소와 병원에서는 간호원들이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 주의 깊은 생각을 나타내도록 결정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관에서는 간호원들이 그들의 일을 현명하고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다. {MH 222.3}

환자들에게 현명한 말들을 들려 줄 필요가 있다. 간호원들은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도와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간호받고 있는 방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 그러므로 치료해 주는 사람의 영혼을 두르고 있는 분위기는 순결하고 우아해야 한다.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그리스도의 원칙을 간직해야 한다. 그들의 생애에서 그분의 덕성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로써 환자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MH 223.1}

그리스도인 간호원은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치료해 주는 동안 육체와 심령을 다 같이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환자들의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성공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나타낸 생각들이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나이 많은 간호원들은 환자들의 주의를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들은 언제나 육적 치료와 영적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MH 223.2}

간호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장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그쳐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는 죄악의 생애를 선택하는 일을 그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칙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 질병과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악행을 그치고 바르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치료하는 힘을 주신다.* {MH 224.1}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과 육체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일을 거스려 끊임없이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온갖 악을 기꺼이 끊어 버릴 것이다. 감사와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해질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이심을 안다.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두 분야의 봉사는 다 같이 긴요하다. 그것들은 똑 같이 병행해야 한다. {MH 224.2}

16장 병자를 위한 기도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 이라고 말한다(눅 18:1).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기운이 쇠약해지고 생명 자체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이다. 때때로 건강한 사람들은 날마다, 해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자비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나 질병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기억에 떠오른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운이 쇠약해 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MH 225.1}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도다."

(시편 103편 13, 14절) {MH 225.2}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시편 107편 17, 18절) {MH 225.3}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9, 20절) {MH 225.4}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던 때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자들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봉사를 하시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비로운 의사시다. 그분에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향유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는 능력이 있다. 오늘날의 그분의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8)는 주님의 약속은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뢰할 만한 약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께서 역사(役事)하시는 통로이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신다.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위대한 치료자를 믿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MH 226.1}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게 하신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벧엘로 바뀔 수 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로 알려 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직접 병실에 오셔서 의사와 간호원들의 마음에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병자의 침상 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생애일 것같으면, 그 환자에게는 자비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 자체가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MH 226.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그분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신다(요 14:14, 12:26).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지마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MH 226.3}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한다(시 66:18).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半信半疑)의 순종을 할 것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MH 227.1}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병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장 엄숙한 행동이므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드려서는 안된다.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 드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위 믿음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참람된 주장에 불과하다. {MH 227.2}

많은 사람들은 방종에 의하여 스스로 질병을 초래한다. 그들은 일치되도록 생활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였다. 때로는 어떤 형태의 부도덕이 마음과 몸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을 부주의하게 범하는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고쳐 주시면 그들은 그들의 불건전한 생활을 계속하고 무제한으로 왜곡된 식욕에 방종할 자유가 있다는 구실을 만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적을 행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죄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MH 227.3}

사람들에게 건전치 못한 생활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 것같으면, 하나님을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악을 그치고 훌륭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환경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은 고쳐져야 한다. 그들은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한다. {MH 227.4}

죄의 고백

건강을 회복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MH 228.1}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약 5:16).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해 주라.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없으며, 당신의 생애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만일 당신의 죄를 후회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의무입니다." 개인적 성격에 속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요일 2:1).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고백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범해진 죄는 모두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야 한다. 동료에게 잘못한 것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바르게 시정되어야 한다. 만일 건강을 얻고자 간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함으로 죄를 범하였거나,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불화의 씨를 뿌리거나 분리와 분화를 일으켰다면, 또는 어떤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피해를 입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MH 228.2}

잘못이 바르게 시정된 후에, 우리는 주님의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조용한 믿음으로 병자의 필요를 주님께 제시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무진장하기 때문에, 병자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쁨을 얻도록 권장을 받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걱정하게 되면 연약해지고 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들이 침체된 마음과 우울한 생각을 버리고 일어서면 그들의 회복의 가망은 더욱 양호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기 때문이다(시 33:18). {MH 229.1}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롬 8:26).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최선의 것이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들어있어야 한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앓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MH 229.2}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들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견디지 못할 것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애가 그들 자신과 세상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아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렬하게 탄원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말해야 한다(눅 22:42).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간구하신 후,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첨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합당한 것이었다면, 유한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들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흘러나와야겠는가! {MH 230.1}

우리의 욕망을 시종여일 완전히 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온전한 확신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신뢰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순종하는 정신이 없이 우리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기도는 명령의 형식이 아닌 중재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MH 230.2}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계 14:13)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만일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받지 못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H 230.3}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즉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은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에 양보해 달라고 그분께 요구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분의 목적에 흡수되어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욕망과 흥미는 그분의 뜻 가운데 잃어버린바 되어야 한다. 믿음을 시험하는 이같은 경험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놓여 진실하고 성실한지, 혹은 환경에 좌우되어 불안하고 변하기 쉬운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믿음은 실천을 통하여 강화된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귀중한 약속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MH 231.1}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치료의 자비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즉시, 그리고 그들의 소원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믿음에 결함이 있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병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권면을 받고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친구들에 대한 의문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MH 231.2}

때때로 여기에 잘못을 범할 위험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믿고 기도의 부족을 나타내는 듯한 일은 무엇이나 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죽음으로 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되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자기들이 소원하는 대로 질서

있게 처리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헤어지는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 권면이나 격려의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MH 231.3}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 주시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회복시키는 자연의 역사를 도와 주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들 스스로를 회복되기에 가장 유리한 상태에 두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 그 지식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유리한 모든 점을 취하고, 천연계의 법칙과 조화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우리가 병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더욱 많이 기울여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특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에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 {MH 232.4}

우리는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한다는 것을 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기별을 전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이 15년 간 연장될 것이라는 기별을 보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면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는 지시가 주어졌다(사 38:21). {MH 232.1}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 9:7). 치료는 오직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간단한 자연의 기구를 이용하셨다. 비록 그분께서 약물치료에 대한 장려는 하지 않으셨지마는 단순하고 자연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셨다. {MH 233.1}

우리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사별(死別)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쓴 잔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잔을 우리 입술에 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창조주께 새로운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열 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한 무분별한 아홉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MH 233.2}

17장 치료법의 활용

병은 원인없이 결코 생기지 않는다. 건강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길이 마련되고 질병이 들어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부모들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은 없을지라도 건강의 법칙을 범하는 여부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부모들의 그릇된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생활을 통하여 그들 자신을 보다 좋은 조건 아래 놓아야 한다. {MH 234.1}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의하여 건강의 원칙을 무시한다. 그들이 자연법칙을 어기면,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결과가 나온다. 그리하여 질병이 그들을 엄습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의 참 원인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연법칙을 무시함으로 초래되는 고통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MH 234.2}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양(量)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 가지 생명의 기능을 지탱하기에 적합한 기관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 기관들이 모두 함께 조화롭게 활동하게 하신다. 우리가 생명력을 주의 깊게 보존하고 육체의 미묘한 작용을 질서 있게 보호하면,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생명력이 너무 빨리 소모되고, 신경 계통이 현재 사용할 힘을 힘의 근원에서 빌려오게 되며, 그리고 한 가지의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자연은 분명한 저항없이 많은 혹사를 견딘다. 그런 다음에 자연은 일어나서 그가 받아온 부당한 취급 때문에 생긴 결과를 제거해 버리고자 결정적 노력을 한다. 그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 때로는 열(熱)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MH 234.3}

합리적 치료법

건강의 남용으로 병이 생기면, 고통당하는 자는 때때로 다른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의 참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지혜롭게 제거하는 일이다. 만일 과로, 과식, 그 밖의 불규칙한 일을 통하여 신체 조직의 조화로운 활동이 균형을 잃었다면, 해로운 약을 사용함으로써 어려움을 없애고자 애쓰지 말라. {MH 235.1}

부절제하게 먹는 일은 때때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자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과해진 부당한 부담을 제거해 주는 일이다. 많은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환자를 한두 끼 굶김으로 과로해 온 위장에 쉴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다. 2, 3일 간 과일로 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큰 도움을 가져다 준다. 여러 차례 짧은 기간에

걸쳐 완전한 금식을 한 후에 간단하고 알맞은 식사를 하면 자연 자체가 가진 회복력을 통하여 얻게 된다. 한두 달 동안 절제 있는 식생활을 해 보면 자제의 길이 건강의 길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MH 235.2}

치료법으로서의 휴식

어떤 사람들은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식, 걱정에서의 해방, 식생활의 절제 등이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다. 끊임없는 수고와 유폐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신경과민이 된 사람들은 단순하게,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골을 찾아가서 천연계의 사물과 밀접히 교제하므로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들판과 숲속을 배회하면서 꽃들을 꺾고,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회복에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다. {MH 236.1}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된다.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일은 혈액 순환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런 방법 중 하나이다. 찬물 혹은 서늘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强壯劑)이다. 온수욕은 털구멍을 열어 주므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크다. 온수욕과 미온수욕은 다 같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고 순환 작용을 고르게 해 준다. {MH 237.1}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물을 적당하게 사용함으로 얻는 유익한 효과를 경험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수치료법(水治療法)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 진가를 인정해야 할 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치료법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일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을 제거하고 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모든 사람은 간단한 가정 치료법에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건강할 때나 병든 때를 물론하고 가족들을 간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MH 237.2}

활동은 우리의 생존 법칙이다. 신체의 모든 기관은 제각기 맡은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의 수행에 따라 각 기관의 발달과 힘이 좌우된다.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힘과 활력이 생기지마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와 죽음으로 기울어진다. 한 쪽 팔을 몇주일 동안만이라도 묶어 두었다가 붕대를 풀어 보라. 그러면 그대는 그 팔이 같은 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팔보다 약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활동은 모든 근육조직에 꼭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MH 237.3}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 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자유롭게 순환하지 않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피부 역시 무활동 상태가 된다. 만일 활발한 운동으로 순환 작용이 촉진되어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폐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흡수하게 되었을 것같으면 제거되었을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의 상태는 배설기관에 이중(二重)의 부담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이 생기게 된다. {MH 238.1}

환자들이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장려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면에서 심히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때 얼마 동안 완전히 휴식을 취하면 때때로 심한 병에서 놓이게 된다. 그러나 만성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별로 필요치 않다. {MH 238.2}

정신적 과로 때문에 쇠약해진 사람들은 걱정스런 생각을 떠나 쉬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력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끔 지도되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가 사실보다 더욱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회복에 불리함으로 권장되어서는 안된다. {MH 238.3}

목사, 교사, 학생, 그 밖의 정신 노동자들은 육체적 운동으로 제거되지 않는 심한 정신적 부담으로 초래된 질병 때문에 때때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많은 활동적인 생애이다. 적당한 운동과 함께 병행되는 엄격한 절제의 습관은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확보해 주고, 모든 정신 노동자들에게 인내력을 줄 것이다. {MH 238.4}

육체적 힘에 지쳐 있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완전히 그쳐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동이 가장 큰 유익이 되려면 조직적이요 유쾌한 것이어야 한다. 옥외의 활동이 가장 좋다. 그것은 약화된 기관들을 사용함으로 강하게 되고, 마음이 그 속에 집중되게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손으로 하는 노동이 단순히 힘든 일로 결코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MH 238.5}

환자들이 그들의 시간과 주의력을 집중시킬 것을 전혀 갖지 못할 때, 그들의 생각이 자신들에게로 쏠리게 되어 그들은 병적으로 되고 초조해진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좋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침내 그들 자신이 실제보다 더욱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MH 239.1}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는 잘 지도된 육체적 운동이 효과적인 치료 수단임이 입증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건강의 회복에 필수적이다. 의지가 손으로 하는 활동과 함께 작용할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력을 일깨워 주는 일이다. 의지력이 잠자는 상태가 되면 상상력이 비정상적으로 된다. 그리하면 질병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다. {MH 239.2}

무활동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받게 될 가장 큰 저주이다. 정신과 육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용한 노동을 가볍게 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에 꼭 같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근육을 튼튼하게 해 주고, 순환작용을 촉진시켜 주고, 환자에게 자신이 이 바쁜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줌으로 만족감을 준다. 그가 처음에는 조금 밖에 할 수 없겠지마는 미구에 그의 힘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상당한 양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H 240.1}

운동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 줌으로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 식사후에 즉시로 힘든 연구나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작용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식사 후에 잠간 동안 머리를 똑 바로 들고 어깨를 펴고 산보를 하게 되면 크게 유익하다. {MH 240.2}

운동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과 글을 통하여 강조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운동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아직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조직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과식으로 생명력을 소모시켜 버리기 때문에 마르고 약해진다. 간(肝)이 불순한 피를 깨끗게 하는 활동에 부담을 지게 됨으로 질병이 생긴다. {MH 240.3}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여름이든 겨울이든 매일 옥외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 걷는 것은 근육을 더욱 많이 운동하게 해 줌으로 말이나 차를 타는 것보다 더욱 좋다. 폐 속에 공기가 가득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활발하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걷게 되면 폐가 건전하게 활동할 수 밖에 없다. {MH 240.4}

그와 같은 운동은 많은 경우에 약보다 더욱 건강에 좋다. 때때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거나 어떤 광물질이 나오는 샘을 찾아 가거나 기후를 바꾸기 위하여 다른 지방을 찾아 가라는 조언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만일 그들이 음식에 절제하고 즐겁고 건전한 운동을 할 것같으면, 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MH 240.5}

18장 정신치료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MH 241.1}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악화된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MH 241.2}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잠 17:22). {MH 241.3}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향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향은 투병(鬪病)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MH 241.4}

정신을 지배함

그러나 악에 대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정신치료의 한 형태가 있다. 이른바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약한 자의 개성이 강한 자의 정신에 흡수당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각의 질이 바뀌어져서 건강을 주는 힘이 전달되고 환자들이 질병을 저항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MH 242.1}

그런 치료법은 그것이 가진 참 성격과 경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환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은 거짓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성과 정신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생명과 구원되시는 분에게로 인도해주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자는 능력의 참 근원되신 분에게서 사람들이 분리되도록 지도한다. {MH 242.2}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과 의지를 다른 사람의 지배에 맡겨 그 사람의 손에서 수동적인 기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시켜서는 안된다. 그는 어떤 다른 사람을 치료의 근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소유한 그대로 하나님 자신의 지배를 받아야지 어떤 인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 {MH 242.3}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취급하실 때 개인적 책임의 원칙을 인정하신다. 그분께서는 개인의 자주성을 권장하고 개인적 지도의 필요를 깨우쳐 주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사단은 이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활동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갈 때, 시험하는 자는 그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다. 그는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MH 242.4}

마음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이론은 사단이 자기 자신을 주역(主役)으로 소개하고, 마땅히 신본주의의 철학이 있어야 할 곳에 인본주의의 철학을 강요하기 위하여 창안해 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든 오류 중에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기만이나,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비록 그것이 아무 해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일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그것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고, 파멸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마음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굴복당한 마음과 지배하는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 준다. {MH 243.1}

이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남녀들에게 주어진 힘은 참으로 무섭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든 마음의 지배를 통하여 더러운 정욕과 이득에 대한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발견할 것인가! {MH 243.2}

우리에게는 인간성이 인간성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의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는 환자들에게 심령과 육체의 치료를 위하여 인간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그분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마음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시다.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신다(요 14:19). 이것이 우리가 환자들에게 제시해주어야 할 생명이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과 협력하고, 건강법칙을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중에 완전한 성결을 얻고자 노력할 것같으면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해 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귀중한 능력과 힘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와 심령을 치료하는 진정한 과학이다. {MH 243.3}

동 정

마음에서 생긴 병을 다룰 때는 큰 지혜가 필요하다. 비탄에 잠긴 병든 마음, 낙망 중에 있는 마음은 부드러운 치료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혹종의 가정 문제는 구강 궤양처럼 바로 심령을 잠식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때때로 죄에 대한 자책감이 체질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류의 환자들은 부드러운 동정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의사는 제일 먼저 환자의 신임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위대한 치료자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그분께서 그들의 사정을 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심령의 해방과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준다.* {MH 244.1}

동정과 기지(機智)는 냉랭하고 무관심한 방법으로 하는 가장 기술적인 치료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환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때때로 입증될 것이다. 의사가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병실을 방문하여 별반 관심없이 앓는 사람을 쳐다보고, 크게 주의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듯한 인상을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남겨 놓은 후 환자 자신이 마음대로 생각하게끔 버려 둔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 환자에게 해를 준 것이다. 그의 무관심으로 생긴 의심과 낙망은 때때로 그가 처방해 주는 좋은 치료의 효과를 무효로 만들 것이다. {MH 244.2}

만일 의사들이 고통으로 마음이 겸허해지고 의지력이 약화된 사람, 그리고 동정과 보증의 말을 듣고자 갈망하는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의 감정을 더욱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환자들을 위하여 보여 주신 사랑과 동정이 의사의 지식과 합해 지면, 그 의사가 나타나기만 해도 축복이 될 것이다. {MH 245.1}

환자를 다룰 때 취하는 솔직한 태도는 환자의 신뢰심을 일으켜 주므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고통을 주고 있는 병의 성격과 원인을 환자에게 숨기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말함으로 환자를 흥분시키고 낙담시킬 것을 두려워하여 회복에 대한 거짓 희망을 가지게 하고,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받지 않은 채 환자가 무덤으로 내려가도록 허용하기까지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처사는 현명하지 못하다. 환자에게 그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남김없이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반드시 안전하거나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그를 놀라게 하여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방해가 되게 할 수도 있다. 병이 주로 상상적인데 기인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실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성(理性)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약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는 습관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은 특별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사실이 아닌 많은 것들을 상상한다. 그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인 것으로 인정됨으로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친절과 불굴의 인내와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런 환자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 준다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6:12). 그러나 모든 경우에 사실을 다 말하지 못할지라도 속이는 것이 결코 필요하거나 정당하지는 않다. 의사나 간호원은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면 안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는 곳에 두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환자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인간의 도움 중 하나를 포기해 버리고 있다. {MH 245.2}

의지력은 마땅히 귀중히 여겨져야 하리만큼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의지가 각성되고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전신에 힘을 나누어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놀라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질병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힘이 된다.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의지력을 활용함으로써 환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하여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때,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한 의사의 노력에 보다 잘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때때로 환자들은 단순히 병에 굴복당하지 않는 상태로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병을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은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활동하고 공기와 햇빛을 마음껏 이용함으로 많은 쇠약한 병자들이 건강과 힘을 회복할 수 있다. {MH 246.1}

치료에 대한 성경의 원칙

건강을 회복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에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자극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흥분과 망각, 저급한 식욕과 정욕의 방종 등을 통하여는 참된 치료와 육체나 심령의 회복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자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장차 얻을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다.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 환자들에게 천박하고 흥분적인 방종을 허용함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생애에 저주가 되어 왔다.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는 동안 주림과 갈증은 계속 될 것이다. 이기적 쾌락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유쾌한 기분을 힘으로 오해한다. 그리하여 흥분이 끝나면 고무되었던 그들의 마음도 사라지고 그들은 불만과 낙담에 사로잡히게 된다. {MH 246.2}

한결같은 평안,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바로 그 근원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이 평안은 그분께서 당신 자신과 상관없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 평안를 받을 수 있다. {MH 247.1}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어떻게 온 몸을 맡길 것인지 끈기 있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MH 247.2}

우리는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에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배나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이 역경이나 실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이 파멸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당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로, 그들이 분명히 궁핍해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처럼 그들은 불행을 자신들에게 자초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을 던진다. 생애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짐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생각의 경향을 바꾸는데는 단호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꾸는 일은 가능하다. 이생과 내생을 위한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마음을 즐거운 것에 고정시키는데 달려있다. 그들로 하여금 상상에 불과한 어두운 장면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뿌려 놓은 은혜를 보게 하고, 또한 그것들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라. {MH 247.3}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에 대비하여 도움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 물가에 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의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다.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슬픔을 제거해 줄 모든 축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것이다. 우리의 입술에 닿아 있는 모든 쓴 잔을 위하여 우리는 치료의 나무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MH 248.1}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사 27:5).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 주시지 않는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은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相談者)가 있다. 우리의 슬픔과 사별(死別)의 고통과 외로움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깊은 친구가 있다. {MH 248.2}

우리가 무지함으로 실족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홀로 있다고 결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천사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 슬픔이 없고, 비애가 없고, 인간적 약점이 없다. {MH 249.1}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어"라고 말함으로써 가혹하게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MH 249.2}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동정하실지 아신다. 그리스도는 각 영혼들과, 그 영혼들의 특수한 필요와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동정어린 친절로써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을 뻗고 계신다.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동정과 긍휼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 속에 동정을 느끼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난처한 문제들을 가져 와서 당신의 발 앞에 놓기를 바라신다. {MH 249.3}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 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 버릴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MH 249.4}

유혹이 그대를 엄습하고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이 그대의 심령을 둘러싸는 것처럼 보일 때, 그대는 그대가 마지막으로 빛을 본 그 곳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돌봐 주시는 보호 아래 안식을 얻어라.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자 싸울 때, 죄책감이 심령을 억압하고

양심을 억누를 때, 불신이 마음을 가리울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고 어두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구주와 교통함으로 우리는 화평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MH 250.1}

치료의 약속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22절) {MH 250.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 14장 26절) {MH 250.3}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4-16절) {MH 250.4}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MH 251.1}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 4절) {MH 251.2}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런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MH 251.3}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애상적(哀傷的)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은 잎들을 찾는 사람, 웅장한 산 봉우리와 녹음(綠陰)이 덮여 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천연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광명, 곧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는 의(義)의 태양을 소유할 수 있지마는 우울한 것과 어두운 것만을 스스로 모으고 있다. {MH 251.4}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런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MH 251.5}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법칙이다. {MH 251.6}

말이 사상을 표현할 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 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 {MH 252.1}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길들여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길들여서 소망을 갖게 하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들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MH 253.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 우리는 난관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호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자.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밤 동안 그대를 보호해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침과 낮과 밤에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MH 253.2}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믿음의 부족과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유혹자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그대가 우울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대는 그 유혹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극복하려면 사단의 큰 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때때로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천천 만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들은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 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준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감사하되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 {MH 253.3}

찬양하라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써 표현하자.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의 감정을 말로써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MH 254.1}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천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 주시리니

후렴: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찬미 찬미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당하셨네

구주 예수 우리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지시고 한량없는 깊으신 참 사랑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노래 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MH 254.2}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구주의 임재의 햇빛을 받고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건강과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MH 254.3}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MH 254.4}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을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MH 255.1}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MH 255.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MH 255.3}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MH 255.4}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MH 255.5}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MH 255.6}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MH 255.7}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 107:1, 2, 105:2, 3, 107:9-15, 42:11) {MH 255.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MH 255.9}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MH 255.10}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MH 255.11}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MH 255.12}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MH 256.1}

나를 귀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MH 256.2}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MH 256.3}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MH 256.4}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 27:1, 5, 6, 40:1-3, 28:7) {MH 256.5}

환자들의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 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다. 많은 환자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로부터 주의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 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 동정을 기울이고 자기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H 256.6}

때때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암에 싸여 있는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고 슬픔에 잠겨 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 드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내어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한편, 그들에게 자기들보다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그 위로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MH 256.7}

이사야 58장은 육체와 심령의 질병을 고쳐 주는 처방이다. 만일 우리가 건강과 생애의 진정한 기쁨을 원하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법칙을 실천해야 한다. 주님께 가납될 봉사와 그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MH 256.8}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MH 257.1}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을 것이라."

(사 58:7-11) {MH 257.2}

선행(善行)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줌으로 이중(二重)의 축복이 된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가장 좋은 약 중 하나이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고무적인 힘이 온 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MH 257.3}

환자들은 끊임없이 동정을 요구하는 대신에 동정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대 자신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의 짐을 자비로운 구주께 갖다 맡겨라. 구주의 사랑을 향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저항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대가 그 짐들을 덜어 주기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보고(寶庫)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되면 그대의 주위에서는 유익하고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 것이다. 그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그대의 목표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대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똑 같이 도움이 될 길을 발견할 것이다. {MH 257.4}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은 나머지 자아(自我)를 잊어버릴 것같으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같으면, 그들은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MH 258.1}

마라와 엘림

오늘은 엘림, 종려수(棕櫚樹)와 우물이 있는 곳,

사막 길에 지친 몸에 휴식을 주는 서늘한 그늘이 깔려 있다.

어제는 마라, 바위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곳,

그늘 한 점없이 메마르고 황량(荒凉)한 골짜기

그러나 그 둘은 같은 사막 안에 있으며,

열풍(熱風)은 쓸쓸한 이곳으로 불어닥치며,

골짜기의 얕은 언덕들은 그것들을 똑 같이 안고 있다.

변함없는 산들은 그것들을 똑 같이 둘러싸고 있다. {MH 258.2}

이 세상도 그와 같은 곳.

지나간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온 것을 나는 기억한다.

쓴 것과 단 것, 슬픔과 기쁨, 그것들은 서로 이웃해 있을 뿐,

그나마도 그것들은 다만 하룻 길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MH 258.3}

때때로 하나님은 쓴 맛을 단 맛으로 바꾸어 주시고,

때때로 그분은 서늘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때때로 주님은 구름기둥으로 가리워 주시고,

때때로 축복의 종려나무 아래로 이끌어 주신다. {MH 258.4}

그러나 그것이 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오래지 않아

마라도 엘림도 다 지나가고,

이곳 사막의 샘물과 종려수도 없어지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안착할 것이다.

아, 행복의 땅, 쓸쓸한 언덕 저편,

그곳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오, 거룩한 낙원, 하늘 저편.

그곳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사막의 여행을 끝낼 것이다.

— 호라티어스 보나 — {MH 259.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MH 259.2}

후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MH 259.3}

온전히 주께 몸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MH 259.4}

온전히 주께 몸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 패니 제이. 크로스비 — {MH 259.5}

19장 천연계와의 교제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들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택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왕궁에 두거나 오늘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투쟁하고 있는 인공적 장식과 사치품으로 그들을 둘러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천연계와 밀접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셨다. {MH 261.1}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동산에는 품위 있는 관목들과 고운 꽃들이 어디에나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으며, 그 중 많은 나무들은 향긋하고 맛좋은 과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 나뭇가지들에서는 새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는 땅의 생물들이 아무런 두려움없이 함께 모여서 놀고 있었다. {MH 261.2}

아담과 하와는 흠없는 순결을 간직한 채 에덴동산에서 보고 듣는 것을 즐겼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창 2:15) 하는 일을 하도록 지정해 주셨다. 매일의 일은 그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부부는 그들의 창조주의 방문을 기쁨으로 환영하였으며, 날이 서늘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이야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당신의 교훈을 가르치셨다. {MH 261.3}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조상에게 정해 주신 생활계획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비록 죄가 세상에 그 그늘을 던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업적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생활계획을 더욱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그분께서는 고통하는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 한층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병자들은 천연계와 밀접히 접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천연계 속에서 전개하는 옥외활동은 무기력하고 거의 소망이 없는 많은 환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해 줄 것이다. {MH 261.4}

도시의 소음과 흥분과 혼란, 곧 도시의 긴장되고 인공적인 생활은 병자들을 가장 고달프고 지치게 해 준다. 연기와 먼지, 유독한 가스, 병균 등으로 더러워진 공기는 생명을 위협한다. 거의 사면이 벽으로 된 곳에 들어있는 병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방에서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들은 집들과 포장된 길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뿐 아마도 푸른 하늘과 햇빛, 풀과 나무와 꽃들을 조금이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갇혀 있으므로 그들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자기 자신의 슬픈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MH 262.1}

도덕적 능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시들은 위험이 많다. 그들 중에서, 극복해야 할 비정상적 식욕을 가진 환자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다. 그들은 생각의 경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감화를 받을 환경에 놓여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영향에서 벗어나 얼마 동안 더욱 순결한 분위기로 옮겨가야 한다. {MH 263.1}

환자를 돌보는 기관들이 도시에서 떨어져 세워지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옥외 활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골 환경에 있어야 할 것이다. 천연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사이다. 깨끗한 공기, 산뜻한 햇빛, 꽃과 나무들, 과수원과 포도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옥외활동 등은 건강을 주고 생명을 준다. {MH 263.2}

의사와 간호원들은 그들의 환자들에게 옥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권유해야 한다. 옥외 생활은 많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유일의 치료법이다. 그것은 흥분과 과도하게 유행을 따르는 생활,

곧 육체와 정신과 심령을 약화시키고 파멸시키는 생활에서 생긴 질병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MH 264.1}

도시생활, 눈부신 많은 불빛, 거리의 소음 등에 지친 환자들에게 있어서 조용하고 자유로운 시골은 얼마나 즐거운 곳이 되겠는가! 그들이 천연계의 경치를 찾아 가고자 얼마나 열망하겠는가! 그들이 옥외에 앉아 있기를 얼마나 좋아하며, 햇빛을 얼마나 즐기며, 나무와 꽃들의 향기를 맡아 보기를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소나무의 향기(香氣), 삼목(杉木)과 전나무의 향기에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 밖의 나무들에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요소들이 있다. {MH 264.2}

만성병 환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시골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더 좋은 길이 없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무기력한 사람은 햇빛 속이나 나무 그늘에 앉거나 누울 수 있다. 그들은 눈을 들기만 하면 그들 위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나무 잎들을 쳐다보게 된다. 그들은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되고 상쾌한 기분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의기소침하였던 정신이 생기를 얻는다. 약해지던 힘이 새로 솟아난다.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화로와지고, 불규칙하던 맥박이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뛴다. 병자들은 건강이 차츰 회복됨에 따라, 몇 발걸음을 옮겨 아름다운 꽃 곧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귀중한 사랑의 사자인 꽃 몇 송이를 꺾어 보고자 할 것이다. {MH 264.3}

환자들이 옥외에서 내내 지낼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쉬운 몇 가지 일을 제공해 주라.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옥외활동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유익한지 보여 주라. 그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도록 권유하라. 그들에게 심호흡(深呼吸)을 하도록 가르쳐 주고, 호흡하고 말할 때 복부의 근육을 사용하도록 알려 주라.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귀중한 교육이다. {MH 264.4}

옥외에서 하는 활동은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것으로 권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활동으로서는 땅을 경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환자들이 화단을 가꾸거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에서 일하게 하라. 그들이 방에서 나와 옥외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권유를 받고 꽃을 심거나 그 밖의 어떤 가볍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주위가 그들 자신과 자신들의 고통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MH 265.1}

환자가 옥외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간호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의 환경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는 더욱 더 희망에 넘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시설을 훌륭하게 마련해 놓았을지라도 집에 갇혀 있으면, 그는 짜증스럽고 우울해질 것이다. 그를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로 둘러싸 주라. 그 사람이 자라나는 꽃들을 볼 수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는 새들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동시에 몸과 마음에

해방감이 주어질 것이다. 지성은 일깨워지고, 상상력은 민감해지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식별하게 될 것이다. {MH 265.2}

천연계 속에서 환자들은 그들의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시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무엇인가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분의 놀라운 솜씨에 둘러싸여 그들의 마음은 보이는 사물에서 보이지 않는 사물로 이끌려가게 된다. 천연계의 미는 환자들에게 아름다움을 결코 훼손하는 일이 없고,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것이 전혀 없고, 질병이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 결코 없는 하늘 본향을 생각하게 해 준다.* {MH 265.3}

의사와 간호원들은 천연계의 사물에서 하나님을 알려 주는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그들은 환자들에게 키가 큰 나무와 풀과 꽃들을 만드신 분을 가르쳐 주고, 모든 꽃봉오리와 꽃에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보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새들과 꽃들을 돌봐 주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돌봐 주실 것이다. {MH 266.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이 펼쳐져 있는 옥외에서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죄로 어두워진 마음 속을 비추어 줄 것이다. {MH 266.2}

하나님의 눈 앞에는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엔

큰 책이 있어요

우리의 지은 죄들이

다 적혀 있어요

우리 죄가 많고 커도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셔요.

— 벤자민 클리브랜드 — {MH 267.1}

육체적 영적 치료가 필요한 남녀들은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줄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 그들은 심령과 육체를 함께 치료해 줄 위대한 의료 선교사, 예수님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구주의 사랑, 그분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용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MH 267.2}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 때,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병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일에 인간 기구들과 협력한다. 그런 상태에서 병자들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얻는다. 연약한 발걸음이 활력을 되찾는다. 눈은 다시금 빛나게 된다. 절망적인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다. 한 때 낙심상태였던 얼굴이 기쁨의 표정을 띤다. 불평어린 어조가 기쁨과 만족의 음성으로 바뀌어진다. {MH 267.3}

육체적 건강을 다시 찾을 때, 남녀들은 심령의 건강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죄가 사해 졌다는 생각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준다. 흐려졌던 그리스도인 소망은 밝아진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믿음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시 46:1, 23:4, 사 40:29). {MH 267.4}

못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사오니

내 죄를 속하고

이 몸과

맘 드려

간절히 비는 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찾기 곤하니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소서

— 레이 파아머 — {MH 268.1}

5편 건강원리

20장 일반 위생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 육체적 능력을 보존하고 발달시키기 위하여 가장 큰 자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놀라웁고도 훌륭하게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일을 방지하는 일에 우리의 몫을 다하도록 명령하신다. {MH 271.1}

피의 순환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할수록 이 일은 더욱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MH 271.2}

심장이 고동할 때마다 피는 몸의 각 부분으로 빠르고 쉽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몸에 지나치게 끼는 옷을 입거나 띠를 졸라매거나 극단에 속한 부적당한 옷을 입음으로 피의 순환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피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피를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응혈이 생기게 한다. 두통, 기침, 심장동계(心臟動悸), 소화불량 등은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 {MH 271.3}

호 흡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 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 준다. {MH 272.1}

폐는 가능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폐의 용량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증가된다. 만일 폐가 속박이나 압박을 받으면 폐의 용량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므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 그런 자세로써는 깊은 호흡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얕게 호흡하는 습관이 곧 형성되어 폐가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단단히 졸라매는 일에 의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가슴의 아래 부분에 충분한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되고, 호흡을 도와 주기 위하여 마련된 복부의 근육이 충분히 활동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폐는 그 활동에 장애를 받게 된다. {MH 272.2}

그리하여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진다. 피는 천천히 순환하게 된다. 폐에서 나와 버려져야 할 찌꺼기, 곧 해로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피가 더러워진다. 폐뿐만 아니라 위장과 간과 두뇌도 영향을 받는다. 피부는 누르스름해지고, 소화는 감퇴되고, 심장은 약해지고, 두뇌는 흐려지고, 생각은 혼란해지고, 우울한 생각이 정신에 깃들게 된다. 모든 신체조직이 약해져서 활동력을 잃게 되므로 특히 병에 잘 걸리게 된다. {MH 273.1}

폐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용을 하므로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불결한 공기는 산소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피는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뇌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통풍이 필요하다. 폐쇄되고 통풍이 잘 안되는 방, 곧 공기가 꼭 막혀서 더러워진 방에서 살면 온 몸의 조직이 약화된다. 그것은 특별히 감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해 줌으로 조금만 감기 기운을 받아도 병에 걸리게 된다. 많은 여자들은 이 밀폐된 방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은 창백하고 약해진다. 그들은 같은 공기를 반복해서 호흡하므로 마침내 그 공기는 폐와 기공(氣孔)을 통하여 나오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순물들이 피 속으로 다시 옮겨진다. {MH 274.1}

환기와 일광

공공 건물이나 주택을 막론하고 집을 지을 때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히 일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회와 학교 교실들은 이따금 이런 점이 결여되어 있다. 환기를 적당히 하지 않으면 많은 졸음과 답답한 기분을 가져 오므로 많은 설교의 효과를 크게 말살시키고, 교사의 일을 어렵고 비능률적으로 만든다. {MH 274.2}

사람이 거할 목적으로 짓는 모든 건물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지대가 높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건조한 지대를 갖게 되고 습기와 독기(毒氣)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너무도 흔히 경시된다. 계속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와 위험한 질병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지대가 낮고 건조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기는 습기와 독기에서 초래된다. {MH 274.3}

주택을 건축할 때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집에 있는 모든 방에 공기가 잘 유통되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하라. 침실은 밤낮으로 공기가 충분히 유통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어떤 방이든지 날마다 공기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침실은 춥거나 습한 계절에 충분히 데우거나 건조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MH 274.4}

손님 방도 늘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방과 꼭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그 방에도 공기와 햇빛이 충분히 있어야 하며, 난방시설이 갖추어짐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방 안에 축적되는 습기를 말릴 수 있어야 한다. 햇빛이 없는 방에서 자거나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거나 공기가 없는 방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건강에 위협을 받고, 때로는 생명도 위험하게 된다. {MH 275.1}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식물과 화초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온실이나 창문은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온도와 공기와 햇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 수 없거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조건들이 식물의 생명에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과 손님들의 건강에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MH 275.2}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건강과 행복이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하면 우리는 집들을 저지(低地)에서 생기는 독기와 안개가 없는 장소에 세움으로 하늘의 생명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두꺼운 커어텐을 걷고 창문과 덧문을 열라.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포도 넝쿨이 가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햇빛을 가릴 정도로 나무들을 집 가까이 심지 말라. 햇빛은 휘장과 양탄자를 퇴색되게 하고, 사진들을 변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뺨에 건강미가 넘치는 혈색을 가져다 줄 것이다. {MH 275.3}

연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노인들에게는 따뜻하고 안락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힘이 쇠약해지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향을 저항하는 체력이 사라져가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햇빛과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풍부하게 가져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 {MH 275.4}

철저한 청결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꼭 같이 요긴하다. 불순물들이 피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설된다. 자주 목욕함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피부의 수 많은 기공들은 빨리 막혀 버린다. 그리하여 피부를 통하여 빠져 나가야 할 불순물들이 다른 배설 기관에 여분의 부담을 주게 된다. {MH 276.1}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냉수 혹은 미온수욕을 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목욕을 알맞게 하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고 감기를 방지해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환작용을 촉진시켜 주고, 피가 피부의 표면까지 와서 더욱 쉽고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가 다 같이 활기를 얻는다. 근육은 더욱 유연해지고, 지력은 더욱 명석해진다. 목욕은 신경을 안정시켜 준다. 목욕은 내장과 위장과 간장을 도와 주고, 그 각 기관에 건강과 힘을 제공해 주고 소화를 촉진시켜 준다. {MH 276.2}

또한 의복을 언제나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고 있는 옷은 기공을 통하여 배설되는 노폐물들을 흡수한다. 의복을 자주 바꾸어 입지 않거나 빨지 않으면, 그 불순물들이 다시 몸 속으로 흡수될 것이다. {MH 276.3}

각종 형태의 불결은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손이 잘 가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썩어가는 쓰레기 속에, 습기와 곰팡이가 끼어 있는 곳에 도사리고 있다. 채소 쓰레기나 낙엽더미 등을 주택 가까이 놓아두어서 썩게 하거나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라. 불결한 것이나 썩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집 안에 용납하지 말라. 완전히 건강하다고 인정받은 마을과 도시들에서, 많은 유행성 열병의 원인이 어떤 부주의한 가정이 사는 집 주위의 썩어가는 쓰레기에서 발견되었다. {MH 276.4}

완전한 청결, 충분한 햇빛,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내는 세밀한 위생상 주의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MH 276.5}

21장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훈에는 건강의 보호가 세심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노예생활에서 형성된 불결하고 불건전한 습관을 가지고 그 생활에서 나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건강 원리를 가르쳐 주었고 위생법칙이 강조되었다. {MH 277.1}

질병의 예방

그들의 종교적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이 엄격히 구별되었다. 전염성 질병 혹은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진영에서 격리되었으며, 사람과 의복을 다 같이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진영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MH 277.2}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레 15:4-12). {MH 277.3}

문둥병에 관한 법칙 역시 이 규칙이 철저하게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하나의 예증이다. {MH 278.1}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베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으면 ...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그것은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레 13:46-52). {MH 278.2}

그와 같이 또한 만일 어떤 집이 거주하기에 안전치 못한 조건을 가진 증거가 나타나면, 그 집은 파괴되었다. 제사장은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재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레 14:45-47). {MH 278.3}

정 결

개인적 정결의 필요성이 가장 인상 깊은 방법으로 가르쳐졌다.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율법의 선포를 듣기 전에, 백성들은 그들의 몸과 의복을 씻도록 요구되었다. 그 지시는 위반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조건으로 강요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한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다. {MH 279.1}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보다 불결한 것들이 해로운 영향을 적게 미칠 옥외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지냈다. 그러나 그들의 장막 안과 밖에서는 꼭 같이 청결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장막 안이나 주위에 쓰레기를 놓아두도록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MH 279.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신 23:14). {MH 280.1}

식 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모든 식사 문제에서 구분되었다. {MH 280.2}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레 20:24, 25). {MH 280.3}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먹는 많은 종류의 음식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그것은 독재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진 명령이 아니었다. 금지된 것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선고된 사실은 해로운 음식을 사용하면 더러워진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심령을 더럽히게 된다.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부적당하게 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봉사에 적합하지 못하게 한다. {MH 280.4}

허락의 땅에서는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에서 광야에서 시작했던 훈련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도시에 함께 모여 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가정은 각자 토지를 소유하여 순수하고 올바른 생활에서 오는 건강의 축복을 누렸다. {MH 280.5}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빼앗긴 잔인하고 방탕한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MH 280.6}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레 20:23).*"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신 7:26). {MH 280.7}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교훈을 받았다. {MH 281.1}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 17). {MH 281.2}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잠 17:22).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 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애의 기조(基調)가 되어야 했다. {MH 281.3}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연중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 년에 세 차례씩 여행하였다. 장막절 기간의 일 주일동안 초막에서 지나는 일은 옥외에서의 휴식과 사교생활의 기회가 되었다. 그 절기들은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고, 나그네와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친절한 환영으로 더욱 기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MH 28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신 26:11). {MH 281.5}

그러므로 훗날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주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울게 되었다. 그 때 은혜로운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다. {MH 281.6}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9, 10). {MH 281.7}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공포되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느 8:15-17). {MH 282.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적 건강에도 필수적인 모든 원칙에 관하여 교훈을 주셨다. 그리고 그 원칙의 교훈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도덕적 율법의 교훈에 관한 것과 꼭 같은 것이었다. {MH 283.1}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6-9). {MH 283.2}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신 6:20-24). {MH 283.3}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교훈에 순종하고 그들의 특권으로 유익을 얻었을 것같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있어서 세상의 실물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을 것같으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이 된 질병에서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다른 백성들보다 뛰어난 육체적 힘과 지적 활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MH 283.4}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신 7:14). {MH 283.5}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신 26:18, 19). {MH 284.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 28:2-6). {MH 284.2}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신 28:8-13). {MH 284.3}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MH 285.1}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MH 285.2}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민 6:23, 6:24-27, 신 33:25-29) {MH 285.3}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에게서, 모세와 엘리사에게서,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참된 생애의 계획을 따르므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고상한 모본을 보게 된다. 그처럼 성실하게 생애하면 오늘날에도 꼭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어져 있다. {MH 285.4}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벧전 2:9). {MH 286.1}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MH 286.2}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MH 286.3}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MH 286.4}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은즉 네 잠이 달리로다. {MH 286.5}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렘 17:7, 시 92:12-15)

(잠 3:1, 2, 23-26) {MH 286.6}

22장 의 복

성경은 의복을 검소하게 입으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라"(딤전 2:9). 이 말씀은 옷의 과시, 찬란한 색깔, 사치스런 장식 등을 금하고 있다. 입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고안된 의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아담한 옷에서 제외된다. {MH 287.1}

우리의 의복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곧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딤전 2:9). {MH 287.2}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물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교만이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있는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식물이 되고, 벗은 자들을 입힐 의복이 된다. 그것은 억압당하는 자들을 지켜 주는 방비가 되고,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 그대가 오늘날 과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돈은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해 보라.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극기에 참예하는 자가 되라. {MH 287.3}

그리스도교계라고 공언하는 곳에서 모든 주린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는데 쓰여져야 할 물질이 보석과 쓸데없이 비싼 의복을 사는데 아낌없이 허비되고 있다. 유행과 과시가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재물을 흡수해 버린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구주의 사랑의 복음을 빼앗는다. 사명은 사라진다. 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의 부족으로 멸망해 간다. 우리의 이웃과 먼 외국 땅에서 이교도들은 배우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선물을 땅에 쌓아 두시고 생애의 이기(利器)로써 그 창고를 채워 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그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와 고아들,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는데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변명하겠는가? 그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을 대면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종에 시간과 돈을 허비한 자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마 25:42, 43). {MH 287.4}

그러나 우리의 의복은 검소하고 단순하면서도 질이 좋고, 색깔이 조화롭고, 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의복은 과시보다는 내구성(耐久性)을 위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그것은 따뜻하게 해 주고

적당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잠언에 묘사된 현숙한 여인은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잠 31:21). {MH 288.1}

우리의 의복은 깨끗해야 한다. 의복이 불결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더럽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 17). {MH 288.2}

모든 면에서 의복은 위생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 곧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그분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둘은 다 같이 건전한 의복에 의하여 촉진된다. {MH 288.3}

의복은 우아하고, 아름답고, 단순한 자연미에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생애의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지마는, 우아한 것과, 자연미에 대하여는 경고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들에 핀 꽃들, 꽃망울을 터뜨린 순결한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6:29).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천연계의 사물들을 통하여 우아하고 단순한 것과 순결하고 조화로운 것이 하늘에서 귀하게 평가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우리의 의복이 그렇게 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신다. {MH 289.1}

그분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의복을 우리의 마음에 입히라고 명령하신다. 외모를 아무리 꾸밀지라도 그분께서 보시기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벧전 3:4)과 비교할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결코 없다. {MH 289.2}

구주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귀중하다. {MH 289.3}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28-33). {MH 289.4}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 26:3). {MH 289.5}

이것은 유행의 습관으로 초래되는 피로와 불안과 질병과 불행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성경에 기록된 원칙은 유행을 따르는 여러 가지 의복의 모양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지나간 몇 백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에 유행한 스타일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들 중 몇 가지가 유행이 아닌 때에 온당치 못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몇 가지가 고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중심(自重心) 있는 여자에게 적합치 않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MH 290.1}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유행을 위하여 의복의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스타일을 바꾸고 값진 장신구를 공들여 만드는 일은 부자들의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고, 정신과 심령의 정력을 낭비케 한다. 그런 일은 중류 계급의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준다. 생계를 겨우 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의복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양장점을 찾아 갈 수 밖에 없다. 많은 가난한 소녀들이 맵시 있는 옷차림을 위하여 따뜻한 내복을 입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또한 부(富)를 과시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수치스러운 길로 빠져 들어가도록 유혹을 받았다. 아내와 자녀들의 허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많은 가정은 생활의 이기(利器)들을 박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횡령죄를 범하거나 파산의 지경에 빠진다.* {MH 290.2}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유행이 요구하는 맵시 있는 의복을 마련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많은 여자들은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질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많은 어머니들이 신경이 쇠약한 떨리는 손으로 건강과 안락과 진정한 미와는 전혀 상관 없는 자녀들의 의복을 장식해 주기 위하여 밤이 늦도록 수고한다. 그는 유행을 위하여 자녀들의 올바른 지도에 매우 요긴한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희생한다. 정신과 마음의 계발은 등한시되고, 영혼은 위축된다. {MH 290.3}

어머니는 자녀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알아야 할 신체의 발달 원리를 연구할 시간이 없다. 그는 자녀들의 지적 혹은 영적 필요를 채워 줄 시간이 없고, 그들의 작은 실망과 시험을 동정해 주거나 그들의 관심과 취미에 동참할 시간이 없다. {MH 291.1}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거의 동시에 유행의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구주에 대한 것보다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그들은 어머니들이 유행하는 의복을 성경보다 더 열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의복의 과시가 품성의 계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와 자녀들은 생애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진실한 것을 빼앗긴다. 그들은 유행 때문에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기만당한다. {MH 291.2}

언제나 변화하는 유행을 고안하도록 충동한 자는 모든 선(善)의 원수였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행과 멸망을 초래케 하므로 하나님께 슬픔과 불명예를 돌리는 것이다. 그가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신을 약화시키고 심령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유행을 고안해 내는 일이다. {MH 291.3}

여자들은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들의 고통은 옷 입는 방법에 의하여 크게 증가된다. 그들은 분명히 다가올 어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는 대신에, 그들의 그릇된 습관으로 너무도 흔히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희생시킨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멸된 체질과 왜곡된 습관과 거짓된 인생관을 통하여 불행의 유산(遺産)을 자녀들에게 남겨 준다. {MH 291.4}

비경제적이며 해로운 유행에서 나온 고안 중 하나는 땅을 휩쓰는 치마이다. 불결하고, 귀찮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것, 또한 그 이상으로 해로운 것은 정말로 질질 끌리는 치마이다.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여분의 재료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때문에 필요없는 천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엄청나게 낭비적이다. 질질 끌리는 치마를 입은 여자가 물건 꾸러미들을 손에 들고 계단들을 오르내리고, 전차를 타고, 군중 속을 헤치고 걸어가고, 비가 오는 거리와 진흙투성이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 치마의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점에 대하여 더 이상의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MH 291.5}

또 하나의 심각한 결함은 그런 치마를 입을 때 그 무게가 엉덩이에 의하여 지탱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무거운 무게는 내부의 기관들에게 압박을 주고, 그것들을 아래로 처지게 하고, 위장을 약화시켜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몸이 구부러지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폐에 더 큰 압박을 주어 올바르게 호흡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MH 292.1}

허리를 조임으로 생기는 위험들에 관하여 최근에 충분한 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행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잘못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그런 습관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은 말할 수 없는 손해를 스스로 당하고 있다. 폐가 공기를 충분히 흡입할 수 있도록 가슴이 최대한 팽창할 여유를 갖는 것이 건강에 요긴하다. 폐가 제한을 받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감소된다. 그렇게 되면 피가 적당하게 활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폐를 통하여 배설되어야 할 찌꺼기와 독소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 거기에 덧붙여 순환작용이 방해를 받고, 내부의 기관들이 지나치게 압박을 받게 되므로 그 기능들을 적당하게 발휘할 수 없게 된다. {MH 292.2}

끈으로 단단히 졸라매면 맵시 있는 몸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적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균형, 곧 신체 각 부분의 조화로운 균형이다. 그러므로 육체적 발달을 위한 정확한 표본은 불란서형 위생복에 나타난 모습에서 발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따라 형성된 인간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창시자시므로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이상에 일치될 때만 진정한 미(美)의 표준에 접근해 갈 수 있다. {MH 292.3}

관습이 조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은 옷을 불균등하게 입는 일로서 몸의 어떤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다른 부분은 불충분하게 입히는 점이다. 발과 팔 다리는 신체의 중요한 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힘으로써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사지를 습관적으로 차게 하면 건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피가 너무 적게 있게 되면 몸의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은 피가 몰려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 발과 사지에 비해 신체의 주요 기관들이 있는 몸을 세 배내지 네 배의 두께로 덮는다면 피의 순환이 순조로와질 수 없다. {MH 293.1}

많은 여자들은 피를 깨끗하게 해 주는 신선한 공기를 스스로 박탈당하고, 혈관을 통하여 피를 보내줌으로써 생명과 건강과 정력을 주는 동작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해 버리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되고 야위어진다. 많은 여자들은 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에 고질병 환자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원리를 따라 옷을 입고 옥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였으면 그들에게 허용된 생애의 기간 동안 살아 있을 시기에 폐결핵과 그 밖의 질병으로 죽어 버렸다. {MH 293.2}

건강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기 위하여 신체 각 부분의 필요성이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기후의 특성과 환경과 건강상태와 나이와 직업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의복은 쉽게 어울리고, 혈액의 순환에 방해가 없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충분히 호흡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모든 이음새가 여유있게 됨으로써 손을 들 때는 옷이 자유롭게 따라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MH 293.3}

건강을 잃고 있는 여자들은 현명하게 옷을 입고 활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옥외활동에 적합한 옷을 입었을 때는 그들이 옥외에서 활동하게 하되, 처음에는 조심성 있게, 그리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활동의 양을 증가시키게 하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마침내 세상 사업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MH 293.4}

유행의 중립

여자들은 유행의 요구를 따르고자 애쓰는 대신, 건강에 좋고 단수한 의복을 입을 용기를 스스로 가져야 한다. 단순히 고된 가정 일에 빠져 들어가는 대신에 아내와 어머니는 독서하고, 스스로 지식을 얻고, 남편의 친구가 되고, 자녀들의 정신을 계발시키는 일에 직접 관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상한 생애를 위한 감화력을 미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바로 지금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는 사랑하는 구주를 매일의 동료와 친한 친구로

삼기 위하여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들로 나가고, 하나님의 업적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시간을 가져야 한다. {MH 294.1}

그는 언제나 즐겁고 쾌활해야 한다. 매 순간을 끊임없이 바느질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저녁은 가족들이 하루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연합하는 즐거운 사교의 기회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많은 남자들은 술집이나 유흥장으로 가기보다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의 길을 택하게 된다. 많은 소년들은 거리나 거리의 음식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많은 소녀들은 경박하고 그릇된 모임에 참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의 감화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일생 동안 축복이 될 것이다. {MH 294.2}

23장 식생활과 건강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육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일 때마다 낭비가 생기는데, 그 낭비는 우리의 음식물로 보충된다. 몸의 각 기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뇌는 그 몫에 해당되는 분량을 공급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 역시 그들의 몫이 필요하다. 음식물이 피로 바뀌어지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과 힘을 공급한다. {MH 295.1}

음식물의 선택

육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를 가장 잘 공급해 주는 음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식욕은 안전한 지침이 못된다. 그릇된 식사 습관으로 말미암아 식욕은 왜곡되었다. 때때로 식욕은 건강을 해치고 활력 대신에 연약함을 초래하는 음식물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의 관습에 의하여 안전하게 지도를 받을 수 없다. 도처에 퍼져 있는 질병과 고통은 식생활에 대한 일반적 오류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 {MH 295.2}

가장 좋은 음식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식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연구해야 한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는 아담에게 음식물을 지정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창 1:29). 또한 인간이 죄의 저주로 에덴동산을 떠나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밭의 채소"(창 3:18)를 먹도록 역시 허락을 받았다. {MH 295.3}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MH 296.1}

그러나 건전한 음식물 자체가 모든 환경에서 우리의 필요에 꼭 같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음식물을 선택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식생활은 계절과 우리가 사는 곳의 기후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적합해야 한다. 어떤 계절이나 어떤 기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음식물이 다른 계절이나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각기 다른 음식물들이 있다. 때때로 심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음식물이 앉아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심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경험과 건전한 판단을 통하여 자기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을 거기서 선택해야 한다. {MH 296.2}

과일과 견과와 곡식에 대한 천연계의 풍부한 산물은 충분하다. 그리고 해마다 각 곳에서 나는 산물들이 증가된 운송 시설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욱 널리 공급되고 있다. 그 결과로 몇 년 전까지 비싼 사치품으로 여겼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오늘날은 매일 사용하는 음식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특별히 말리거나 통조림을 한 과일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 {MH 297.1}

견과와 견과류 음식물들이 주로 육류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견과를 곡식과 과일과 어떤 근채류(根菜類)와 배합하면 건강에 좋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견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견과류 음식물을 사용함으로 얻는 나쁜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예방책에 유의함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어떤 견과류는 다른 견과류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편도(扁桃)는 땅콩보다 낫다. 그러나 땅콩은 양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곡식과 함께 사용하면 영양분이 많고 소화도 잘 된다. {MH 298.1}

올리브는 적당하게 마련하기만 하면, 견과와 마찬가지로 버터와 육류를 대신하게 된다. 올리브에 들어있는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질보다 훨씬 더 좋다. 그것은 이완제(弛緩劑)로 사용된다. 그것을 사용하면 폐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염증을 일으키고 자극을 받고 있는 위장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한다. {MH 298.2}

맛이 좋고 자극성이 많은 음식물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구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범하고 단순한 음식을 즉시 맛있게 먹을 수 없다. 구미가 정상적으로 되고, 위장이 받아 온 혹사에서 회복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음식물을 끈기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후에 그것이 맛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음식의 맛좋고 훌륭한 풍미를 식별하게 되면, 불건전한 진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상태가 된 위장은 병적인 상태도 아니고 과중한 짐도 지지 않은 채, 그 의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MH 298.3}

건강을 유지하려면, 양호하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 {MH 299.1}

만일 우리가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거의 모든 지방에서 얻을 수 있다. 쌀, 밀, 옥수수, 귀리로 된 여러 가지 조제품들과, 또한 콩, 완두, 렌즈콩 등이 외국의 어느 곳으로든지 보내지고 있다. 국내산이나 수입한 과일,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자라나는 각종 채소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음식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MH 299.2}

과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통조림을 하거나 건과를 만들어 겨울에도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씨없는 포도, 구즈베리(사탕열매), 양딸기, 나무딸기, 덩굴딸기(검은 딸기 같은 작은 실과들은 그것들이 별로 사용되지 않거나 그 재배를 등한히 하는 여러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 {MH 299.3}

가정용 통조림 제조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언제나 양철 깡통보다 오히려 유리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통조림할 실과는 상하지 않고 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과일을 삶되 보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삶으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싱싱한 과일의 훌륭한 대용이 된다. {MH 299.4}

어디서든지 건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살구 등과 같은 견과들을 알맞은 값에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것들을 주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이 각 계층 노동자들의 건강과 원기를 주는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MH 299.5}

한 끼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 놓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과식을 조장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MH 299.6}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소화력이 약하면, 그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 끼에 과일을 먹을 것같으면 다른 끼에는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MH 299.7}

식사는 늘 변경시켜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요리한 같은 음식이 끼마다 또는 날마다 식탁 위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음식을 자주 변경할 때에 식사는 더욱 맛이 있고 신체 조직은 더욱 증진된다.* {MH 300.1}

음식물의 조리(調理)

단순히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먹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음식의 질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먹는 음식이 맛이 없을 것같으면, 신체는 영양분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음식물은 주의 깊게 선택되고 지혜롭고 기술적으로 조리되어야 한다. {MH 300.2}

극상품 흰 밀가루는 빵을 만드는데는 최선의 것이 아니다. 그런 밀가루를 사용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하다. 정제한 밀가루로 만든 빵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것은 흔히 변비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건강치 못한 신체 조건의 원인이 된다. {MH 300.3}

빵을 만드는데 있어서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은 해로우므로 필요하지 않다. 소다는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때로는 신체의 온 기관을 중독시킨다. 많은 주부들은 소다가 없으면 좋은 빵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만일 그들이 더 좋은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할 것같으면 그들이 만드는 빵은 더욱 건강에 좋고, 정상적인 구미에 보다 더 맞게 될 것이다. {MH 300.4}

부풀리거나 이스트를 넣은 빵을 만들 때에 물대신 우유를 사용하면 비용이 더 들고 우유는 빵을 건강에 좋지 않게 만든다. 우유로 만든 빵은 물로 만든 빵만큼 구운 후에 오랫 동안 맛을 유지하지 못하고, 위에 들어가면 쉽게 발효된다. {MH 301.1}

빵은 가볍고 맛이 좋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신 맛이 있어서는 안된다. 빵 덩어리들은 작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완전히 구워 누룩균을 죽여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부풀린 빵이 금방 구워내어 뜨거울 때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빵은 식탁에 절대로 올려 놓지 말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누룩없는 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스트나 누룩을 넣지 않고 통밀가루로 만들어서 화력이 좋은 오븐에 갓 구워낸 로울 빵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다. {MH 301.2}

죽이나 미음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곡식은 여러 시간 동안 끓여야 한다. 그러나 연한 음식이나 유동성(流動性)식물은 철저히 씹어야 하는 마른 음식보다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즈위백 혹은 두 번 구운 빵은 가장 소화가 잘 되고, 가장 맛이 좋은 음식 중 하나이다. 부풀린 보통 빵을 조각 조각 썰어서 오븐에서 말리되 수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말리도록 하라. 그 다음에 전체를 약간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이 빵은 건조한 곳에서 다른 보통 빵보다 훨씬 오랫 동안 저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용하기 전에 다시 데우면 처음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된다.* {MH 301.3}

일반적으로 설탕을 너무 많이 음식에 사용한다. 케이크, 단 푸딩, 페이스트리, 젤리, 잼은 소화불량의 주 원인이 된다. 특별히 우유와 계란과 설탕이 주요 성분이 되어 있는 커스타드와 푸딩류는 해롭다. 우유와 설탕을 많이 쓰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MH 301.4}

우유를 사용하려면 완전히 소독해야 한다. 이 점만 주의하면 우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병균이 전염될 위험은 적을 것이다. 버터는 식은 빵에 발라 먹으면 요리에 사용하는 것보다 덜 해롭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폐하는 것이 좋다. 치이즈는 한층 더 해롭다. 이는 전혀 식물로서 적당하지 않다.* {MH 302.1}

불충분한 음식과 요리를 잘못한 음식은 조혈기관(造血器官)을 약화시키므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그것은 신체 조직을 착란(錯亂)케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동시에 신경과민과 우울증을 가져 온다. 잘못된 요리로 희생된 자들은 실로 허다하다. 많은 무덤 위에는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 과로로 사망함"이라고 기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MH 302.2}

요리하는 자들이 건강 식물의 요리법을 배우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많은 영혼들이 좋지 못한 요리법의 결과로 잃어버림을 당한다. 좋은 빵을 만드는데는 생각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마는 한 덩어리의 좋은 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 참으로 훌륭한 요리사는 드물다. 젊은 부인들은 요리나 그 밖의 가사를 하는 것을 미천한 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처녀들은 결혼하여 가족을 돌보게 될 때에 주부와 어머니에게 속한 의식에 대하여 별반 생각이 없다. {MH 302.3}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는 모든 부인들이 배워야 할 과학인 동시에 보다 더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음식을 맛있게 하고 동시에 단순하고 영양있게 만드는데는 기술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요리하는 자들은 간소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음식을 요리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음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요, 보다 더 맛이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MH 302.4}

가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건강에 좋은 요리법의 기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여인들은 자기 가족의 건강에 대단히 필요한 것을 배울 결심을 해야 한다. 여러 곳에 위생적인 요리학교가 이 방면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인들은 어떠한 좋은 요리사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 주방 기술의 안주인이 되기까지 진보를 위한 그의 노력에 꾸준히 인내할 것이다. {MH 303.1}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심히 중요하다. 매 끼의 식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할 것이다. 이 식사 시간에 각 사람은 신체가 요구하는 것을 먹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는 다음 식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하라. 신체가 아무 음식도 요구하지 않는 때에 즉 불규칙한 간격으로 또한 식사 사이에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릇을 고칠 만한 충분한 의지력을 갖지 못한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할 때 먹을 것이 손에 닿기만 하면 항상 먹는다. 이것은 매우 해롭다. 만일 여행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고 영양 있는 식물을 규칙적으로 먹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질병으로 크게 고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MH 303.2}

또 하나의 해로운 버릇은 취침 시간 바로 전에 먹는 일이다. 정규적인 식사를 하였을지라도 피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더 먹게 된다. 이와 같은 그릇된 행동에 빠지므로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고 때때로 그것이 너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는 잘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늦게 식사를 한 결과로 소화작용은 자는 시간에도 내내 계속된다. 그러나 위가 계속적으로 활동할지라도 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잠은 불쾌한 꿈 때문에 장애를 받게 되고, 아침에는 흐리멍텅한 기분으로 일어나게 되며, 식사에 대한 의욕을 별반 갖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휴식을 위하여 잠자리에 들 때 위도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 그것 역시 신체의 다른 기관들처럼 쉬어야 한다. 습관적으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밤 늦게 먹는 저녁 식사가 특별히 해롭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장애가 때로는 죽음을 초래하는 질병의 시초가 된다. {MH 303.3}

많은 경우에 있어서 허전하여 식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낮 동안에 소화기관을 너무 과중하게 사용함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끼의 식사를 처리한 후에는 그 소화기관들이 휴식을 요한다. 적어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대여섯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방침을 실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세 끼보다 두 끼를 먹는 것이 더 나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MH 304.1}

그릇된 식사 조건

음식을 매우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지 말 것이다. 만일 음식이 차면, 소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위장의 활력을 끌어 간다. 찬 음료는 이런 이유로 유해하다. 반면에 뜨거운 음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쇠약하게 한다. 사실상, 식사와 함께 위장에 들여보낸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먼저 흡수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며 피클과 양념한 음식을 피하라. 그리고 과실을 많이 먹으면 식사 시간에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MH 305.1}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이는 침이 음식과 알맞게 섞여서 소화액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MH 305.2}

또 한 가지 큰 잘못은 격렬하고도 과도한 운동을 한 직후와 대단히 지쳐 있을 때나 몸이 화끈 달았을 때와 같은, 부적당한 때에 먹는 것이다. 식사 직후에는 신경 에너지를 강력히 흡수한다. 그러므로 식사 직전과 직후에 정신이나 육체가 무겁게 부담이 지워지면, 소화가 잘 안된다. 흥분될

때나, 걱정될 때나, 마음이 급할 때에는, 휴식과 안정을 되찾기까지 먹지 않는 것이 더욱 좋다. {MH 305.3}

위는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위가 병들면 약화된 소화기관을 돕기 위하여, 뇌에서 정신력을 불러낸다. 이러한 요구를 자주 받게 되면, 뇌는 충혈이 된다.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육체적 운동이 부족할 때에는, 평범한 음식물이라도 적게 먹어야 한다. 식사시간에는 근심과 걱정스러운 생각을 던져 버리고, 바쁘게 서둘지 말고, 도리어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는 정신을 충만케 하여, 천천히 즐겁게 먹으라. {MH 306.1}

육식이나 그 밖에 나쁘고 유해한 식물을 먹지 않기로 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음식이 단순하고 건강에 좋으므로 제한 없이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과식과 때로는 폭식에까지 이른다. 이것은 잘못이다. 소화기관은 그 계통의 일을 어렵게 만들 음식의 질(質)이나 양(量)으로 인하여 과로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MH 306.2}

음식을 차례로 식탁에 내어 놓는 것이 관습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식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이 아닐지도 모르는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차례의 음식이 올라오면 그는 종종 위험을 무릅쓰고 한계를 넘어선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조금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도 그 유혹하는 후식을 먹는다. 만일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의도한 모든 음식을 처음부터 식탁에 올려 놓는다면 식사하는 사람은 최선껏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MH 306.3}

어떤 때는 과식의 결과를 즉시 느낀다. 다른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소화기관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체력의 기초는 서서히 약화된다. {MH 306.4}

여분의 음식은 신체에 부담을 주며, 병적 발열 상태를 일으킨다. 그것은 위에 과도한 분량의 혈액이 모이게 하므로 사지와 수족을 급히 차게 만든다. 또 이것이 소화기관의 일을 마칠 때에는 무기력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계속하여 과식하는 어떤 이들은 이 기진맥진한 느낌을 배고픈 상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소화기관의 과로상태(過勞狀態)에서 오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두뇌가 마비되어 정신적, 육체적 노작(勞作)에 싫증나는 때도 있다. {MH 307.1}

이러한 불유쾌한 증세는 활력을 쓸데없이 소모하여 육체가 그 작용을 마쳤으므로 이제는 완전히 탈진(脫盡)되어 있는 까닭이다. 위장은 "쉴 시간을 주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노곤함이 음식을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하여 위를 쉬게 하는 대신에 새로운 짐을 더 지워 준다. 그 결과 소화기관은 훌륭하게 일을 해야 할 때에 흔히 다 써서 낡아 버린다. {MH 307.2}

안식일을 위하여 보통 날보다 여러 가지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지 말 것이다. 도리어 음식물을 더욱 간단하고 적게 먹어서 영적 사물을 잘 이해하는데 정신이 맑고 힘있게 할 것이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히는 것이다. 부적당한 식사로 말미암아 머리가 혼란되어 있는 연고로 가장 귀중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안식일에 과식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거룩한 기회에 유익을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부적합한 자가 되게 한다. {MH 307.3}

안식일에 요리를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찬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 추운 계절에는 전날에 준비해 둔 음식을 데워야 한다. 그리고 음식은 단순하고 맛이 있고, 먹음직해야 한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식일에 별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곧 가족들이 매일 먹지 않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MH 307.4}

나쁜 식사 습관에 빠졌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척해야 한다. 위를 과도히 사용한 결과로 소화불량증이 생겼을 때에는 모든 과중한 부담이 되는 짐을 제거함으로 남아 있는 활력을 보존하는데 주의 깊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위를 오랫 동안 학대하면 다시는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식사습관이, 위가 더 이상 쇠약하여짐을 면하고 많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각개(各個)의 경우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사에 관한 바른 원칙에 주의하면 크게 개혁이 생길 것이요, 요리사가 끼니마다 식욕을 일으키기 위하여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MH 308.1}

식사를 절제하면 정신적 도덕적 활기로 보상받는다. 그것은 또한 정욕을 통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과식은 성질이 느린 사람에게는 특별히 해로우니 이러한 사람들은 절식(節食)하고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탁월한 천품의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식욕을 절제하여 극기한다면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을 그리하지 않으므로 그 절반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MH 308.2}

많은 저술가와 연사(演士)들이 여기에 실패한다. 마음껏 먹은 다음에 독서와 연구 또는 저술 등의 일에만 열중하고 육체적 운동을 하는데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 결과로 사상과 어휘가 자유롭게 흘러 나오지 않는다. 그들의 문장과 말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데 필요한 힘과 압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힘들인 작품에는 활력이 없고 효과가 없어진다. {MH 309.1}

중요한 책임을 담당한 사람들 특별히 영적 관계의 수호자가 된 사람들은 예민한 감정과 민활한 관찰력을 가진 자들이라야 한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음식에 절제하여야 한다. 기름지고 사치한 음식물은 그들의 식탁 위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MH 309.2}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중대한 결과가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된다. 때때로 그들은 신속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한 절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일이다. 이지(理智)는 체력과 지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조건 아래서 강화된다. 과로하지만 아니하면 원기는 사용할수록 새로와진다. 그러나 흔히 중요한 계획을 고안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사람들의 처사가 부적당한 식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위가 혼란하면 정신 상태도 혼란하고 확실성이 없다. 이것이 흔히 성냄과 무자비함과 또는 편벽됨의 원인이 된다. 나쁜 식사습관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적 상태의 결과로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무시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잔인한 많은 계획들이 실천되어 왔다. {MH 309.3}

여기에 책상 일이나 혹은 정신적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가지 제의를 하는 바이다. 충분한 도덕적 용기와 극기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해 볼 것이다. 끼니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된 단순한 식물을 취하라.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 이상은 더 먹지 말라. 날마다 활발한 운동을 하라. 이렇게 하고도 그대가 유익을 받지 못하는가 볼 것이다. {MH 310.1}

활발한 육체 노동을 하는 힘센 사람들에게는 그 식물의 양과 질에 있어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처럼 그렇듯 주의하도록 강요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먹고 마시는데 절제를 한다면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 {MH 310.2}

어떤 사람들은 저희 식사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면 하고 원한다. 그들은 과식을 한다. 그리고는 후회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항상 염려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확한 규칙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 사람은 이성을 활용하여 자제해야 하며 또한 원칙에 의하여 행할 것이다. {MH 310.3}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다. 건강의 법칙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위하여 세워 놓으신 그 법칙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에 속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법을 어긴 결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은 "세상의 습관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이 아니고, "나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MH 310.4}

24장 음식물로서의 육류

태초에 인간에게 지정된 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홍수후 지상의 모든 식물(植物)이 멸절될 때까지 인간은 육식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MH 311.1}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보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물을 선택하실 때에도 같은 교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그들의 훈련을 담당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훈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공급하셨는데, 그것은 육식이 아니요 만나, 곧 "하늘의 양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식이 허락된 것은 그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를 사모하여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기 때문이었으나 그것은 다만 잠간 동안 뿐이었다. 그 결과 수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죽음이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없는 식사로 제한하는 것이 전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육식의 제한이 음으로 양으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되어 그것이 영구적인 규례가 되지 못하였다. {MH 311.2}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 육식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중한 제한 아래 허락되었다. 돼지 고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그밖의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먹도록 허락된 고기에 대하여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엄금되었다. {MH 311.3}

다만 동물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것만이 식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찢겨 죽은 동물이나 혹은 그 몸에서 피를 잘 뽑아 버리지 아니한 것은 어떤 동물이든지 식물로 사용할 수 없었다. {MH 312.1}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제정하여 주신 그 계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보았다. 그들은 육식을 열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시 106:15). 그들은 세속적 사물을 신령한 것보다 더욱 높이 평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목적하신 신성한 탁월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MH 312.2}

육식을 버리는 이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곡식과 야채를 간접적으로 먹는 셈이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곡식과 야채에서 섭취하기 때문이다. 곡식과 야채에 있던 생명이 그것을 먹는 동물들에게 들어가고 우리는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용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식물을 먹음으로 그것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MH 313.1}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그 동물이 살아 있을 때에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서리를 치며 돌아설 것이다.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그 밖의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전염된다. {MH 313.2}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돼지에 관하여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어다"고 말씀하셨다(신 14:8). 이 명령은 돼지고기가 식물로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주어졌다. 돼지는 오물을 먹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오물 청소가 돼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의 용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기가 사람의 식용이 되었던 때는 결코 없었다. 그 본바탕이 불결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어떤 동물의 고기가 건강에 좋을 수는 없다. {MH 313.3}

흔히 몹시 병들어서 주인이 더 오래 기르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동물들이 시장에 끌려 나와 식용으로 매매된다. 그리고 매매하기 위하여 살찌게 하는 어떤 과정이 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일광과 깨끗한 공기를 차단한 가운데서 외양간의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게 하고 썩은 식물로 살찌게 하므로 온 몸이 곧 불결한 물질로 감염된다. {MH 314.1}

흔히 가축들은 먼 거리에 수송되어 심한 고통을 겪고서 시장에 도착된다. 푸른 초장(初場)을 떠나서 덥고 먼지나고 괴로운 먼 길을 걷고 혹은 더러운 짐차 속에 가득 실려 열이 나고 기진하며 흔히 여러시간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지낸다. 이 불쌍한 동물들은 인간에게 그들의 시체를 먹히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 가는 것이다. {MH 314.2}

여러 곳에 있어서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오물(汚物)에 의하여 심히 오염되어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별히 물고기가 대도시의 더러운 하수(下水)와 접촉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하수 중의 더러운 것을 먹고 살던 고기가 강물에서 떠내려가 물이 깨끗하고 신선한 곳에서 잡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 고기가 음식에 사용될 때에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일으킨다. {MH 314.3}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기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참된 이유를 거의 알아내지 못한다. {MH 315.1}

육식에 의한 도덕적 해악은 육체적 질병 못지 않게 현저하다. 육식은 건강을 해한다. 그리고 무엇이나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도 비슷한 영향을 준다. 육식과 관련된 일로서 동물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잔인성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잔인한 일을 하는 자와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친절을 어느 정도로 파괴해 버리는가! {MH 315.2}

말못하는 많은 동물들이 나타내는 지성이 인간의 지성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하다. 동물들은 보고 듣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많은 인간들이 그들의 육체의 기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그들의 기관을 사용한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동정과 친절을 나타낸다. 많은 동물들은 그들을 도와 주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애정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애정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들은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애착을 사람들에게 갖는다.* {MH 315.3}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금껏 돌봐 주던 짐승을 신뢰와 애정이 충만한 그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도살자의 칼에 죽도록 그들을 넘겨 줄 수 있겠는가? 그 고기를 어떻게 맛좋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겠는가? {MH 316.1}

근력(筋力)이 육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식을 하지 않고도 신체조직의 요구를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더욱 활기 찬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곡식은 과실과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다. 만일 육식을 하는 것이 건강과 기력에 요긴한 것이라면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MH 316.2}

육식을 끊을 때에는 흔히 쇠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 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육류의 식물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이며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까닭이다. 그래서 저들은 고기를 심히 먹고 싶어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식을 끊어 버리는 것이 마치 주객이 술잔을 단념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개혁을 하면 더욱 좋은 유익을 받을 것이다. {MH 316.3}

육식을 끊을 때에는 그 대신에 영양이 있고 맛좋은 여러 가지 곡식, 견과, 야채, 실과 같은 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계속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필요하다.

가난한 어떤 나라에서는 고기가 가장 값싼 식물이다.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는 개혁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단행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입장과 평생에 지어진 습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비록 올바른 생각일지라도 지나치게 강권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아무라도 갑자기 개혁하도록 강권하지 말 것이다. 육식 대신에 값싼 건강식으로 대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요리사에게 큰 관계가 있다. 주의하여 기술적으로 하면 영양도 있고 맛도 좋으며 그리고 거의 육식의 대용이 되는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MH 316.4}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심을 기르고 의지를 굳게 가지고 좋은 건강식을 하면 개혁은 저절로 되고 육식의 요구는 곧 없어질 것이다. {MH 317.1}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폐하기로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닌가? 하늘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능히 영혼과 신체에 그토록 해독을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어찌 능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의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호화판으로 먹을 수 있겠는가? 돌이켜 태초에 인간에게 공급된 건강에 좋고 풍미 있는 식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로 교훈하여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의 지배 아래 두신 말못하는 짐승들에게 긍휼을 베풀자. {MH 317.2}

25장 음식물에 대한 극단

음식물의 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개혁자는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단순히 어떤 비건강적인 식물을 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건강의 원칙을 밝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식탁은 아직도 해로운 진미로 채워져 있어서 그리스도인 절제와 중용(中庸)의 표준에서 멀다. {MH 318.1}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른 표준을 세우려는 열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어떤 이들은 가장 요구되는 식물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결핍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식물을 취하지 못하고 영양이 없는 조식(粗食)을 취하게 된다. 그들의 음식은 좋은 혈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그들의 건강은 손상되고, 그들의 모본은 음식의 개혁을 나타내느니보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된다. {MH 318.2}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는 단순한 식사가 필요하므로 식물의 선택이나 요리에 대하여 별로 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조직의 요구에 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을 처하지 않고, 아주 보잘 것 없는 식사로 스스로를 제한하여 고통을 당한다. {MH 318.3}

개혁의 원칙에 대하여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주장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것을 강요하는데 있어서도 극히 엄격하다. 그들의 좋지 않은 건강과, 자기들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나타난 그들의 잘못된 개혁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의 개혁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하고, 따라서 저들로 하여금 이를 전적으로 거절하게 한다. {MH 318.4}

건강 법칙을 이해하고 원칙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방종과 제한의 두 극단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음식을 선택하되 다만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체력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식욕을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두어 그 보상으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받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나, 그들의 모본은 바른 원칙을 지지하는 일종의 증언이 된다. 이 사람들은 선을 위하여 관대한 감화를 끼친다. {MH 319.1}

음식물의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다. 이 문제는 넓고 깊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습관이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서, 남을 비평하지 말 것이다. 각 사람의 습성을 통제하는 일정 불변의 법칙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없다. 이 사람에게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저 사람에게는 맛이 없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건강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콩이나 팥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식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낟알로 만든 요리가 좋은 식물이 되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MH 319.2}

과실과 견과가 귀한, 새로 개척한 지방이나 가난에 쪼들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 식사에서 우유와 계란을 배제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심히 비대한 사람들과 동물적인 정욕이 강한 사람들은 자극하는 식물의 사용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능적 습성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계란을 사용하면 안된다. 그러나 조혈(造血)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한 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식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유와 계란을 아주 폐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잘 먹이고 잘 사육한 소에게서 우유를 짜내고, 건강한 닭에서 알을 받도록 크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란은 가장 쉽게 소화되도록 요리하여야 할 것이다. {MH 320.1}

식사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질병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우유와 계란의 사용이 점점 더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건강적이요 값이 비싸지 않는 다른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각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우유와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도 오히려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MH 320.2}

하루에 두 끼만 먹는 습관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정 아래서 사람들은 세 번째 식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조금이라도 먹는 경우에는 아주 가볍고 또한 가장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크래커 곧 영국의 비스켓 또는 즈위백(황갈색의 비스켓의 일종) 그리고 과실 혹은 곡류로 된 음료들은 저녁 식사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다. {MH 321.1}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이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것일지라도 그 음식이 그들을 해치지나 않을까 하고 언제나 염려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대의 음식이 그대를 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고, 그런 일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그대의 최선의 판단을 따라 먹으라. 그리고 그대가 그 음식이 그대의 육체에 힘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으면, 그분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믿고 안심하라.* {MH 321.2}

원칙이 우리에게 위를 자극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버리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식(粗食)을 하게 되면 빈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치료하기에 가장 어려운 질병은 대개 이런 원인에서 초래된다. 신체의 기관이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지 못하므로 소화불량과 일반적 쇠약이 따른다. 그와 같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므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그들은 무지와 태만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하게 되고, 개혁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실천하게 된다. {MH 321.3}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무시당하거나 혹사를 당함으로 당신의 사업에 부적당하게 될 때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함으로 육체를 돌보는 것이 가장에게 속한 첫째 의무 중 하나이다. 음식의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값비싼 의복과 가구를 적게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MH 322.1}

어떤 가장들은 손님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접대를 하기 위하여 가족의 식탁을 빈약하게 한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손님을 접대할 때는 더욱 단순하게 해야 한다. 가족의 필요성을 먼저 유의해야 한다. {MH 322.2}

현명치 못한 경제와 허례는 친절한 접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을 이따금 방해한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정규적인 식물은 예기치 않은 손님이 올지라도 주부가 여분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부담을 지지 않고 그 손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어야 한다. {MH 322.3}

모든 사람은 무엇을 먹으며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자들은 물론이요 남자들도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마련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 남자들의 직업은 이따금 그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곳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요리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선한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MH 323.1}

그대의 식사를 주의 깊이 생각해 보라.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연구해 보라. 자제력을 계발하라. 식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두라. 과식으로 위를 혹사하지 말라. 그러나 건강이 요구하는 건전하고 맛좋은 음식을 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MH 323.2}

건강 개혁자들인 양하는 몇 사람의 좁은 견해가 건강사업에 큰 손해를 끼쳐 왔다. 건강생활의 주창자들은 식생활의 개혁이 그들의 식탁을 위하여 마련하는 음식물에 의하여 주로 평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 불신을 초래할 경로를 취하는 대신에 그들은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원칙을 예증해야 한다.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식욕을 제한하는 것이면 어떤 개혁운동도 반대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성이나 건강법칙보다는 미각을 더 중요시한다. 오래 다져진 관습의 길을 떠나 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모순이 없을지라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의하여 과격하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근거없이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의 주창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애쓰는 대신 원칙을 양보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접근해 가야 한다.* {MH 323.3}

건강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 그 사람들을 건강원칙을 대표하는 자들로 인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아주 거절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극단은 흔히 평생동안의 꾸준한 생애를 통하여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짧은 기간에 준다. {MH 324.1}

건강개혁은 광범위하고 그 영향이 멀리까지 미치는 원칙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견해와 행동으로 그것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바른 원칙에서 떠나게 하고 그 원칙을 경시하게 하고자 반대와 조소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욕망해서는 안된다.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위하여 서는 일에 있어서 확고하고 결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교제에 있어서 관대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과 참된 중용을 나타낼 것이다. {MH 324.2}

26장 자극성 식물과 마취제

자극성 식물과 마취제라는 이름 아래 음식 혹은 음료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을 중독시키며, 신경을 흥분시킨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은 틀림없이 해롭다. 사람들이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 잠시 동안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비정상적인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면 항상 과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체의 퇴화와 쇠퇴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원인이 된다. {MH 325.1}

조미료

현대와 같은 빠른 시대에 있어서는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좋다. 양념은 본질상 해롭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 그 밖에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알콜 중독자의 위장이 염증을 일으킨 상태는 알콜 음료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된다. 그와 흡사한 염증의 상태가 자극성 양념을 사용하므로 일어난다. 오래 가지 않아서 보통 음식은 그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신체는 더욱 자극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결핍과 갈망을 느낀다. {MH 325.2}

차와 커피

차는 일종의 자극제와 같은 작용을 하므로 어느 정도 취(醉)하게 한다. 커피와 평판이 좋은 많은 음료들도 유사한 작용을 한다. 먹으면 첫째로 기분을 유쾌하게 한다. 위장의 신경이 흥분된다. 그리고 이 흥분된 신경은 그 자극을 뇌에 전하고 뇌는 다시 흥분되어 더 큰 자극을 심장에 준다. 그리하여 순간적인 원기를 전 신체조직에 준다. 피로를 잊고 기운이 증가되는 듯하다. 정신이 들고 생각이 더욱 명확해 진다. {MH 326.1}

이런 결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마시는 차나 커피가 자기들에게 대단한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차와 커피는 신체조직에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그 효과는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어난다. 그러나 기운이 나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다만 신경의 흥분일 뿐이다. 그 자극의 영향이 사라지면 비정상적인 힘은 빠지고 그 결과는 그만큼 노곤하고 쇠약해진다. {MH 326.2}

이러한 신경 자극물들을 계속 사용하면 두통, 불면, 심계항진(心悸亢進), 소화불량, 떨림,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소모시키는 까닭이다. 피로한 신경은 자극과 과로대신에 휴식과 안정을 요구한다. 신체는 소모된 활력을 회복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극하는 식물을 사용하여 체력에 짐이 지워질 때에 얼마 동안은 좀 더 많은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사용함으로 신체가 허약하여지면 원하는 대로 힘을 일으키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된다. 자극물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어 마침내 의지력이 정복을 당한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갈망을 거절할 아무 힘도 없는 것같이 된다. 보다 더 강한 것, 그리고 더 강한 자극물들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기진(氣盡)한 체력은 더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MH 326.3}

흡연의 습관

담배는 느리고 잠재적이지마는 가장 해로운 독소이다. 어떤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인체조직에 해롭다. 담배의 영향은 느리고 처음에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위험하다. 담배는 신경을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는 마비시킨다. 그것은 뇌를 약화시키고 흐리게 한다. 흡연은 때때로 독한 술보다 더욱 강하게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더욱 미묘하고, 그 영향은 신체조직에서 제거해 버리기 어렵다. 흡연은 음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하고 많은 경우에 음주의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기초가 되다. {MH 327.1}

흡연은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고 불결하고 흡연자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애연가를 어디에서나 만나게 되다. 그대가 군중 속을 헤치고 지나갈 때 어떤 흡연가가 그대의 얼굴에 독소가 가득 찬 입김을 내뱉지 않는 경우를 당하지 않는 때가 거의 없다. 공기가 술과 담배 냄새로 가득한 기차 속이나 방 안에 있는 것은 불쾌하고 건강에 좋지 못한 일이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독소들을 스스로 사용하고자 고집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호흡해야 할 공기를 더럽힐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단 말인가? {MH 328.1}

소년들과 청년들이 흡연하면 말할 수 없는 해독을 초래한다. 그 선대 조상들의 비건강적 습관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장애, 신체의 쇠약, 신경의 불안정, 그리고 불건전한 욕구 등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 준 것들이다. 그리하여 같은 습관을 자녀들이 계속할 때 그 나쁜 결과는 증가되고 영속화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은 이 원인에 기인된 바가 적지 않다. {MH 328.2}

아이들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몸과 정신이 특히 담배의 해독을 받기 쉬운 때에 이런 악습에 젖으면 체력이 감퇴되고 신체의 발육이 부진하고 정신은 둔화되며 도덕심은 부패된다. {MH 329.1}

그러나 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본을 보여 준 부모들과 교사들과 성직자들이 그 악한 습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유아기를 겨우 벗어난 어린 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흡연에 대한 것을 경고하면, 그들은 "나의 아버지도 담배를 피웁니다"고 말한다. 그들은 성직자와 주일학교 교장을 가리키면서 "그런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는데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단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절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중독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부절제의 길을 막는데 무슨 힘을 쓰겠는가?* {MH 329.2}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영원한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능력을 그대에게서 빼앗아 가는 습관에 빠질 수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봉사를 그분에게서 빼앗고 그대의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는 일을 박탈하는 그 일을 매일 하겠는가? 그 두 가지 봉사는 다 같이 그대가 모범적으로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MH 329.3}

그대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보았는가? 그대는 담배를 사는데 주님의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그대가 일생 동안 사용한 액수를 계산해보라. 이 더러운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액수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친 액수와 비교할 수 있는가? {MH 329.4}

인간에게는 담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낭비라기보다, 악용하는데 써 버리는 그 재정이 없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것이나 동료 인간의 것을 앗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가? {MH 330.1}

독 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MH 330.2}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MH 330.3}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MH 330.4}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MH 330.5}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잠 20:1; 23:29-32) {MH 330.6}

취하게 하는 술의 희생자가 된 사람의 타락상과 노예적 상태를 인간의 손으로 이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한 적은 결코 없었다. 노예상태가 되고 타락한 나머지 심지어 그의 불행을 깨닫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는 "다시 술을 찾겠다"(35절)고 한다. {MH 330.7}

주정뱅이에게 알콜이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여 주기 위하여 논쟁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그들의 불행을 보고 우는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몽롱하게 된 참상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명에 오점이 되고 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수치와 저주와 위험이 되고 있다. {MH 331.1}

그리고 주정뱅이의 가정에 숨겨져 있는 불행과 번민과 절망을 누가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곱게 자라나서 감정이 풍부하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아내가 술 때문에 주정뱅이와 마귀로 바뀌어진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가정의 안락과 교육과 훈육을 박탈당하고, 그들의 자랑과 보호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에 대한 공포속에서 살아가다가, 수치의 낙인이 찍히고 때로는 저주스러운 주정뱅이의 욕구라는 유전까지 받아서 세상으로 밀려 나오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라. {MH 331.2}

술의 영향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사고들을 생각해 보라. 어떤 기차의 승무원은 신호에 유의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명령을 오해한다. 기차가 가는 도중에 충돌 사고가 생겨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혹은 기선이 좌초하여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수장된다. 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이 판명된다. 술을 마시는 습관이 어느 정도이면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만 맡길 수 있다. {MH 331.3}

약한 알콜 음료

부자연한 자극물을 요구하는 식욕을 유전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포도주나 맥주나 사이다같은 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나 저희 손에 닿는 곳에 결코 두지 말 것이다. 이것이 항상 그들에게 유혹이 되기 때문이다. 단 맛이 있는 사이다는 해가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것을 산다. 그러나 그 단 맛은 잠간 동안 가다가 그 후에는 발효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발효할 때에 생기는 쏘는 맛이 오히려 많은 사람의 입에 더욱 맛있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를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시어졌거나 또는 발효하였다고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MH 331.4}

비록 보통 생산되는 맛좋은 사이다(사과즙)일지라도 이를 사용함은 건강에 해를 줄 위험이 있다. 만일 사람들이 저희가 사는 사이다에 관하여 현미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마시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흔히 팔기 위하여 사이다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 사용하는 사과의 상태에 대하여는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벌레 먹고 썩은 사과가 즙을 짜는데 사용된다. 유독하고 썩은 사과를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 데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과로 만든 사이다를 마시면서 이것을 별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미경은 이 맛좋은 음료가 비록 사과를 짜는 압착기에서 나올때, 곧 신선한 때에라도 음료로 사용하기에 전혀 합당치 않음을 보여준다. {MH 332.1}

강한 독주로 말미암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주, 맥주, 사이다로 말미암아서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음료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한 음료에 대한 구미를 일으키므로 그것으로 음주의 습관이 이루어진다. 적당하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거기서 사람이 술 마시는 이력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학교가 된다. 그럴지라도 이 연한 자극물들의 작용이 너무나도 교활하여서 그 희생물이 된 자가 자기의 위험을 알아채기도 전에 주객의 대로(大路)에 들어서게 된다. {MH 332.2}

실제로 음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약한 알콜의 영향을 언제나 받고 있다. 그들은 열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균형을 잃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걸어간 나머지 마침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원칙을 희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가장 강한 결심은 서서히 약화되고, 가장 높은 동기는 타락한 식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두기에 충분치 못하다. {MH 332.3}

성경에는 한 군데도 취하게 하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승인한 곳이 없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그것은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사 65:8)고 한 새 포도즙이었다. {MH 333.1}

구약성경에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잠 20:1)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친히 그런 음료를 만들지 않으셨다. 사단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하된 본성을 제어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을 결코 제공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전 생애는 극기의 모본이 되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가장 혹심한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은 곧 식욕의 힘을 깨뜨리기 위함이었다.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와 비슷한 절제 생활을 하라고 분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훈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혼인 잔치에 모인 손님들을 위하여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주와 당신의 제자들이 첫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즙이었다. 이것이 성찬식에서 구주의 피의 상징으로 항상 사용되어야 할 포도즙이다. 이 거룩한 성례전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죄악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MH 333.2}

성경과 천연계와 이성이 마취제에 관하여 가르치는 빛에 비추어 볼 때에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맥주를 만드는 호프 재배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시장에 내기 위하여 포도주나 과실주를 제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만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이웃의 길목에 올무가 되는 것을 설치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겠는가? {MH 333.3}

부절제는 흔히 가정에서 시작된다. 양분은 많으나 건강에 좋지 못한 식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소화기관을 약하게 하여서 한층 더 자극성을 가진 음식을 요구하게 만든다. 이리하여 식욕은 계속적으로 더욱 자극이 강한 것을 갈망하도록 길들여진다. 자극성 식물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제재하기가 더욱 곤란해진다. 조직이 약간의 독소로 채워지고 쇠약하여지면 질수록 자극성 식물의 욕구는 더욱 커진다. 그릇된 방향으로 디딘 한 걸음은 둘째 걸음의 길을 예비한다. 자기들의 식탁에 어떤 종류의 포도주나 술을 올려 놓는 죄책감을 지니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독주를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아 시험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먹고 마시는데 대한 그릇된 습관은 건강을 파괴하고 음주의 길을 예비한다. {MH 334.1}

사회를 구성하고 꼴지워 나갈 청년들에게 절제에 대한 바른 원칙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미구에 금주운동에 대한 필요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가족끼리의 단란한 분위기에 부절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유아기부터 원칙을 따르도록 가르침으로 그들은 성공을 희망하게 될 것이다. {MH 334.2}

자녀들이 바른 습관과 순수한 식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어머니들의 과업이다. 자녀들의 식성을 길들여서 자극성들을 싫어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죄악을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갖도록 그대의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대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흔들리거나 세찬 나쁜 감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도록 가르치라. {MH 334.3}

부절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향되지 못한다. 절제 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건강적인 식품, 양념, 차, 커피를 사용함으로 생기는 해로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절제 운동가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투쟁하고 있는 해로움의 원인을 보다 깊이 통찰하고 개혁에 있어서 언행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MH 334.4}

지력과 도덕력의 올바른 균형이 육체의 건강에 큰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육체의 체질을 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모든 마취제와 비정상적인 자극성 식물은 지적 및 도덕적 상태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부절제는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를 놓는다. 왜곡된 식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유혹을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다. {MH 335.1}

절제 개혁자들은 사람들을 이 방면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쇠잔한 기력을 자극하여 비정상적인 발작적(發作的)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성 식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품성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MH 335.2}

엽차, 커피, 담배, 알콜성 음료 등에 대한 유일의 안전책은 그것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는 것이다 엽차, 커피, 또는 그와 비슷한 음료는 알콜성 음료와 담배의 경향과 같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그 습관을 깨뜨리는 것이 마치 술꾼이 술을 단념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러한 자극물들을 끊으려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 어떤 것을 잃은 것같이 느낄 것이며 그것들이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인내로 그 갈망을 이기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신체가 받고 있는 학대에서 회복하는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지면 체력이 다시 힘을 얻어 자기 직무를 고상하게 그리고 만족할 만하게 수행할 것이다. {MH 335.3}

27장 주류 판매와 주류 양조 판매 금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네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람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렘 22:13-17). {MH 337.1}

주류 판매업자의 일

이 성경절은 술을 제조하는 자와 파는 자들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영업은 강탈이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돈에 상당한 유익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들이 버는 모든 돈은 소비자에게 저주를 안겨 준 것이다. {MH 337.2}

하나님께서는 관대한 손길로 당신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만일 그분의 선물이 현명하게 사용되었을 것같으면 이 세상의 궁핍과 고통을 얼마나 적게 깨닫게 되었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꾼 것은 사람들의 죄악이다.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주어진 곡식과 과실들이 불행과 멸망을 가져 오는 독소로 바뀌는 것은 탐욕과 식욕의 방종 때문이다. {MH 337.3}

해마다 수백만 갤론의 술이 소비되고 있다. 불행과 궁핍과 질병과 타락과 번뇌와 범죄와 죽음을 초래하는 데 수백만 불의 돈이 사용된다. 주류 판매업자는 수입을 위하여 그의 희생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고 파멸케 하는 것을 팔고 있다. 그는 주정뱅이의 가정에 궁핍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 {MH 338.1}

그의 희생자가 죽어도 주류 판매업자의 강탈행위는 그치지 않는다. 그는 과부를 약탈하고 어린이들을 거지로 만든다. 그는 남편과 아버지의 술값을 받고자 빈곤한 가정에서 생계에 필수적인 것마저 빼앗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고민하는 어머니의 눈물은 오직 그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은들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한 그들이 타락과 멸망으로 빠져 들어간들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는 자기가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연명할 양식으로 재물을 늘여간다. {MH 338.2}

사창가, 죄악의 소굴, 형사법정, 형무소, 구호소, 정신병자 요양원과 병원 이 모든 곳들은 대부분 술장사의 활동의 결과로 만원이 된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신비한 바벨론처럼 술장사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을" 매매하고 있다. 술장사의 뒤에는 무서운 영혼의 파멸자가 서 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자기의 지배 하에 넣기 위하여 이세상이나 지옥이 창안해 낼 수 있는 모든 술책을 다 쓰고 있다. 도시와 시골에도, 달리는 열차 안에도, 큰 기선 안에도, 영업장에도, 환락의 연회장에도, 의료시설에도, 심지어는 교회의 신성한 성찬 상 위에까지도 그의 덫이 놓여 있다. 마취성 음료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고 조장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사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골목마다에 영롱한 불빛을 발하는 술집이 서 있어서 환영과 즐거운 기분으로 노동자와 돈 많은 게으름뱅이와 그리고 순진한 젊은이들을 유인한다. {MH 338.3}

구내 식당에서, 상류 사교장에서 숙녀들에게 알콜성 음료들이 어떤 유쾌한 이름 아래 제공되고 있다. 환자와 피로한 자들에게 알콜성이 많이 함유된 "비털즈"(Bitters,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일종의 연한 알콜성 음료의 통칭 — 역자주)가 널리 선전되고 있다. {MH 338.4}

어린이들에게 술맛을 길러 주기 위하여 과자류에 알콜을 섞는다. 그런 과자류가 가게에서 팔린다. 이런 과자류의 선물로 술장사는 아이들을 자기의 유흥장으로 유인한다. {MH 339.1}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이 활동은 계속된다. 국가의 간성이요 희망과 자랑인 아버지와 남편과 형제들이 계속하여 술장사의 소굴로 들어갔다가 불쌍한 폐인이 되어 나온다. {MH 339.2}

한층 더 두려운 것은 이 저주가 바로 가정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이 음주의 습관을 기르고 있다. 많은 가정에 있어서 어린 자녀들, 심지어 천진난만하고 전적으로 돌봐야 할 영아들까지도 술취한 엄마의 등한함과 학대와 비열한 활동으로 날마다 위협받고 있다. 아들과 딸들이 이런 무서운 죄악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고 있다. 그들의 장래가 그들의 부모들보다 저열한 지경에 빠지는 것 밖에 무슨 전망이 있겠는가 ? {MH 339.3}

소위 그리스도교국에서부터 이 저주가 우상숭배하는 이교 지역으로 퍼져 나간다. 가련하고 무지한 야만인들이 음주를 배운다. 이교도들 중에서도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무서운 독성을 인식하고 반대한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를 이 참화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간다. 문명인들에 의하여 담배와 술과 아편이 이교국들에게 강매된다. 야만인의 걷잡을 수 없는 정욕이 술의 자극을 받아 미증유의 타락에 빠지게 하므로 이런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거의 희망없는 처사가 되고 만다. {MH 339.4}

이교국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 줄 책임을 가진 국민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모든 부족과 인종의 파멸을 초래할 악습을 전수한다. 이로 인하여 지상의 미개한 지방에서 문명국들이 배척을 받는다. {MH 339.5}

교회의 책임

주류사업은 이 세상에서 힘을 떨치고 있다. 그것은 금력과 습관의 힘과 식욕의 힘을 모두 자기 편에 가졌다. 그 세력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직접 혹은 간접적인 술장사로 돈을 벌은 사람들이 "본분을 다하는 좋은 교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 중에 믿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자선사업에 많은 돈을 희사한다. 그들은 교회의 사업을 유지하고 사역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헌금한다. 그들은 그들이 과시하는 금력에 존경을 표해 주기를 요구한다. 그런 교인들을 용납하는 교회는 사실상 술장사를 지지하는 셈이다. 목사들이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는 그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술장사의 사업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지 않는다. 그가

솔직히 말하다간 회중의 비유를 거스려서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의 월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MH 340.1}

그러나 교회의 심판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 4:10)고 첫 살인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술장사의 예물을 당신의 제단 위에 올려놓도록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희사금이라는 가면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신다. 그들의 돈은 피로 더러워져 있다. 그 돈에는 저주가 있다. {MH 340.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 오지 말라 ...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장 11-15절) {MH 341.1}

술주정뱅이도 더욱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올무를 놓고 그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에 불쌍한 피해자들은 그들에게 탈취당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술꾼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은 자들의 손에서 그 댓가를 요구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께서는 술취하게 되는 최초의 원인과 최후의 결과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신다. 참새를 돌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틀림없이 유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불행을 지속시키는 이 죄악을 주목하신다.* {MH 341.2}

세상과 교회는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수치와 타락의 길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끌어간 사람에 대하여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목하시고,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 술장수는 세상에서 좋은 직업으로

불리어질 수 있지마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화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주류판매로 세상에 초래된 절망과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다. 그는 양식과 의복과 주거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모든 희망과 기쁨을 매장당한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궁핍과 불행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채 생애를 마친 영혼들에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업을 통하여 술장사의 일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그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고 말씀하신다. {MH 341.3}

주류 판매 허가에 관한 법률

많은 사람들은 주류판매 허가제도가 음주의 폐해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여 이를 옹호한다. 그러나 주류 거래를 허가하는 자체가 이를 법률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다. 정부가 이것의 존재를 승인함으로 겉으로는 제한한다면서 실은 폐해를 조장하고 있다. 허가법의 보호 하에 맥주와 소주와 포도주 양조장들이 전국 각처에 설립되고 술장수들은 우리의 바로 옆 집에서 영업을 열심히 벌인다. {MH 342.1}

때때로 취객에게나 알콜 중독자로 확인된 자에게는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청년들을 술꾼으로 만드는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 시절에 술맛을 들이게 하는데에 그 영업의 생명이 달려있다. 청년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려 가서 마침내 주벽이 형성되어 어떠한 희생이라도 불구하고 욕구 충족만을 요구하는 갈망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의 꽃다운 청년들이 이 무서운 습관으로 말미암아 파멸로 유인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왕에 대부분의 경우 파멸이 결정적인 중독자에게 술을 허락하는 편이 덜 해로울 것이다. {MH 342.2}

주류판매를 허가하는 까닭에 개혁하고자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된다. 부절제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식욕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고귀한 사업이다. 그러나 주류판매가 법률로 허가되어 있는 한 부절제한 자들이 알콜중독자 수용소에서 별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수용소 안에 항상 수용되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정 음료에 대한 욕구는 비록 일시 진정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각 방면에서 유혹이 닥쳐 올 때에 그들은 또 다시 희생되기가 일쑤다. {MH 342.3}

사나운 짐승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짐승의 성질을 알고도 그것을 풀어 놓으면 그 주인은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그 짐승이 저지른 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언명하시기를 사나운 줄로 아는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임자의 생명으로써 자기의 부주의 혹은 악의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주류판매를 허가해 준 정부가 술거래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나운 짐승을 풀어 놓는 행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된다면 술장사의 영업을 허가해 준 죄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MH 343.1}

국고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구실 하에 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주류판매의 결과로 발생된 범죄 사건과 정신병자들과 구호 대상자들을 위하여 지출되는 엄청난 비용과 비교한다면 과연 그까짓 주세 수입에 비길 수가 없다.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는 법정에 구인(狗引)된다. 그리하여 주류판매를 합법화해 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처사의 결과들을 심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멀쩡한 사람을 미치광이가 되게 하는 술을 팔도록 허가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득불 그 희생자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 짐이 되도록 비참하게 버려둔 채 그들을 감옥이나 교수대로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MH 343.2}

이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영업을 용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인가! 그뿐 아니라 어떤 주세 수입이 인간의 이성을 상실케 한데 대하여,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타락시킨데 대하여, 그리고 어린이들의 앞날을 망쳐서 도움이 요구되는 빈민의 처지로 전락시키고, 술고래 아버지의 죄악적인 기질을 영구히 물려받게 되는데 대하여 능히 변상할 수 있겠는가? {MH 344.1}

주류 양조 판매 금지

술을 마시는 습관이 형성되어 버린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그의 두뇌는 병들고 그의 의지력은 약화되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그의 식욕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극기하도록 설득시키거나 권면하여 듣게 할 수도 없다.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술을 끊기로 결심할지라도 또 다시 술잔을 잡게 되고,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게 되면 모든 좋은 결실은 무너지고 굳은 의지력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생각은 사라진다. 상심한 아내도 잊어버린다. 타락한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이 영업을 합법화함으로써 법률은 영혼의 타락을 승인하고 세상을 죄악으로 채우는 거래를 금지시키기를 거부하고있다. {MH 344.2}

이런 일이 언제나 계속되어야만 하겠는가? 저희 앞에 유혹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사람들은 항상 승리를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는가? 부절제의 저주가 문명 세계를 좀먹는 고질병으로서 영원히 남아있어야만 하는가? 이 저주가 마치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불처럼 매년 행복한 무수한 가정들을 계속적으로 파멸시켜야만 하는가? 해안에서 보이는 곳에서 배가 파선된다면 사람들은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녀들을 수장(水蔣)의 위기에서 구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술고래가 당할 운명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 더욱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겠는가! {MH 344.3}

술장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는 이들은 술꾼들의 가족뿐이 아니며, 또한 무거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 주류판매가 사회에 끼치는 주요 해독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인류라는 피륙으로 함께 짜여져 있다. 대 인류 가족의 어느 일부에 불행이 일어나면 그 전체가 불행을 겪게 된다. {MH 345.1}

자신의 수익이나 평안을 좋아하여 주류판매를 저지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늦은 다음에야 그것이 자신에게도 큰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식들이 술에 중독되어 망쳐진 꼴을 보았다. 무법천지가 된다. 재산은 위태로와지고 생명은 불안전하다. 바다와 육지의 사고는 격증한다. 더럽고 비참한 빈민굴에서 번식된 각종 질병이 당당하고 호화로운 가정으로 침입해온다. 방탕하고 불량한 아이들에 의하여 자행되던 악행이 세련되고 교양 있는 가정에 전염된다. {MH 345.2}

그의 이익이 주류판매 행위로 위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친히 주류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나서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MH 345.3}

세속적 이익만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어떤 곳보다 국회와 법원은 부절제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지사들,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판사들,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다루는 사람들, 동료인간들의 생명과 안녕과 재산을 좌우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절제를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들의 정신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리만큼 명석해질 수 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확고한 원책을 가지며, 공정하게 행정하고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기록은 어떤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가?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한 술을 마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있는가! 술을 마시는 입법자들, 증인들, 배심원들, 변호사들, 심지어 판사들의 불의 때문에 가혹한 법률들이 얼마나 많이 제정되며, 얼마나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MH 345.4}

"그들은 화 있을진저 ...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사야 5장 22-24절 {MH 346.1}

하나님의 영광과, 국가의 안정과,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안녕은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부절제의 폐해를 대항하여 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머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채 보지 못하는 이 무서운 죄악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이 파멸시키는 사업을 저지시키는 일에 단호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가? 이제 싸움은 겨우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주류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한 군대를 조직하자. 주류판매 행위로 말미암는 위험들을 명백히 공개하여 그것의 금지를 요구하도록 여론을 일으키라. 술에 미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게 하자. 국민의 총의로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거래를 폐지시키도록 요청하라. {MH 346.2}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잠언 24장 11, 12절, 예레미야 13장 21절 {MH 346.3}

6편 가 정

28장 가정관리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과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잠 4:23)은 심장이며,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있다. {MH 349.1}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가치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고 스승이 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정에 속한 한 식구로 지내셨다. 그 기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큰 이적들도 없었고 열광적인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다니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들 중의 한 사람처럼 가정생활에 동참하고, 가정의 훈계를 받고, 가정 의무를 이행하고,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셨다. 비천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그분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었다(눅 2:52). {MH 349.2}

그처럼 조용히 지내는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도움의 물결이 흘러나왔다. 그분의 유용성과 꾸준한 인내, 그분의 용기와 성실, 유혹에 대한 그분의 저항, 그분의 항구적인 평안과 조용한 기쁨등은 끊임없는 격려가 되었다. 그분께서는 순결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가정으로 가져오셨고, 그분의 생애는 사회에서 작용하는 누룩과 같았다.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치료해주고 생명을 주는 사랑의 힘이 그분께서 나와서 시험받는 자들, 병든자들, 낙담한 자들에게로 전달되었다. 그분께서는 매우 어릴 때부터 침착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공중 봉사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MH 350.1}

구주의 초기의 생애는 청년들에게 하나의 모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며, 모든 부모에게 격려가 되어야 한다.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동료 인간들의 향상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동해야 할 바로 첫째 분야이다. 가정의 설립자와 보호자에게 위탁된 활동보다 더 중요한 분야의 활동은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업보다 더 위대하고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치는 사업이 인간에게 위탁된 적은 없다. {MH 350.2}

오늘날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에 의하여 사회의 장래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가정에 의존될 것이다. 인류를 저주하는 질병과 불행과 범죄의 대부분은 올바른 가정 교육의 결핍에서 기인될 수 있다. 만일 가정 생활이 순결하고

진실하였을 것같으면, 그리고 가정의 보호를 받고 나간 어린이들이 생애의 책임과 위험을 감당하리만큼 준비를 갖추었을 것같으면, 어떤 변화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것인가! {MH 351.1}

악한 습관에 희생된 자들을 개혁하기 위한 사업과 기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과 돈과 활동을 거의 무제한으로 소모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력까지도 그 큰 필요성을 채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얼마나 미약한가! 영구적으로 개혁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가! {MH 351.2}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갈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습관의 힘을 깨뜨릴 용기와 결심이 부족하다. 그들은 필요한 노력과 투쟁과 희생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생애는 비참하고 파멸적이다. 그리하여 심지어 가장 영리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 원대한 포부와 고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본성적으로나 교육 수준으로 봐서 신임과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들까지도 타락하여 현세와 내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MH 351.3}

개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활기찬 기운을 다시 찾는데는 얼마나 쓰라린 고투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망가진 체질, 연약한 의지력, 훼손된 지성, 허약한 정신력 등을 통하여 그들이 뿌린 악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 만일 그 악이 시초에 다루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성취되었을까! {MH 351.4}

이런 일은 대부분 부모에게 달려있다. 사회에서 암처럼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부절제와 그 밖의 악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만일 자녀들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시켜 주는 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였을 것같으면 백 배 이상의 좋은 결과가 생겼을 것이다. 악에 대하여 그처럼 무서운 힘이 되고 있는 습관이 그들의 노력으로 선에 대한 힘으로 바뀌어진다. 그들은 시냇물을 그 근원에서 조종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MH 352.1}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생애의 기초를 놓아 줄 수 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힘과 생애의 어려움을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추어 집에서 내어보낼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 속에 목적 의식을 넣어 주고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만들 능력을 계발시켜 줄 수 있다. 그들은 자녀들의 발이 햇빛과 어두움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로 향하도록 똑바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MH 352.2}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 간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이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감화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진다. {MH 352.3}

우리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교적 접대는 세상의 관습을 그대로 따름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축제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을 조력하는 사람이거나 종교 지도자와 전도자이거나를 막론한 레위인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손님으로 인정되어 모든 경우의 사회적 혹은 종교적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 병이 들거나 어려울 때는 친절하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가정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이 영접해 줄 때 흔히 집이 없이 가난과 많은 실망으로 고투하고 있는 선교사 간호원과 교사, 걱정에 눌리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어머니, 연약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MH 352.4}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눅 14:12-14). {MH 353.1}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대에게 큰 짐을 지워 줄 손님들이 아니다. 그대는 공을 많이 들이거나 비용을 많이 써서 그들을 접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대는 겉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하고, 화롯가에 같이 앉고, 가족들과 같이 앉아 식사를 나누고, 기도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 축복을 나누는 특권을 가짐으로써 그와 같은 믿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이다. {MH 354.1}

우리의 동정은 자신의 영역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가야 한다. 자기의 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감화를 주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따르게 된다.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MH 354.2}

우리의 가정들은 시험당하는 젊은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기로(岐路)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모든 감화력과 인상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의 그들의 운명을 꼴지워 주는 길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악은 그들을 손짓하고 있다. 악의 장소는 찬란하고 매력적이다. 거기에 가는 자들은 누구나 환영을 받는다. 우리의 주위에는 가정이 없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가정이 도움이 못되고 향상의 능력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그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다. {MH 354.3}

이런 젊은이들은 그들을 향하여 뻗어 주는 동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하는 친절한 말,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적은 관심은 심령에 덮여 있는 유혹의 구름을 제거해 줄 것이다. 하늘에 속한 동정의 진정한 표현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의 향기와 단순하고 섬세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의 접촉을 요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보여 주기를 원하면 그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하여 유쾌하고 유익한 감화력으로 그들을 둘러 싸주라. 그리하면 그들의 발을 기꺼이 향상의 길로 돌이킬 사람들이 많이 있다. {MH 354.4}

생애의 기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우리는 다만 한 번만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생애를 가장 잘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절하고 자아희생적인 정신과 확고한 목적을 요구한다. 아무리 작은 등불일지라도 그것이 꾸준히 켜져 있는 동안에는 많은 다른 등을 밝혀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좁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재능이 적고, 우리의 기회가 많지 못하고, 우리의 학력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충실히 이용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결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치유의 물결이 흘러나와 오늘날 불모(不毛)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과 미와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MH 355.1}

29장 가정 건설자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분께서는 혼인 잔치에서 당신의 첫 이적을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잔치 자리에서 당신의 공중 봉사를 시작하셨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을 당신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인정하심으로 그

결혼을 시인하셨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MH 356.1}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다(아 4:7). {MH 356.2}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엡 5:25-28). {MH 356.3}

가족의 유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긴밀하고 신성하다.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 서약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혼에 따르는 책임이 정당하게 고려되어 성립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축복이 된다. {MH 356.4}

결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울 가정의 성격과 감화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부모가 되면 하나의 신성한 위탁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자녀들의 복리와 장차 올 세상에서의 그들의 행복의 대부분이 부모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들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어린 자녀들이 받는 육체적 특성과 도덕적 특성을 다 같이 결정해 준다. 그리고 가정의 성격에 사회의 상태가 좌우된다. 각 가정의 감화의 무게는 사회라는 저울추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말해 줄 것이다. {MH 357.1}

일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복리를 얻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이 그들의 동료 인간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MH 357.2}

결혼 생활에 속한 책임을 지기 전에 젊은 남녀들은 그 의무와 부담을 감당하리 만큼 실생활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조혼(早婚)이 권장되어서는 안된다. 결혼과 같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치는 관계를 조급하게, 충분한 준비없이,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맺지 말 것이다. {MH 358.1}

상대자들은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건강의 축복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연령상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나이 어린 편의 건강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흔히 자녀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게 된다. 그들은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그들의 어린 시절에 필요한 보호와 교제를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사랑과 지도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MH 358.2}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사상은 가장 밀접한 그 연합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MH 358.3}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중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MH 358.4}

결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애의 운명을 같이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낱낱이 헤아려 보고 성품의 발로를 하나 하나 관찰해 보아야 한다. 결혼관계에 이르는 모든 계단은 겸손, 단순, 성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 등으로 특징이 지어져야 한다. 결혼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막론하고 여생에 영향을 준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실 수 없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MH 359.1}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들의 충고를 구하라. 그대들의 희망과 계획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인생 경험에서 습득한 교훈을 배우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많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그대들의 고문으로 모시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라.* {MH 359.2}

그와 같은 지도 아래 젊은 여자는 순진하고 남성다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 부지런하고 진취성이 있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만을 생애의 반려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 남자는 그의 곁에서 생애의 짐을 같이 지기에 적합한 여자, 그의 감화력이 자기를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해 줄 여자, 그의 사랑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 줄 여자를 찾아야 한다. {MH 359.3}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와 같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잠 19:14, 31:11, 12, 26-29; 18:22). {MH 359.4}

아무리 신중히 또한 현명하게 결혼이 이루어질지라도 결혼 예식이 거행되는 당시에 완전히 연합되는 부부는 별로 없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연합은 후년에 이루어진다. {MH 359.5}

근심과 걱정의 짐을 가진 생활이 신혼부부에게 닥쳐 오면 흔히 결혼생활에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로맨스는 사라진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전에 가졌던 교제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피차의 성격을 알게 된다. 그런 때는 그들의 경험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들의 미래의 전 생활의 행복과 유용성은 지금 그들이 바른 노선을 취하는데 달려있다. 때때로 그들은 피차에 생각지 않았던 약점과 결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연합된 마음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장점들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흔히 우리 자신의 태도와 우리 주위에 있는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사랑의 표현을 연약함의 증거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와 같은 정신은 동정의 물결이 흘러오지 못하게 한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마음의 충동이 억제될 때, 마음은 시들어지고, 황폐하고, 냉랭해진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 그대들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MH 360.1}

비록 곤란과 어려움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의 어느 한 편에서 그들의 결혼이 잘못되었다거나 실패라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도록 하라. 피차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라. 항상 사전에 주의할 것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생애의 투쟁에 피차 용기를 주라. 피차의 행복을 증진시킬 길을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라.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온기(溫氣)와 마음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 준다. {MH 360.2}

모든 가정의 주위에는 결코 침범당해서는 안되는 신성한 영역이 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이 영역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자기들에게만 속한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 {MH 361.1}

부부는 피차에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계발하고, 피차에 좋은 특성을 인정하기에 민감하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준다.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도록 고취시켜 주고, 사랑은 보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을 받을 때 그 자체가 증가된다. {MH 361.2}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성을 상대방의 개성에 결코 흡수시켜서는 안된다. 각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자도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그릇된 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어 보아야 한다. 그대의

애정의 재산을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분에게 쏟아 놓으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으라. 그분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 짐에 따라 그대들 피차 간의 사랑은 순결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MH 361.3}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피차 간에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2, 24, 25). {MH 361.4}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 간에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행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들이 결혼서약에서 실천하기로 약속한 그대로 피차를 행복하게 해 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 {MH 361.5}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얻는 행복

그러나 부부 두 사람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피차 간에 애정을 쏟는 일에 만족함으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라. 진정한 기쁨은 오직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MH 362.1}

인내와 이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사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의 특징이 된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고자 애쓰고, 자아와 이기심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고자 노력할 때 그대들은 승리에서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감화력은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MH 362.2}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조력자로 모시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지혜로써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의 신뢰로써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천부(天賦)의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다. 사랑은 단순히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들을 교환하는 것이 될 수 없다. 하늘의 베틀은 지상의 베틀로써 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오히려 더 튼튼한 날줄과 씨줄을 가지고 베를 짠다. 그 결과는 인조직물(人造織物)이 아니고, 마찰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직물이 된다. 영원히 견딜 사랑의 황금 사슬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될 것이다. {MH 362.3}

화평한 가정은 금보다도 귀하여라. {MH 362.4}

거기는 노변(爐邊)의 자애(慈愛)가 모여든 곳

사랑의 성전(聖殿), 생명의 천국,

어머니나 누나나 아내로 성화(聖化)된 곳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슬픔으로 연단을 받을지라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축복들이

거기 모였으니 금보다도 귀하여라.

— 작자 미상 — {MH 362.5}

30장 가정의 선택과 준비

복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 그 교훈에 유의할 것같으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많은 오류에서 구제받게 될 것이다. 복음은 사물들의 진가(眞價)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해 주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 곧 그 가치가 오랫 동안 존속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다. 이 교훈은 가정을 선택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최고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상(表象)이요 그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예비 학교이며,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 예비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가정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이 목적을 선택의 지침으로 삼으라. 재물에 대한 욕망, 유행의 명령, 사회의 관습 등에 지배를 받지 말라. 단순, 순결, 건강, 진정한 부(富)를 얻는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 {MH 363.1}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죄악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다. 어느 쪽에서나 죄악에 대한 것을 보고 듣게 된다. 어느 곳에나 육욕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유혹들이 있다. 부패와 죄악의 물결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 폭력, 절도, 살인, 자살, 그 밖의 무수한 범죄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MH 363.2}

도시의 생활은 허위적이요 인공적이다. 돈을 벌려는 강한 열망, 흥분과 쾌락을 구하는 소용돌이, 자랑과 사치와 낭비에 대한 욕구 등은 많은 대중으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 그것들은 온갖 악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것들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젊은이들을 엄습하고 있다. {MH 364.1}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공격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유혹 중의 하나는 쾌락을 사랑하는 일이다. 휴일(休日)은 많고, 경기와 경마는 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흥분과 쾌락의 소용돌이는 그들을 꾀어서 인생의 올바른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보다 훌륭한 용도를 위하여 저축되어 있어야 할 돈이 오락을 위하여 함부로 쓰여진다. {MH 364.2}

기업의 활동과 노동조합과 동맹파업의 결과로 도시 생활의 조건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우리 앞에는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 그리하여 많은 가족들은 도시에서 떠나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다. {MH 364.3}

도시들의 물리적 환경은 때때로 건강에 해롭다. 끊임없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더러운 공기, 불결한 물, 부정한 음식, 비좁고 어둡고 비위생적인 주택 등은 직면해야 할 많은 나쁜 조건들 중의 몇 가지이다. {MH 365.1}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어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과 셋집에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를 아름다운 경치와 음향 속에 두셨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에 가까이 접근해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과 심령의 건강을 얻는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더욱 유리해 질 것이다. {MH 365.2}

고가(高價)의 주택, 정성들여 만든 가구, 과시, 사치, 안일 등은 행복하고 유용한 생활의 필수적인 조건들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들이 이룬 적이 없는 최대의 사업을 이루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대사(大使)로서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생활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택해 주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갈릴리 언덕의 한적한 가정,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하게 노동함으로 살아가는 가정, 단순한 생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매일의 노력, 자아희생, 절약, 인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펴고 공부하는 시간, 푸른 산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 천연계의 신비한 구조,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연구, 하나님과의 신령적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주어진 조건과 기회들이었다. {MH 365.3}

그 사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 모세와 다윗과 엘리사의 역사를 읽어 보라. 신임과 책임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치있게 일한 후대의 위인들, 곧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라. {MH 366.1}

그들 중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골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들은 사치에 관하여 별로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청년 시절을 오락으로 허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빈곤과 역경으로 더불어 싸울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하는 것을 배웠고, 옥외에서 전개하는 그들의 적극적인 생활은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에 활기와 힘을 주었다. 그들은 저희 자신의 힘으로 살 수 밖에 없었으므로 모든 어려움과 싸우고 장애를 극복하는 길을 배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용기와 인내력을 길렀다. 그들은 자립(自立)과 자제(自制)의 교훈을 배웠다. 대체로 나쁜 교제를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순수한 기쁨과 건전한 교제로써 만족하였다. 그들은 취미가 단순하였고, 절제의 습관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원칙의 지배를 받아, 순진하고 강하고 진실하게 자라났다. 그들이 일생의 사업에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힘, 쾌활한 마음,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악을 저항하는 확고부동한 태도 등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을 위한 적극적인 능력이 되게 하였다. {MH 366.2}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고상한 품성의 선물은 그대가 자녀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될 것이다.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때를 잃기 전에 주의할 것이다. 그들은 가정을 선택함에 있어서 생애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유의할 것이다. {MH 366.3}

인간의 업적만을 볼 수 있는 곳, 보고 듣는 것이 흔히 죄악적인 생각을 일으켜 주는 곳, 소동과 혼란이 피로와 불안을 가져다 주는 곳에 거주하는 대신에, 그대가 하나님의 업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천연계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라. 푸른 들과 숲과 언덕에 눈이 머물게 하라. 도시의 먼지와 연기로 흐려지지 않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도시 생활의 오락과 방탕에서 벗어나 그대의 자녀들과 벗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줄 수 있고, 그들을 성실하고 유용한 생애를 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라.* {MH 367.1}

간소한 가구

우리의 인공적(人工的)인 습관은 우리에게서 많은 축복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유익한 생애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한다. 공들여 만든 값비싼 가구들은 돈뿐만 아니라 그보다 천 배나 더 귀중한 것을 낭비케 한다. 그런 것들은 근심과 수고와 걱정의 무거운 짐을 가정에 끌어들인다. {MH 367.2}

많은 가정, 심지어 수입이 제한되어 있고 가정의 일이 주로 어머니에게 의존되어 있는 가정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가? 가장 좋은 방들은 그 거주자의 수입을 초월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그들의 편리와 안락에 불편을 주고 있다. 거기에는 값비싼 융단, 공들여 만든 조각, 우아하게 장식한

가구, 아름다운 휘장 등이 있다. 탁자와 벽난로 장식과 그 밖의 적당한 공간은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고, 벽들은 그림으로 덮여 있어 보기에 싫증이 나게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간수하고 먼지가 전혀 덮이지 않도록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일과 그 밖에 유행을 따라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습관들은 주부에게 끊임없는 수고를 하게 한다. {MH 367.3}

많은 가정에 있어서 아내와 어머니는 스스로 훌륭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독서할 시간이 없고, 남편의 벗이 되어 줄 시간이 없고, 자녀들의 마음을 길러 주기 위하여 직접 지도할 시간이 없다. 존귀하신 구주와 친밀하고 다정하게 교제할 시간과 장소가 없다. 그는 차츰 차츰 단순한 가정의 일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의 힘과 시간과 흥미는 사용함으로 없어져 버릴 사물에 빼앗겨 버린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거의 손님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상한 생애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귀중한 기회는 이용되지 못한 채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 {MH 368.1}

가정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더욱 현명한 계획을 따라 생활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그대의 첫째 목적으로 삼으라. 수고를 감소시키고 건강과 안락을 증진시켜 줄 설비를 갖추고자 작정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도록 명령하신 손님들, 곧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말씀하신 손님들을 대접할 계획을 세우라. {MH 369.1}

그대의 가정을 평범하고 단순한 것들, 오래 쓸 수 있고 청소하기 쉽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대치할 수 있는 것들로 꾸미라. 만일 사랑과 만족감만 있으면 그대는 취미를 계발시킴으로써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매우 단순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MH 370.1}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미(美)로써 옷 입히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그분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즐거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연계의 사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둘러싸기를 원하신다. {MH 370.2}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거의 모두가 조그마한 잔디밭과 몇 개의 나무 그늘과 꽃피는 떨기나무와 향기를 풍기는 화초들을 그들의 가정의 주위에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인공적인 장식보다 훨씬 더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것들은 가정생활에 부드럽고 고상하게 하는 감화력을 가져다 주고, 천연적인 미를 더욱 좋아하게 해 주고, 가족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 줄 것이다. {MH 370.3}

31장 어머니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성벽(城壁)은, 혹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생된다. {MH 371.1}

목적이 고상하면 할수록, 도덕적 영적 능력이 크면 클수록, 부모의 체력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생활 여건을 주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계발함으로 사회를 꼴짓고 후대를 향상시키는 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MH 371.2}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노리고 있는 올무들로 가득 차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요 관능적인 쾌락에 속한 생활에 매혹되고 있다. 그들은 행복된 길처럼 보이는 앞 길에 숨겨져 있는 위험과 무서운 종말을 볼 수 없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정력은 낭비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의 멸망을 받고 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를 해산하기 전일지라도 그 아이가 악을 대적하는 싸움을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MH 371.3}

특별히 어머니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다. 자기의 생명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육체적 조직을 형성시켜 주는 어머니는 마음과 품성을 꼴지워 주는 정신적 영적 감화력도 또한 나누어 주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를 낳은 히브리인 어머니 요게벳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는(히 11:23)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늘에서 지시한 아들이요 결백한 사사이며 이스라엘의 선지자 학교를 설립한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와 자아희생을 실천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여자 한나였다. 구주의 선구자의 어머니는 나사렛 마리아의 친척이며 그와 같은 심정을 가졌던 엘리사벳이었다 {MH 372.1}

절제와 자제

성경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습관을 주의 깊이 잘 지켜야 할 것에 관하여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려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그의 습관과 또 그 아이를 기르는데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 사자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하였다(삿 13:13, 7). {MH 372.2}

태아기(胎兒期)에 받는 영향을 많은 어버이들이 그리 중요치 않은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마는 하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두 번씩이나 분부한 그 기별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보여 준다. {MH 372.3}

히브리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신다. 천사는 "그가 삼가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고 말했다(삿 13:13, 14). 자식의 복리는 어머니의 습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어머니의 식성과 감정은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만일 어머니가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어떤 것은 끊어야 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금해야 할 것도 있다. 만일 어린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거나 이기적이고 조급하며 흥분적이면 그런 기질들이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자녀들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악의 성향(性向)들을 상속물로 물려받았다. {MH 372.4}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확고하게 바른 원칙들을 따르고, 절제하고 극기하면, 또한 그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타적이면, 그는 그와 같이 고귀한 모든 품성의 특성들을 아기에게 물려 줄 수 있다. 어머니가 술을 금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은 매우 분명하다.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가 마시는 한 방울 한 방울의 술은 그의 아기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위협하며, 그것은 또한 창조주께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일이다. {MH 373.1}

많은 사람들은 아기 어머니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만일 그가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지, 비록 그것이 해로운 것일지라도, 먹고자 하면 그의 식욕대로 먹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충고는 거짓되고 해로운 것이다. 어머니의 육체적 요구는 어떤 경우에든지 등한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두 생명이 그에게 의존되어 있으므로 그의 요구는 친절하게 돌봐 주어야 하고 그의 필요는 너그럽게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느 때보다 이 때는 식사나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을 따라 그는 자제를 실천할 가장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MH 373.2}

과 로

어머니의 체력은 고이 간수되어야 한다. 그의 귀중한 체력을 힘든 노동에 소모하는 대신에 그의 수고와 노력을 덜어 주어야 한다. 때때로 남편과 아버지된 사람이 그의 가족의 복리를 위하여 알아야 할 육체의 법칙을 모르고 있다. 생활 경쟁에 열중하거나, 재산을 모으기에 몰두되어 걱정과

근심에 눌린 나머지, 그는 아내와 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그 가장 위험한 시기에 힘에 겨울 뿐만 아니라 허약과 질병의 원인이 될 짐을 지도록 허용한다. {MH 373.3}

많은 남편과 아버지는 충실한 목자의 사려 깊은 태도에서 유력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야곱은 신속하고도 힘든 여행을 하라는 독촉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MH 374.1}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보행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 가리이다"(창 33:13, 14). {MH 374.2}

인생의 고된 여로(旅路)에서 남편과 아버지는 동행 중에 있는 일행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인도할 것이다. 재산과 권력을 구하여 급속히 달려가는 세상의 경주에서, 그는 발을 멈추고 자기 곁에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MH 374.3}

괘 활

어머니는 괘활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기질을 계발해야 한다. 이 면에서의 모든 노력은 자녀들의 육체적 건강과 도덕적 품성에서 풍성하게 보답될 것이다. 괘활한 정신은 그의 가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 자신의 건강을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 준다. {MH 374.4}

남편은 동정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의 아내를 도와 주어야 한다. 만일 그가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 줌으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 남편의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아내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가 나누어 주는 행복은 그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 {MH 374.5}

얼굴을 찌푸리고 이기적이고 횡포한 남편과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구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져 주게 된다. 그는 자기의 냉랭한 기질 때문에 아내가 낙담하고 기진해지며,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목격하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MH 374.6}

어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위로를 박탈당하고, 과로로 인하여 혹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힘을 다 써 버리게 되면,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물려 받아야 할 생활력과 정신적 활기와 괘활한 성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생애를 밝고 즐겁게 해 주는 곤란과 힘든 활동과 심한 걱정을 면하게 하여 줌으로 아이들이 건전한 신체를 이어 받아 그들 자신의 강한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MH 375.1}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과 책임은 막중하다.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교육 방법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감화는 아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지게도 해 주고, 버리게도 할 것이다. {MH 375.2}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특권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므로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감사하고 존경하게 해 주는 부모, 친절과 공의와 인내로써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알려 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줌으로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선물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부모는 각 시대의 어떤 재물보다 더욱 귀중한 보배,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에게 준 것이다. {MH 375.3}

모든 어머니는 그 자녀를 돌볼 신성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 이 딸을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양육하여 그들에게 궁전의 식량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품성을 주어 주님의 전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MH 376.1}

어머니의 일은 흔히 그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처럼 보인다. 그것은 별로 알아 주지 않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별로 알아 주지 아니한다. 그는 매일 꾸준한 노력과 자제와 기지(機智)와 지혜와 자아희생적 사랑이 요구되는 적은 의무들을 되풀이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가 한 일을 어떤 큰 업적처럼 자랑할 수도 없다. 그는 집안의 일들이 잘 돌아가도록 일을 처리한데 불과하다.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들에게 일을 주어 즐겁게 해 주고, 어린 아이들의 발길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애를 썼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늘의 천사들은 수고에 지쳐 있는 어머니를 돌봐 주고 그가 매일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시한다. 그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MH 376.2}

어머니에게 주어진 기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영광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는 충실한 어머니 위에 머무르고 있다. 어떤 사업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사업과 비교될 수 없다. 그는 화가와 같이 화폭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며, 조각가처럼 대리석을 아로새기지 않는다. 그는 저술가처럼 고상한 사상을 힘 있는 말로 나타내지 않으며, 음악가처럼 아름다운 감정을 음률로 표현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의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발시켜 주는 일이다. {MH 377.1}

그 사실을 이해하는 어머니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한없이 귀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품성과 교육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최고의 이상을 제시해 주고자 열렬하게 노력할 것이다. 그는 열렬하고, 끈기 있고 용감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정신력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진지하게 자문할 것이다.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날마다 되풀이되는 평범한 수고와 의무를 감당하는 매일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진실한 생애를 반영하는 참된 생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MH 378.1}

32장 자 녀

히브리의 부모에게 주어진 천사의 교훈에는 어머니의 습관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이 삼손은 훌륭한 천품(天稟)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 선천적 능력에 주의 깊은 교육이 수반되어야 했다. 그는 유아시절부터 엄격한 절제의 습관을 따라 양육받아야 할 것이었다. {MH 379.1}

침례 요한에 관해서는 유사한 교훈이 주어졌다. 그 아이의 출생 전에 하늘에서 그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이 왔다. {MH 379.2}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안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눅 1:14, 15). {MH 379.3}

위대한 사람들에 관한 하늘의 기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구주께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에게 위탁된 사업은 육체적 능력과 인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자격이 요구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위한 준비로서 올바른 육체적 훈련이 그처럼 중요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천사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줄 교훈의 기별을 가지고 파견되었다. {MH 379.4}

히브리인의 자녀들에 관한 지시는 자녀의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마음과 품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MH 380.1}

아이들의 조기교육(早期教育)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칠 수가 없다. 영아기와 유년기에 배운 교훈과 형성된 습관은 후년의 모든 교훈과 훈련보다도 품성 형성과 생애의 방향 설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된다. {MH 380.2}

부모들은 그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튼튼하게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들은 인체의 기관들에 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기능과 그 기관들의 상호 의존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정신이 육체적 능력에 미치는 관계와, 그 둘이 상호간에 건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준비가 없이 부모의 책임을 맡는 것은 죄악이다. {MH 380.3}

심지어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나라들에서까지도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사망과 질병과 퇴화(退化)의 원인들에 관하여 너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인류는 저하되어가고 있다.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영아기에 죽는다. 장년기에 이르는 남녀들 가운데서도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고생을 당하게 되며,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간의 수한(壽限)을 제대로 누리게 된다. {MH 380.4}

인류에게 불행과 멸망을 초래하는 대부분의 악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며, 그것들을 취급하는 힘은 대부분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다.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상과 하늘을 위하여 유능한 인물로 양성시키고자 그들을 부모들에게 맡기신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노력으로써 자녀들이 타고난 모든 나쁜 조건들을 교정해 주는 일에 힘썼을 것같으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더욱 훌륭한 변화가 생겼겠는가! {MH 380.5}

영아의 보호

아이의 생활이 조용하고 단순하면 할수록 그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발달은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조용하고 정숙하고 침착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유아들은 신경을 흥분시키는데 심히 감수성이 예민하므로 어머니의 부드럽고 침착한 태도가 아이를 유순하게 만들어 주는 일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MH 381.1}

아기들은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지나치게 덥거나 신선한 공기가 매우 부족한 방 안에 두므로 때때로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 아기가 잘 때에 얼굴을 덮어 주는 일은 해롭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자유롭게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MH 381.2}

아기는 신체조직을 약화시키거나 해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아기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간직되도록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다. 아기들은 온도가 갑작스럽게 바뀌거나 크게 바뀌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누워 자거나 깨어 있거나, 낮이나 밤이나 간에,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MH 381.3}

아기의 옷을 준비할 때는 유행이나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보다 편의와 안락과 건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아기의 옷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어머니는 자수(刺繡)나 편물(編物)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되며, 그와 같이 불필요한 노동에 눌려 자기 자신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그는 휴식과 유쾌한 활동이 크게 필요한 때에 눈과 신경을 심히 피로하게 하는 바느질을 하지 말아야 하다. 어머니는 필요할 때에 언제나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 {MH 381.4}

만일 아이의 의복이 따뜻하고 보호에 알맞고 안락할 것같으면, 짜증내고 보채는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를 제거해 줄 것이다. 아이는 더욱 건강하게 되고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기의 건강과 시간에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MH 382.1}

허리띠를 단단하게 졸라매게 되면 심장과 폐의 활동을 방해하므로 그 일을 피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지 신체의 어떤 기관을 압박하거나 그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의복을 입음으로 신체의 어떤 부분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모든 아이들의 의복은 완전히 자유롭고 충분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들고 어깨에 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MH 382.2}

어떤 나라들에는 어린 아이들의 어깨와 사지(四肢)를 맨살로 두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 습관은 아무리 가혹하게 비난을 받아도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사지는 혈액순환의 중심 부분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므로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보호가 요구된다. 피를 몸의 끝부분까지 전해 주는 동맥은 체온과 영양을 공급해 주기에 충분한 분량의 피를 나누어 주리 만큼 크다. 그러나 사지를 보호하지 않거나 충분히 입히지 않으면 동맥과 정맥은 수축되고, 몸의 민감한 부분은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은 방해를 받는다. {MH 382.3}

자라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천연계의 모든 힘을 그들의 체격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지가 충분히 보호되지 아니하면 아이들, 특히 소녀들은 일기가 따뜻한 날 외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추위가 겁이 나서 방안에 갇혀 있게 된다.

아이들을 잘 입히게 되면 그들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밖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MH 382.4}

아들과 딸들이 건강의 힘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은 그들에게 적당하게 옷을 입혀 어떤 계절이든지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한다. 습관의 사슬을 깨뜨리고 건강의 법칙을 따라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을 교육하는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는 충분히 보답될 것이다. {MH 383.1}

아이들의 식사

영아에게 가장 좋은 식물은 천연(天然)이 공급하는 식물이다. 천연이 공급해 주는 식물을 까닭없이 빼앗아서는 안된다. 편의나 사교적 오락을 위하여 어린 자식을 젖먹여 기르는 사랑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무자비한 일이다. {MH 383.2}

자기의 아기를 다른 사람이 길러 주도록 허락하는 어머니는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모는 그 자신의 성질과 기질을 다소 간에 자기가 기르는 아이에게 전달해 준다. {MH 383.3}

아이들에게 바른 식사 습관을 훈련시키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하여도 지나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님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는 영아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이는 다만 정규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그가 자라남에 따라 그 횟수를 줄여야 한다. 아이에게는 단 것이나 소화시킬 수 없는 어른의 식물을 주어서는 안된다. 영아들을 유의 깊고 규칙적으로 먹이는 일은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후년에 그들에게 축복이 될 습관의 기초를 놓아 줄 것이다. {MH 383.4}

아이들이 자라서 영아기를 벗어날 무렵이 되면 그들의 식욕과, 취미를 길들여 주는 일에 여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때로 그들에게는 건강과는 상관없이 먹을 것과 먹을 시간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된다. 불건전한 진미(珍味)에 노력과 금전이 그처럼 흔히 낭비되는 것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장 큰 행복을 이루어 주는 것이 식욕을 만족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은 훈련의 결과로 폭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유해한 약을 복용함으로 얻은 병을 앓게 된다. {MH 384.1}

부모들은 자녀들의 식욕을 훈련시키고 비위생적인 식물을 먹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식사를 조절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맛이 없는 것을 먹도록 강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도록 요구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합리적인 것이면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MH 384.2}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일을 주의 깊이 지킬 것이다. 과자류나 견과나 과실이나 그 밖의 어떤 종류의 식물이라도 간식은 전혀 하지 말 것이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활동을 파괴하고 건강과 활력을 없애 버린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식탁에 앉을 때에 그들은 건강에 좋은 식물을 맛있게 먹지 못한다. 그들의 식욕은 그들에게 해로운 것을 갈망하게 된다. {MH 384.3}

"건강과 행복한 기질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어머니들은 장차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악의 종자를 뿌리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방종도 자라나게 되고,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다 같이 희생하게 된다. 그러한 일을 하는 어머니들은 그들이 뿌린 씨를 쓰라린 경험 중에 거두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고상하고 유용한 일을 하기에 적합지 못한 마음과 품성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 정신적 육체적 힘은 물론이요 영적 힘도 불건전한 식물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는다. 양심은 마비되고 선한 감화에 대한 감수성은 약해 진다. {MH 384.4}

아이들이 식욕을 제어하고 건강에 좋은 것을 먹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경우에 그들은 그들에게 해로운 것만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라. 그들은 더 좋은 어떤 것을 위하여 해로운 것을 버린다.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풍성하게 주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움으로 앉고 싶고 먹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식사시간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보답하도록 하자.* {MH 385.1}

병든 아이들의 간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이들의 질병은 그들을 잘못 취급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불규칙한 식사, 추운 저녁에 충분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것, 건전한 혈액순환을 계속하게 하는 활발한 운동의 부족, 피를 깨끗하게 하는 풍부한 공기의 부족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될 것이다. 부모들은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살펴 보고 할 수 있는데로 빨리 그릇된 조건들을 시정해야 한다. {MH 385.2}

모든 부모들은 질병의 간호와 예방, 또한 치료에 이르기까지 배우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특별히 어머니는 자기 가족의 질병을 취급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는 그의 병든 아이를 취급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의 사랑과 통찰력은 낯선 사람의 손에 쉽사리 맡길 수 없는 그 질병을 그로 하여금 간호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MH 385.3}

생리학의 연구

부모들은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생리학의 공부에 취미를 갖게 하고 그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최선껏 보존하는 방법과, 그들의 능력을 피차 간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이 지식은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 생활과 건강에 관한 것들을 교육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과학 지식보다 더욱 중요하다. {MH 385.4}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 많은 시간을 쓰고 사교를 위하여서는 시간을 적게 써야 한다. 건강 문제를 연구하고, 그대의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건강과 행복을 원하면 그들이 천연의 법칙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대가 바라는 만큼 급속한 발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고 끈기 있게 그대의 사업을 계속하라. {MH 386.1}

그대의 자녀들이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극기와 자제를 실천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에게 천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도록 가르치고 유용한 일에 육체와 정신의 모든 힘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에게 건전한 신체와 훌륭한 덕성을 갖게 하고 쾌활한 마음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도록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눈 앞의 만족을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고 궁극적(窮極的)인 선(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에 새겨 주라. 유혹에 굴복하는 일은 약하고 악한 일이며, 유혹을 저항하는 일은 고상하고 용감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러한 교훈들은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장차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MH 386.2}

무엇보다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위를 기쁨과 친절과 사랑의 분위기로 감싸 주어야 한다. 사랑이 있고, 표정과 말과 행동에 사랑이 나타나는 가정은 천사들이 있기를 좋아하는 장소이다. {MH 386.3}

부모들이여 사랑의 햇빛과 기쁨과 행복한 만족이 그대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 아름답고 즐거운 감화력이 그대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라. 친절하고 오래 참는 정신을 나타내라. 그리하여 꼭 같은 그 정신을 그대의 자녀들도 갖도록 권면하고, 가정 생활을 밝게 해 주는 모든 미덕을 계발시키라. 이와 같이 조성된 분위기는 그대의 자녀들에게 마치 공기와 햇빛이 식물계에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MH 387.1}

33장 가정 감화

가정은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민감하고 부드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시무룩해진다. 어머니들은 부드러운 교훈과 상냥한 언행으로 자녀들을 그들의 마음에 붙들어 맬 수 있다. {MH 388.1}

어린 아이들은 친구를 좋아하고 혼자서는 좀처럼 놀지 않는다. 그들은 동정과 친절을 갈망한다. 그들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가는 것이 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어머니는 비록 자기에게는 사소한 것이지마는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냉랭한 태도로 취급함으로 예민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어머니의 동정과 인정은 귀중하다. 인정하는 표정과 권장하거나 칭찬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햇빛과 같아서 흔히 그들을 하루 종일 기쁘게 해 줄 것이다. {MH 388.2}

어머니는 그들의 소란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들의 작은 소원들 때문에 난처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그에게서 쫓아 버리는 대신에 그들의 활동적인 손과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오락이나 가벼운 일을 계획하라. {MH 388.3}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그들의 오락과 일을 지도하여 줌으로 어머니는 자녀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나쁜 습관을 고쳐 주고 이기심과 감정의 발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해 줄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하는 주의나 견책의 말은 큰 효력이 있을 것이다. 꾸준하고 세심한 사랑으로 그는 자녀들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고, 그들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품성의 특성을 계발시켜 줄 것이다. {MH 389.1}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의뢰심(依賴心)과 자기중심사상(自己中心思想)을 가지고 양육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도록 하라.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자녀들을 스스로 재미있게 놀도록 가르치고 그들 자신의 재간과 기량을 발휘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우 단순한 기쁨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작은 실망과 시련들을 용감하게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소한 고통과 상처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전환시켜 작은 괴로움과 불편을 가볍게 지나쳐 버리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라. {MH 389.2}

그러나 어린이들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많은 걱정에 눌려있는 어머니들은 때때로 그들의 자녀들을 꾸준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쏟을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어린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가정 안에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동정과 친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은 마음과 성품을 다같이 위험하게 만들 다른 방면에서 그것들을 기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한다. {MH 389.3}

많은 어머니들은 시간과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순진한 기쁨을 주는 대신에 바쁜 손가락과 피곤한 눈으로 다만 치장을 위한 일, 기껏해야 그들의 어린 마음에 허영과 사치심만 조장해 줄 어떤 일에 부지런히 열중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장성한 남녀로 자라남에 따라 이러한 교훈들은 자고심(自高心)과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열매를 맺게 된다. 어머니는 자녀의 결점을 슬퍼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거두고 있는 수확이 자기 자신이 심은 씨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MH 389.4}

어떤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취급하는 방법이 일정하지 않다. 어떤 때는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 손해를 입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린이들의 천진한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해 줄 순수한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기쁨과 시련에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셨다. {MH 390.1}

아버지의 책임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아내는 그에게 사랑과 동정을 바라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자녀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녀들의 행복에 어머니와 꼭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부양과 지도를 기대한다. 그는 자기 가정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생활과 감화력과 교제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으로 지배를 받음으로 자녀들의 발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MH 390.2}

아버지는 가정의 입법자(立法者)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가정의 법규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말씀하셨다(창 18:19). 거기에는 악을 제지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잘못이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 두는 편애가 없고, 그릇된 사랑의 요구를 들어주노라고 의무에 대한 확신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교훈을 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르고 공의로운 율법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법칙을

주셨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한 길을 떠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따르도록 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꾸준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억제하고, 그들의 그릇된 경향을 막아야 한다. {MH 390.3}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끈기, 성실, 정직, 인내, 용기, 근면, 실제적 유용성(有用性)등과 같은 엄격한 미덕들을 강요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씩씩한 태도로써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MH 391.1}

그러나, 아버지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 권위에 애정을, 확고한 제지에 친절과 동정을 연합시켜라. 그대들의 여가 시간 중의 얼마를 자녀들에게 바치라. 그들과 친해 지라.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운동에 동참하여 그들의 신임을 얻으라. 그들과 친구가 되되, 특별히 그대들의 아들들과 친구가 되라. 이와 같이 함으로 그대들은 선을 위하여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MH 391.2}

아버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그의 걱정과 사업상 어려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미소를 띄고 유쾌한 말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야 한다. {MH 392.1}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침과 저녁에 가족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 놓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노래를 같이 불러야 한다. 아침에 매일의 업무를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둘러 앉혀 놓고, 하나님께 머리숙여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에 맡겨야 한다. 하루의 수고가 끝난 후에, 가족들은 다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MH 392.2}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일이 아무리 과중할지라도 그대들의 가족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으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가정을 지켜 주도록 기도하라. 그대들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혹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매일 괴로운 일들이 젊은이들과 노년층들의 길을 에워싸고 있다. 인내와 사랑과 기쁨으로 생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자아를 이길 수 있다. {MH 393.1}

가정은 쾌활과 예절과 사랑이 깃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미덕들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지마는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피치 못할 것들이다. 비록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 속에 있는 햇빛이 되게 하라.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한다. {MH 393.2}

남편과 아내는 피차 간의 행복을 연구하고, 생활을 즐겁고 밝게 해주는 적은 예의와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는 일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 앞에서 결코 피차의 계획을 비평하거나 피차의 판단을 의심해서는 안된다. 아내는 남편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그에게 현명한 충고와 친절한 격려를 해 줄 것이다. {MH 393.3}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냉랭하고 은폐하는 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친숙해지고, 그들의 취미와 기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명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내야 한다. {MH 394.1}

부모들이여, 그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하여 그대의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라. 만일 그대들이 그렇게 한다면, 필요에 따라 과하는 그대들의 제재는 그들의 어린 마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자녀들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다스리고,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는 말씀을 기억하라. 만일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업을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이 그대들의 할 일을 다 함으로 천사들과 협력하라. {MH 394.2}

진실한 가정의 현명하고 부드러운 지도 아래 자라난 아이들은 쾌락과 동료를 찾아 곁길에서 방황하고 싶은 욕망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죄악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정에 파급되어 있는 정신이 그들의 성품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정의 보호를 떠나 세상에 처할 때 받을 유혹을 저항할 강한 방어가 될 수 있는 습관과 원칙을 형성할 것이다. {MH 394.3}

자녀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정이라는 협동체의 일원임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먹고 입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행복을 가져옴으로 그들이 받은 많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MH 394.4}

아이들은 때때로 제재받는 일을 원망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훗날에 가서 그들은 경험이 없던 어린 시절에 그들을 지켜 주고 지도해 준 그 성실한 보호와 엄격한 감독에 대하여 부모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MH 394.5}

34장 선교훈련으로서의 참 교육

참 교육은 선교사업을 위한 훈련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봉사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MH 395.1}

봉사를 위한 교육

그리스도인 부모와 교사들은 이 목적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분야에서 봉사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집 안에서 그들의 생애를 보낼 수도 있고, 생애의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서 이교도의 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고 있다. {MH 395.2}

참신한 재능과 정력과 용기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에 조화되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이기심 없는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곁에 서는데 도움이 될 교육을 받아야 한다. {MH 395.3}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세상 끝까지 존재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요 17:18)다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당신의 성령을 나타내고, 당신의 성품을 보여 주고, 당신의 사업을 행하게 하셨다. {MH 395.4}

우리의 자녀들은 이른바 기로(岐路)에 서 있다. 도처에서 이기주의와 방종으로 끌어가는 세속적인 유혹들이,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마련된 길에서 그들을 이탈하도록 손짓하고 있다. 그들의 생애가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 그들은 힘이 넘치므로 그들이 시험해 보지 않은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열망한 나머지 그들의 풍성한 생명력을 발산하기 위한 어떤 출구(出口)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선을 위해서나 악을 위해서나 간에 적극적일 것이다. {MH 396.1}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을 억제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지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욕망을 적게 가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해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해 주는 품성의 요소들, 곧 어떤 위대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불굴의 의지(

意志), 열렬한 근면성, 지칠 줄 모르는 인내력 등은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단순히 이기적이요 세속적인 이익에 비하여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욱 높은 목적에 도달되도록 지도를 받아야 한다. {MH 396.2}

우리에게는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그들은 주의 깊고, 현명하고, 친절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의 길로 지도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양육하고자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있다. 그들이 봉사의 생애를 택하도록 좋은 감화력으로 그들을 둘러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의무이다. {MH 396.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주게 될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큰 교훈이다(요 3:16, 엡 5:2, 마 20:28). {MH 396.4}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상을 마음에 새겨 주라.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분의 사랑의 댓가이다.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 주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힘, 그들의 재능은 그분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분을 위하여 계발되고, 신장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MH 396.5}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의 다음으로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최고의 표준에 이르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MH 397.1}

생명은 신비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주어진 생명의 기회들은 귀중한 것이므로 그 기회들은 진지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그 기회들은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가 버린다. {MH 397.2}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매우 엄숙한 현실 문제로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시며, 우리에게 불사불멸(不死不滅)의 문제를 이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고 고상한 진리를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 열심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한 목적을 향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신다. {MH 397.3}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지으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 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씨앗 속에 감취어 있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과 잎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높은 나무를 보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발전의 최고 표준까지 이르기를 바라신다. {MH 397.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신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진 재능들을 거룩한 유산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속한 모든 능력을 계발하고 모든 재능을 실제적인 일에 활용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유용하고 귀중한 모든 것을 향유하고, 선하게 되고 선을 행하며, 미래의 생애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기를 원하신다. {MH 398.1}

그들은 이타적이며 높고 고상한 모든 일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나타내신 거룩한 욕망을 간직해야 하는데, 그 욕망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것이 그들이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업이다.* {MH 398.2}

넓은 토대

모든 학문 중에서 최고의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학문이다. 사람이 열망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은 사람들을 죄에서 거룩한 곳으로 구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의 넓은 토대가 놓여져야 한다.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을 가르칠 때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노력을 부모와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교육이다. 거기에는 지능의 계발 이상의 무엇이 요구된다. 교육은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균등하게 교육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품성은 가장 충분하고 최고의 수준까지 계발되기 위하여 적당한 훈육을 받아야 한다. 마음과 육체의 모든 능력은 발달되고, 올바르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를 보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줄 온갖 능력을 계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다. {MH 398.3}

진정한 교육은 전인적(全人的)이다. 그것은 자아(自我)를 바르게 활용하도록 가르쳐 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뇌와 뼈와 근육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최선껏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정신적 능력이 보다 높은 능력으로서 육체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선천적 식욕과 정욕은 양심과 영적 애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높고 거룩한 순결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MH 398.4}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육을 가정에서 받으셨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분께서는 어머니의 입술에서, 또한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 하늘의 사물들을 배웠다.

그분께서는 영세민의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정의 어려운 짐을 지는 일에 당신의 몫을 담당하셨다. 하늘의 사령관이셨던 그분께서는 자원해서 종이 되셨고, 상냥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작업을 배우셨고, 요셉과 함께 목공소에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일하셨다. 일반 노동자의 옷을 입으시고 작은 마을의 거리를 걸어서 당신의 비천한 작업장으로 왕래하셨다. {MH 399.1}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물의 가치가 외관(外觀)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종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자, 허식이 증가되었다. 당시의 교사들은 외관과 허식으로 존경을 받고자 노력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것과 뚜렷한 대조가 되었다. 그분의 생애는 사람들이 생애의 요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였다. 작은 것들을 확대하고 큰 것들을 축소하여 가르치는 당시의 학교를 예수님께서는 찾지 않으셨다. 그분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재료, 곧 유용한 일과, 성경 연구와 천연계와, 생애의 경험에서 이루어졌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과서로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손과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MH 400.1}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MH 400.2}

그렇게 준비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가셨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때마다 세상이 지금껏 목격하지 못한 축복의 감화력과 변화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 {MH 400.3}

가정은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이다. 여기에서 봉사의 생애를 위한 기초가 놓여져야 한다. 그 원칙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전 생애의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MH 400.4}

매우 어릴 때부터 어린이는 도와 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체력과 지력이 충분히 발달되자마자 그는 가정에서 완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아야 한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주기 위하여 힘쓰고, 자아를 부인하고 지배하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을 기쁘게 해 주고 도와 주기 위한 기회를 찾고, 노인과 병자와 불행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권유를 받아야 한다. 참된 선교의 정신이 가정에 보급되면 될수록 그 정신은 자녀들의 생애에 더욱 충분히 계발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MH 401.1}

학교의 사업

가정 교육은 학교의 사업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전인적 발달(全人的 發達)과, 봉사와 희생의 교훈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MH 401.2}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일상 경험의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품성을 형성시키고 생애를 이기심 없는 봉사의 길로 이끌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신을 일으켜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권장하고 지도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사업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그들에게 위탁될 수 없다. 봉사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계발시키고 권장하는 모든 노력에는 천사들이 협력할 것이다.* {MH 401.3}

이러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오직 거기에만 교육의 원리가 완전히 밝혀져 있다. 성경을 연구와 교훈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MH 401.4}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와, 그것을 건전하게 보존하는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교육의 일반적 분야에서 철저한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 능력을 가진 남녀들로서 일상생활의 의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 분야에서 훈련과 실제적 경험을 쌓아야 한다. {MH 402.1}

나누어 줌으로 배움

젊은이들은 지식을 얻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그들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데까지 향상해야 한다. 그들의 연구의 분야는 그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넓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배우는 대로 그들의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단련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교육의 가치는 그들이 지식을 이용하는 여부로 결정된다. 연구하는데 장구한 세월을 보내면서 얻을 것을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때때로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 있는 동안 배우는 자가 되는 동시에 가르쳐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가 무한하신 분, 각 시대를 위하여 감추어 둔 비밀을 드러내주실 수 있는 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끊임없이 향상할 수 있다. {MH 402.2}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한 남녀들에게 있어서까지 교제의 영향을 크게 강조한다. 그렇다면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정신과 성품에는 그 힘이 얼마나 크게 미치겠는가. 그들이 교제하는 친구, 그들이 적용하는 원칙, 그들이 형성하는 습관은 이생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내세의 영원한 관심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 줄 것이다. {MH 402.3}

지적 교양과 단련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보내는 많은 학교들과 대학들이 품성을 잘못 꼴지어 주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고, 도덕을 저하시키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인 동시에 부모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많은,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주의 깊은 교훈과 열렬한 기도로써 간직하고 지켜 온 단순성과 순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아희생의 정신 등을 잃어버리고 있다. {MH 403.1}

어떤 이타적인 봉사의 분야에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학문에 몰두해 버린다. 학문에 뛰어나고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야망을 일으킨다. 그들이 학교에 입학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기적이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생애를 바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다같이 생명을 파멸시키는 습관을 형성한다. {MH 403.2}

일반적으로 원대한 이상과 이타적인 목적과 고상한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교우관계를 통하여 그와 같은 특성들을 계발시킨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의 교우관계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들에게 권면하셨다. 사회생활, 신앙생활, 사교 생활에 걸친 모든 면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은 매우 어릴 때부터 해로운 교우관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원칙에 익숙해지도록 고려되어 있었다. 그 민족이 존재하게 될 당시에 주어진 실물교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주는 성질의 것이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집안으로 모으라고 명령하셨다. 모든 집의 문설주는 피로써 표가 되었고, 그 표로써 보증된 보호 안에 모든 사람들은 있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언약의 조건아래,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이루어 놓은 거룩한 감화력의 보호 안에서 지켜야 한다. {MH 403.3}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고 말씀하셨다(요 17:14). {MH 404.1}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신다(롬 12:2). {MH 404.2}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MH 404.3}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6:14-18 {MH 404.4}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라(욜 2:16, 출 18:16). {MH 404.5}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 6:27). {MH 404.6}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신 28:10). {MH 404.7}

"야곱의 남은 자손은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가 5:7 {MH 404.8}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된다. 자녀들의 교육과 훈육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든 교훈과, 순종함으로 받을 축복의 약속은 모든 우리를 위한 것이다. {MH 405.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게 복을 주어 ...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다(창 12:2). {MH 405.2}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 대하여, 또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2, 23). {MH 405.3}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이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귀중한 은혜를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빛과 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과 함께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의 생애에서도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의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넓혀 주고 향상케 해 줄 것은 무엇이나 향유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들이 위에서 오는 능력으로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피묻은 깃발 아래 서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영혼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발을 만세 반석 위에 굳게 고정시키는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MH 405.4}

하나님의 교육 방침과 일치되게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계속적인 임재와 그분의 지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MH 405.5}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수 1:9, 5). {MH 405.6}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55장 10-13절 {MH 406.1}

온 세계적으로 사회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교육이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를 형성해 줄 것이다. {MH 406.2}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MH 406.3}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MH 406.4}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MH 406.5}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61장 4, 6-8, 9, 11절 {MH 406.6}

7편 필수적인 지식

35장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우리는 우리 구주와 같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는 품성으로 하나님을 닮고 봉사의 생애로써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그대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 {MH 409.1}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 주는 유일의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MH 409.2}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그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MH 409.3}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MH 409.4}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벧후 1:3)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MH 409.5}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말씀하셨다(요 17:3). {MH 410.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 24절 {MH 410.2}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주신 계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MH 410.3}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취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기 22장 21-29절 {MH 410.4}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롬 1:20). {MH 410.5}

오늘날 우리가 쳐다보는 천연계의 만물은 다만 에덴동산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여 주는데 불과하다. 죄는 지상의 아름다움을 훼손시켜 버렸다. 만물 위에서 죄악이 나타낸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그럴지라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천연계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비록 훼손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만물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 준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다. {MH 411.1}

웅장한 뇌성의 장엄한 진동과 태고(太古)적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양(大洋)의 파도 소리에서 숲 속을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천연계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라운 색깔과 색조(色調)로써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또한 조화를 이루어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 준다. 햇빛을 받아 푸른 나래를 펄럭이는 나무들과, 우아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꽃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가리켜 준다. 갈색 대지(大地) 위에 깔려 있는 싱그러운 풀들은 당신의 가장 미천한 피조물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 준다. 바다의 동굴들과 땅의 심연(深淵)은 그분의 보화들을 드러내 준다. 진주를 바다 속에, 자수정(紫水晶)과 귀감람석(貴橄欖石)을 바위 속에 두신 하나님은 미(美)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 준다. 땅을 아름답게 꾸며 주고 하늘을 밝혀 주는 밝은 광채와 미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MH 411.2}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MH 412.1}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MH 412.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박국 3장 3절, 시편 104편 24절,

시편 19편 2-4절 {MH 412.3}

만물은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버지다운 보호와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자 하는 그분의 소원을 말해 준다. {MH 412.4}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역사하고 만물을 지탱해 주는 큰 힘은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하나의 보편적 원칙이나 활동의 원동력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MH 413.1}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MH 413.2}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정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MH 413.3}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예레미야 10장 10, 11, 16, 12절 {MH 413.4}

천연계는 하나님이 아님

천연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업적은 본질상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의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계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예술적 기량은 매우 아름다운 작품, 곧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사상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 작품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작품이 아니고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연계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천연계의 하나님이다. {MH 413.5}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MH 413.6}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95편 6, 4, 5절 {MH 413.7}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MH 414.1}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MH 414.2}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모스 5장 8절, 4장 13절, 9장 6절 {MH 414.3}

땅의 창조

창조사업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어떤 과학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까? {MH 414.4}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MH 414.5}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MH 414.6}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 45장 7-12절, 48장 13절 {MH 414.7}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해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 33:9).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주 여호와 앞에 서고 그분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은 그분의 입기운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MH 414.8}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役事)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 완전하였으나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그 때에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生氣)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인체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게 되었다.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정신작용, 그 모든 것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사람은 생령(生靈)이 되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지성과 능력을 품부하셨다. {MH 415.1}

우리가 은밀한 중에 창조될 때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지 않았다. 그분의 눈은 우리의 체질이 아직 완성되기 전일지라도 그것을 보셨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MH 415.2}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두 하등생물(下等動物)들보다 뛰어나게 하여 당신의 창조사업의 걸작품으로서 당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된다. {MH 415.3}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MH 415.4}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聖山)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100편 1-4절, 99편 9절 {MH 415.5}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그것들이 당신을 섬기도록 사용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천연계의 법칙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당신의 기구로 사용하신다. 천연계의 법칙들은 스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천연계는 그 자체의 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따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한 분의 지성적 존재와 활동적인 역사를 증거한다. {MH 416.1}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MH 416.2}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 {MH 416.3}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命)을 정하셨도다"

시편 119편 89-91절, 135편 6절, 148편 5, 6절 {MH 416.4}

지구가 해마다 그 풍성한 산물을 내고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은 고유(古有)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무한하신 분의 손이 이 유성을 영원히 지도하고 계신다. 지구가 제 위치에서 계속하여 자전(自轉)하게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태양이 하늘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창문을 열고 비를 내려 주신다. {MH 416.5}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MH 416.6}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시편 147편 16절, 예레미야 10장 13절 {MH 416.7}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온갖 나뭇잎이 피어나고, 갖가지 꽃들이 향기를 토하고, 열매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MH 416.8}

인체의 조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신비를 제시해 준다.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되풀이되는 기계 장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생존을 존속한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 있는 유기체(有機體)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MH 417.1}

성경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활동(無活動)상태에 계시거나 침묵과 고독에 잠겨 계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천천 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분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통치 영역과 활발한 교통을 나누고 계신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MH 417.2}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좌정해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계(眼界)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MH 417.3}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MH 417.4}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MH 417.5}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MH 417.6}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MH 417.7}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MH 417.8}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MH 418.1}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MH 418.2}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

만민의 훤화까지 진정하나이다." {MH 418.3}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MH 418.4}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MH 418.5}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잠언 3장 5, 6절, 시편 33편 18, 19절, 36편 7절, 146편 5절, 119편 64절, 33편 5절, 65편 5-7절, 65편 8, 11절, 145편 14-16절 {MH 418.6}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개성

하나님께서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이신 예수님은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인자같은 이가"(계 1:13)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MH 418.7}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神性)의 빛나는 광채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친숙해질 수 있게 하셨다. 죄가 사람과 창조주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 이 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MH 419.1}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7).* {MH 419.2}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늘에서, 땅에서, 넓은 대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본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나 별들이나 대양이나 폭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개성을 배울 수 없다. {MH 419.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성과 품성을 다 같이 묘사하기 위하여 천연계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필요함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다. {MH 419.4}

제자들에게 계시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연구해 보자. 그분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시련의 시간에 가까이 접근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심히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당해야 할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셨다. {MH 419.5}

그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 {MH 419.6}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 {MH 420.1}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1-10). {MH 420.2}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분의 교훈 중의 많은 부분이 그들에게 여전히 어두움에 싸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좀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라셨다. {MH 420.3}

그분께서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6:25). {MH 420.4}

오순절 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비사(비유)로 말씀하신 진리들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하였다. 지금껏 그들에게 신비로 남아 있던 많은 교훈들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가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시고자 원하셨던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 믿음의 싸움이 끝나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서 당신의 진실한 증인이 되어온 충성된 일꾼들을 아버지 앞에서 아노라고 인정하실 때 그들은 오늘날 그들에게 오묘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MH 420.5}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된 당신의 인성을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영접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충실할 것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게 될 것이다(계 22:4). 하나님을 뵙는 것 이외에 하늘의 행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가? {MH 421.1}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명백히 보여 준다. {MH 421.2}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MH 421.3}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MH 421.4}

하셨으니 또 다시 {MH 421.5}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히브리서 1장 1-5절 {MH 421.6}

아버지와 아들의 개성과 또한 그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신 기도에 나타나 있다. {MH 421.7}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0, 21). {MH 422.1}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쌍방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개성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일체이다. {MH 422.2}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오셨다. 태초부터 아버지의 면전에 계셨던 그분, 뵈올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께서만 신성(神性)의 특성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께서는 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께서는 음식으로 생명을 지탱하시고 수면(睡眠)으로 활력을 되찾으셨다. 그분께서는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셨지마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계셨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이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이 없는 생애를 사셨다. 부드럽고, 자비롭고, 동정적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심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봉사사업에 열중하셨다. {MH 422.3}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MH 423.1}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MH 423.2}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MH 423.3}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61장 2절* {MH 423.4}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신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마 5:44, 45, 눅 6:35, 마 5:45, 눅 6:36). {MH 423.5}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78, 79절 {MH 423.6}

십자가의 영광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는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십자가의 완전한 의미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할 수 있다(요 3:16). {MH 423.7}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학문이다. {MH 424.1}

그리스도의 위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MH 424.2}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34; 히 7:25). {MH 424.3}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MH 424.4}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사(恩賜)를 통하여 온갖 축복을 받는다. 그 은사를 통하여 매일 여호와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된다. 우아한 색깔을 가지고 향기를 풍기는 각종 꽃들은 그 하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어져 있다. 해와 달은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하늘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별들 중에서 그분이 만들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 떨어지는 빗방울마다, 배은망덕한 세상을 비치는 빛의 줄기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곧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MH 424.5}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일 3:1). {MH 425.1}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 64장 4절 {MH 425.2}

변화를 일으켜 주는 지식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지식이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그것은 신령한 영적 능력을 전신에 공급해 줄 것이다. {MH 425.3}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MH 425.4}

구주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애에 관하여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5:10, 8:29).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구주께서 사셨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 {MH 426.1}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4-19). {MH 426.2}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 1:9-11). {MH 426.3}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지식이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MH 426.4}

36장 이론적 지식의 위험성

지식의 탐구, 곧 학문의 연구에 따르는 가장 큰 위험 중의 하나는 인간의 이성(理性)을 그 참된 가치와 적절한 범위 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불완전한 과학의 지식으로 창조주와 그분의 업적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권한을 측정하고 무한하신 분에 관한 추리적 이론에 빠지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연구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금지된 땅을 밟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다만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데 불과할 것이다. {MH 427.1}

우리의 첫조상은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게 한 지식을 욕망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므로 그들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에 결코 접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 곧 죄의 저주가 전혀 없는 지식,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지식을 주셨을 것이다. 그들이 유혹자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얻은 모든 것은 죄와 그 결과를 아는 지식이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땅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MH 427.2}

그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단이 우리의 첫 조상을 유혹한 그 분야는 그가 오늘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꾸며낸 이야기들을 세상에

쏟아놓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온갖 계략을 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추리하게끔 유혹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MH 428.1}

범신론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손상시키는 강신술적 교훈이 도처에서 교육기관들과 교회들을 침투해 오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천연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이론이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가장되었을지라도, 이 이론은 하나의 가장 위험한 기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위대함과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을 그릇되게 이끌 뿐만 아니라 타락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암흑이 그 요소이고 관능이 그 영역이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에 있어서 그것은 파멸을 의미한다. {MH 428.2}

죄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 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피를 통하여서만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을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하나님에 대한 광신술적 이론은 그분의 은혜를 무효로 만든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천연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면,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다만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된다. {MH 428.3}

만일 그들의 논리적 결론을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이론들은 전반적인 그리스도교의 체계를 일소해 버리게 된다. 그 이론들은 속죄의 필요성을 일소해 버리고 사람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만들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이론들은 그분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그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마침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로 간주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덕성을 부도덕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정당한 통치자의 위치에 계시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전혀 무가치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악을 저항하고 이길 진정한 힘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영혼의 방호벽은 무너지게 된다. 사람은 죄를 대항할 방어책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지가 거부될 때,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MH 428.4}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MH 429.1}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30장 5, 6절, 5장 22절 {MH 429.2}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함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신 29:29).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당신 자신의 계시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간파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추측하고자 자신의 힘을 지칠 정도로 발휘할지라도 마침내 그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가져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위탁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의 정신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을 추리해내고자 몰두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침묵이 웅변이다. 전지(全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시다. {MH 429.3}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구속의 경륜을 세울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논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린 아이들처럼 무지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분의 권한에 대하여 추측하기보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유의해야 한다. {MH 429.4}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MH 430.1}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길은 어디인고 …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리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뢰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 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 11장 7-9절, 28장 12-28절 {MH 430.2}

땅의 깊은 곳을 수색하거나 하나님의 실존의 오묘를 이해하고자 헛된 노력을 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 계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과 일치된 생애를 함으로 발견하게 된다. {MH 431.1}

가장 위대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천연계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감은 가장 심오한 학자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답하도록 하고자 제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목을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로 이끌므로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변에는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MH 431.2}

회의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한된 이해력을 통해 인정받으시는 만큼 당신께서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인정받으셔야 한다. 거룩한 계시와 천연계에 있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신비를 주셨다. 그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찾고, 탐구하고, 배울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무한한 것이 남아 있다. {MH 431.3}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40장 12-28절 {MH 432.1}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워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MH 432.2}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MH 432.3}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MH 433.1}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된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사 6:1-7). {MH 433.2}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MH 433.3}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6, 7절, 시편 139편 1-6절 {MH 433.4}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시 147:5). {MH 433.5}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잠 5:21) {MH 433.6}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단 2:22). {MH 433.7}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행 15:18, 롬 11:34-36). {MH 433.8}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딤전 1:17, 6:16). {MH 434.1}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MH 434.2}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MH 434.3}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췸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MH 434.4}

"하나님이 ...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로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

그가 ...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의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

네가 능히 그와 함께 하여

부은 거울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 {MH 434.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MH 435.1}

"여호와의 깊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MH 435.2}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욥기 13장 11절, 22장 12절, 25장 3절, 37장 5-24절,

시편 113편 5, 6절, 나훔 1장 3절, 시편 145편 3-21절 {MH 435.3}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한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법궤를 열어 보고자 했을 때 그들의 불경한 행동은 두드러지게 형벌을 받았다. {MH 435.4}

웃사에게 내린 형벌을 다시 생각해 보라. 다윗의 지도 아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고 있을 때, 웃사는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손을 뻗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에 감히 손을 대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는 즉사하였다. {MH 436.1}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자 몸을 돌이켰을 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졌다. {MH 436.2}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출 3:5, 6). {MH 436.3}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MH 436.4}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MH 436.5}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MH 436.6}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창 28:10-17). {MH 437.1}

광야의 성막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이 세상에서 상징된 성전의 성소에는 한 칸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구별되었다. 그룹을 수놓아 짠 입구의 휘장은 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걷어올려서는 안되었다. 허락없이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속죄소 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곧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 살 수 없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지정된 일 년 중 한 날에 대제사장은 향연(香煙)으로 그 영광이 자신의 시계(視界)에서 가리워져 있는 동안 떨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 때에는 성전 뜰에서 모든 음성이 조용해졌다. 어떤

제사장들도 번제단에서 봉사하지 않았다. 예배하는 군중들은 정숙한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였다. {MH 437.2}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1). {MH 438.1}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MH 438.2}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MH 438.3}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MH 438.4}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MH 438.5}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그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박국 2장 20절, 시편 99편 1-3절,

11편 4절, 102편 19절, 33편 14, 15, 8절 {MH 438.6}

사람은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참람된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휘장을 걷어 버리고자 해서는 안된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것이로다"(롬 11:33).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 그분의 자비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우고 있는 휘장을 걷어 버리면 죽음이 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전능하신 분께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그분께서 계시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점에서만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성은 그 자신보다 초월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과 지성은 위대하신 영원자존자(永遠自尊者)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MH 438.7}

37장 거짓 교육과 참 교육

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보게 하고자 언제나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사 30:21)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왜곡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빛을 흐리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MH 439.1}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적 사색과 과학적 연구는 수 많은 회의론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에서는 학자들이 과학적 탐구로 얻은 결론들을 주의 깊이 가르치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르침은 만일 그 학자들이 옳을 것같으면 성경은 옳지 않다는 인상을 분명하게 주고 있다. 회의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만당한다. 그리하여 사단은 승리한다. 그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온갖 의심의 씨앗을 자라게 한다. 그는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고, 미구에 풍성한 불신의 수확을 거두게 한다. {MH 439.2}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마음에 회의론의 씨를 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서 유혹을 저항하는 힘을 빼앗아 버린다. 그것은 죄를 방어하는 유일한 안전책을 제거해 버린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냄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학교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업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생활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킬 필요가 있다. {MH 440.1}

불신자 저자들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불신자 저자들이 쓴 저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저서들에는 빛나는 많은 사상의 보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상의 보석들을 누가 만들어 내었는가? 그는 하나님이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모든 빛의 근원이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진리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성적 진리를 얻기 위하여 불신자들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막대한 오류를 통과하여 건너갈 필요가 있는가? {MH 440.2}

하나님의 정부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과시하는 지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 사단 자신이 하늘의 조정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악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요 선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그는 귀중한 것과 천한 것을 혼합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사단이 스스로 밝은 하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광명한 천사로 받아들일 것인가? 유혹하는 그의 방법대로 교육받고, 그의 정신으로 고무되고, 그의 사업에 적합한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할 것인가? 우리는 그의 부하들의 저서들을 교육상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MH 440.3}

만일 무신론자의 분명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쳐진 시간과 노력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쳐졌을 것같으면, 오늘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MH 440.4}

역사와 신학적 지식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사업의 준비로서 역사와 신학의 저서에 해박한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지식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견해를 힘들여 연구하는 일은 그들의 활동을 강화시켜 주기는 커녕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 주는 경향이 있다. 역사와 신학 지식에 대한 묵직한 책들로 채워져 있는 도서실들을 볼 때, 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돈을 쓰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은 그와 같은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35, 51, 47, 63). {MH 441.1}

정죄되어서는 안될 역사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다. 거룩한 역사는 선지자 학교에서 연구한 과목 중의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취급하신 기록에는 여호와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을 취급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깨닫고, 위대한 개혁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 열국들이 전진해 가고 있는 사건들의 진전을 이해해야 한다. {MH 441.2}

그와 같은 연구는 인생에 대한 넓고 포괄적인 견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과 상호 의존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해 주고, 우리가 사회와 국가에 속한 위대한 형제의 우의로 얼마나 놀랍게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압제와 타락이 어느정도까지 큰 손실을 전체 사람들에게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MH 442.1}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되어 온 역사는 인간의 업적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일에서 거둔 성공 등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役事)는 지나쳐 버린다. 열국들의 흥망성쇠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MH 442.2}

그리고 대부분 연구되고 가르쳐 온 신학은 지식이 없는 말로써 더욱 혼란케 하는데만 소용되는 인간적 추리의 기록에 불과하다. 너무도 흔히 그런 책들을 많이 쌓아 두는 동기는 정신과 심령을 위한 양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알고자 하는 야망과 교양 있는 말과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소개하고 싶은 욕망에서이다.* {MH 442.3}

모든 기록된 책들이 반드시 거룩한 생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대의 지적 교만은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은 책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할 실제적인 교훈의 자리를 그것들에게 내어 주고 있다. 그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사람들은 굶주리게 된다. 마음을 너무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연구는 영혼들을 위하여 성공적인 일꾼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는 거의 없다. {MH 442.4}

구주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눅 4:18). 그분께서는 가르치실 때 가장 단순한 말씀과 가장 평범한 예증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막 12:37)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분의 사업을 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하신 교훈에 대하여 더욱 깊은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MH 44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육 중 최고의 교육이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 힘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준비를 이루게 될 것이다. {MH 443.2}

고전문학

대학에서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의 대부분을 희랍어와 라틴어 연구에 바친다. 그들이 그 언어로 된 서적을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언어 연구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정신과 품성은 이교 문학의 나쁜 정서에 의하여 꼴지어진다. {MH 443.3}

고전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은 "희랍의 비극은 근친상간과, 살인과, 음탕하고 복수심이 많은 신들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 등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근원에서 받은 교육이 제거되어 버린다면 세상을 위하여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잠 6:28).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 14:4). 그러면 우리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형성시키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MH 443.4}

제재를 벗어나서 무모한 쾌락과 방탕과 부도덕에 빠져 학생들은 그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을 본받을 뿐이다. 희랍어와 라틴어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언어들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식은 타락해 있고 타락시키는 문학을 연구하지 말고 실제적인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이다. {MH 444.1}

그리고 희랍어와 라틴어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어(死語)의 연구는 심신이 모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는 과목들에 비하여 부수적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생애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한 훈련을 등한히 하면서 사어나 어떤 분야의 이론적 지식을 얻는데 그들의 시간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MH 444.2}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갈 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들은 진실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현명한 지도자로서 가족의 선두에 설 수 있는가? 명실공히 가치 있는 유일의 교육은 젊은 남녀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지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해 주고, 그들의 가정에서 머리의 위치에 서기에

적합하게 해 주는 교육이다. 그와 같은 교육은 이교의 고전을 연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MH 444.3}

선정적 문학

오늘날 인기 있는 많은 출판물들은 젊은이들에게 악을 교육시켜 주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선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순진한 어린이들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악의 지식에 익숙해진다. 그들은 그들이 읽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는다. 그들은 책에 묘사된 행동을 상상 중에 실천해 보고, 마침내 그들은 죄를 짓고 벌을 피할 수 있는지 실천해 보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까지 된다. {MH 444.4}

민감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하여 가상적으로 묘사된 장면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법과 자제의 방호벽을 깨뜨리는 것으로 묘사된 온갖 종류의 사건들과 혁명들이 묘사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나타나는 정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정적인 저자들이 묘사하는 것보다 더욱 나쁜 죄를 범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이와 같은 영향을 통하여 사회는 타락해 가고 있다. 불법의 씨가 널리 뿌려져 있다. 범죄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MH 445.1}

로맨스와 천박하고 흥분적인 이야기들을 쓴 작품들은 독자에게 적지 않게 손해를 준다. 저자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의 작품에 종교적 감정을 혼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와 같은 일은 그 작품의 저변에 숨겨져 있는 어리석은 것과 무가치한 것을 가리워 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MH 445.2}

세상에는 그릇된 일을 자극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성경이 거짓된 것으로 선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기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매달린다. {MH 445.3}

진리를 가르쳐 주거나 어떤 큰 악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소설들이 있다. 그와 같은 작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역시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그것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위험으로 가득찬 일련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들과 정교한 필치로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묘사된 장면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거듭 거듭 살아난다. 그와 같은 독서는 정신을 유용한 일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활동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흥미를 말살시켜 버린다. 하늘의 사물들이 생각 속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묘사된 불순한 장면에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되면 정욕이 일어나고, 마침내 죄를 짓게 된다. {MH 445.4}

심지어 불순을 시사하지 않고, 훌륭한 원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진 소설일지라도 해롭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만을 위하여 급하고 피상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조장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일관성 있고 활기찬 사고력(思考力)을 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심령이 의무와 운명에 속한 위대한 문제들을 명상하는 일에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 {MH 445.5}

단순한 괘락을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일은 인생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취미를 갖지 못하게 한다. 소설의 자극적이고 도취시키는 힘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을 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불행하고 버려진 많은 가정, 많은 불치의 병, 정신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소설을 읽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MH 446.1}

선정적이고 무가치한 문학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에 속한 소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따금 거론된다. 그것은 마치 주정뱅이에게 위스키나 브랜디 대신에 포도주, 맥주, 사이다와 같이 부드러운 알콜성 음료를 제공해줌으로써 그의 주벽을 치료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 보다 강한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게 될 것이다. 술꾼을 위한 유일의 안전과, 금주가를 위한 유일의 방어책은 완전히 금주하는 일이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유일의 안전책이다. {MH 446.2}

신화와 동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동화와 신화와 지어낸 이야기들이 오늘날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의 책들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책들은 많은 가정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처럼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책들을 자녀들에게 사용하도록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과 너무도 대조적인 이야기들의 의미를 물을 때,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대답이 그 이야기들을 사용함으로 초래되는 악을 제거해 버리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책들에 나타난 사상은 어린이들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그들은 인생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얻게 되고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품고 그것을 배양하게 된다. {MH 446.3}

오늘날 그와 같은 책들을 널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간계 중의 하나이다. 그는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품성 형성의 위대한 과업에서 떠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가득 채워 둔 영혼을 파멸시키는 기만에 의하여 우리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휩쓸고자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의 안전책이 될 그 진리의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MH 447.1}

진리를 왜곡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이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손에 결코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죄악의 씨가 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자. 만일 성숙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책들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을 것같으면, 그들 스스로가 훨씬 더 안전하게 될 것이며, 정당한 면에서 보여 주는 그들의 모본과 감화력은 젊은이들을 유혹에서 지켜 주기에 훨씬 더 쉬워지게 해 줄 것이다. {MH 447.2}

우리는 진실한 것과, 신령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갈급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MH 447.3}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MH 447.4}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MH 448.1}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MH 448.2}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MH 448.3}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2장 17-21절, 시편 78편 5, 4, 6, 7절, 잠언 10장 22절 {MH 448.4}

그리스도의 교훈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가운데 진리의 원칙을 제시하셨다. 그분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시냇물을 마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알려진 어떤 것보다 더욱 뛰어나며 또 다른 모든 발견물들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밀을 하나씩 차례로 드러내 주시되, 계속되는 세대의 적극적이고 열렬한 생각을 시대의 끝까지 그 놀라운 계시에 집중시킬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는 일을 한 순간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시간과 능력과 생애의 가치를 바르게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오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셨다.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어떤 것도 그분을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MH 448.5}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이용할 수 있는 지식만을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에게 하신 그분의 교훈은 그들 자신의 실생활에 필요하다는 조건에서만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꼬치 꼬치 캐어묻는 질문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모든 질문을 그분께서는 엄숙하고, 열렬하고 주요한 호소를 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자 매우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외에는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생의 샘 외에는 모든 샘이 막혔다. {MH 448.6}

우리 구주께서는 어떤 사람도 당시의 랍비 학교에 가도록 권장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말하기를", 혹은 "그렇게 전해 오기를" 등의 말을 반복함으로 타락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보다 위대하고 분명한 지혜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인간의 말을 고상한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MH 449.1}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내가 보아 온 것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내가 목격해 온 것이 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고 나의 평생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인간이 찬양을 받거나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세속적으로 현명한 사람들과 소위 위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길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모두

그분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존재를 무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유한한 관념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 {MH 449.2}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신 분, 창공에서 별들을 질서 있게 운행시키고 해와 달에게 그들의 일을 지정해 주신 분에게서 배우도록 하자. {MH 449.3}

젊은이들이 그들의 정신적 능력을 최고의 수준까지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신 교육을 제한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MH 449.4}

심한 골몰을 요구하지마는 실생활에 이용되지 않는 연구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와 같은 교육은 학생에게 손해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연구는 그에게 유용성을 길러 주고 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는 연구를 하고 싶은 욕망과 성향을 감소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실제적인 교육이 많은 양의 단순한 이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지식을 가지는 것까지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MH 449.5}

비교적 쓸모없는 교육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는 시간과 재물과 연구가 남녀들을 실용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인생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게 해 주는 교육을 얻는데 바쳐져야 한다. 그와 같은 교육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MH 450.1}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과 심령을 강하게 해 주고, 우리를 더욱 훌륭한 남녀로 만들어 주는 지식이다. 본질적인 교육은 단순히 책을 통하여 배우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MH 450.2}

학생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칙에 순종하지 않을 것같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그릇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중심(自重心)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크게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자신의 심신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무모하고 불합리해진다. 올바른 원칙을 계발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써 그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다같이 파멸을 당하게 된다. {MH 450.3}

만일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의 약점을 이해했을 것같으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힘을 발견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노력할 것같으면 그들은 그분의 지혜로써 현명하게 되고, 그들의 생애는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세속적이며 공리적(公理的)인 연구에 바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그들은 생애를 풍성하게 해 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MH 450.4}

38장 참 지식을 탐구하는 중요성

우리는 우리가 참전하고 있는 대쟁투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진리의 가치와 대기만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서 떠나가도록 허용하는 위험을 더욱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MH 451.1}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요구된 무한한 희생의 가치는 죄가 무서운 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육체적 조직에는 이상이 생기고, 정신은 왜곡되고, 상상력은 부패되었다. 죄는 사람의 능력을 퇴화시켰다. 밖에서 오는 유혹은 마음 속에서 공명을 얻고, 발길은 부지 중에 죄악으로 향하게 된다. {MH 451.2}

우리를 위한 희생이 완전하였던 것처럼 죄의 더러움에서 회복되는 것도 완전하여야 한다. 하나의 악행도 하나님의 율법은 면제해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불의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의 윤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성만을 표준으로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의 모든 교훈을 완전히 성취하였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요 15:10). 그분의 생애는 순종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빌 2:12, 13). {MH 451.3}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는 사업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 잡히거나 행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일 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 {MH 452.1}

사람이 높은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가장 강한 증거는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처럼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 돌아가는 길은 한 치, 한 치씩 옮길 때마다, 한 시간 한

시간씩 경과할 때마다 무서운 싸움을 거듭함으로써만 갈 수 있다. 조급하고 주의성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순간에 우리 자신을 악의 세력 아래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악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성결한 생애에 들어가는데는 순간 이상이 요구된다. 목적을 설정하고 일을 시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취시키는데는 노력과 시간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MH 452.2}

우리는 충동에 의하여 행동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다. 무수한 유혹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는 굳게 저항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마치지 못한 채로 생애의 끝을 맞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MH 452.3}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고전 15:31).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MH 452.4}

그는 자신의 투쟁의 생애가 마칠 무렵, 그 투쟁과 승리를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딤후 4:7, 8). {MH 453.1}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애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계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성실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구해야 하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MH 453.2}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엄격하고 불굴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상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 싸움에 참전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 줄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비록 노아, 욥, 다니엘이 이 땅에 살아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써 그 아들도 딸도 구원할 수 없다. {MH 453.3}

숙달해야 할 과학

숙달해야 할 그리스도인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어떤 인간적 과학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다. 마음은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인 인간의 경향과 일치되지 않는 방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필생의 교육과 훈련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 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곧 하늘처럼 높고 영원을 포함한 원칙을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이 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고, 그분께 굴복되어야 한다. {MH 453.4}

성령의 귀중한 은사들은 한 순간에 계발되지 않는다. 용기, 견인불발, 온유,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일 등은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다. 옳은 일을 위하여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고 확고하게 붙드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MH 454.1}

낭비할 시간이 없음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나게 될 것인지 모른다. 가장 오래 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만 짤막한 일생을 지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화살이 얼마나 빨리 우리의 심장을 꿰뚫을 것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흥미를 버리라는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영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걷히어지려 하고 있다. 불과 몇 해만 지나가면, 살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질 것이다. {MH 454.2}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계 22:11). {MH 454.3}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통치자시요 입법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당신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본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MH 454.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요 17:4-6). {MH 454.5}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세속적인 사물에 애착을 갖지 않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자. {MH 454.6}

해이한 생각으로 지내 온 정신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 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3-16). {MH 455.1}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육신적인 마음의 악한 성향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극기와 인내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의 무한한 가치와 정비례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함으로써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MH 455.2}

자아를 버려야 할 필요성

사람에게 있는 큰 위험은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그의 능력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적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 속에 도덕적 죽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과 자기 본위의 마음과 죄의 유혹 등의 부정한 세력들을 저항할 수 없다. {MH 455.3}

우리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전혀 속절없이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것이다. {MH 455.4}

오직 그리스도인 생애의 초기에서만 자아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늘을 향하여 옮겨놓은 매 발자욱마다 그 일은 새롭게 반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꾸준하고 열렬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심령을 겸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잡을 때에만 우리에게 안전이 있다. {MH 455.5}

참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주의를 끄는 수 많은 화제에서 돌아서야 한다.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의문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최고의 관심사가 면밀한 주의력과 정력을 요구하고 있지마는 너무나 흔히 비교적 무의미한 것에 그것들이 바쳐지고 있다. {MH 456.1}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일 때 그 이론 자체가 영혼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중요한 사실과 이론에 정통할지라도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별반 가치가 없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길러 주고 활기 있게 해 주는 양식을 우리의 심령에 공급해 줄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 {MH 456.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MH 456.3}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2장 2-11절, 3장 18절 {MH 456.4}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진리, 곧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진리인가"라는 문제이다. 과학에 몰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 그들의 노력에서 실패하고 실망해 왔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MH 456.5}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대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그분께서는 당신을 영접해 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MH 457.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 특별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와 같이 일하기를 바라신다. 너무 지나치게 이론에 사로잡힌 나머지 구주의 모본에 대한 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일꾼이신 그분을 보지 못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의 자아부정(自我否定)과 자아희생의 모본을 더욱 가까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 {MH 457.2}

우리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기록할 당시에 가졌던 그 경험이 필요하다. {MH 457.3}

품성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땅과 하늘에서 평가되는 어떤 것보다 더욱 고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다. 그것이 하늘 도성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MH 457.4}

39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지식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품성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준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일깨워 주고 생애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주는 큰 자극제요 힘이 된다. {MH 458.1}

젊은이들이, 심지어 장년들까지라도 너무도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명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의지력의 결핍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상을 고취시켜 주는 데로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지 않을 뿐더러 불순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서 마음을 분리시키고자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거룩한 교사를 알고자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애에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MH 458.2}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정신과 심령이 고상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올바르게 분별하기만 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강직한 마음, 곧 힘 있는 원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MH 459.1}

사람들에게 성경의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기록하게 하라. 생각과 재능과 예민한 두뇌의 힘을 하나님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바치도록 하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철학을 연구하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철학을 연구하라. 어떤 다른 학문도 이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MH 459.2}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와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쳐 온다.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칠은 광야와 같은 것도 영적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땅이 된다. {MH 460.1}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들의 이성(異性)의 눈이 떠지는 가장 초기에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생애를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은 최초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그들의 최초의 훈련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고 친절하게 읽어 주되, 그들의 이해력에 적합하고 그들의 흥미를 일으켜 주기에 알맞은 부분들을 되풀이해서 읽어 주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그 위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MH 460.2}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MH 460.3}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과 심령의 양식을 삼게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교육의 이치가 되게 하고, 모든 교훈과 연구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의 매일의 경험에서 실천하게 하라. 그리하면 구주께서는 날마다 젊은이들의 동료와 친구가 될 것이다. 모든 생각은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H 460.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MH 460.5}

그리하여 그들은 체험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MH 461.1}

사랑의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얻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MH 461.2}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1-3). {MH 461.3}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칠" 수 있게 된다(요 3:33).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증거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거할 수 있다.* {MH 461.4}

"나는 도움이 필요하였다. 나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였다. 모든 요구는 채워지고, 내 심령의 주림은 충족되었다. 성경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거룩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MH 461.5}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은 자연과학을 연구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요 1:4).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밝고 아름다운 빛, 곧 하나님의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것을 비쳐 주었다. 하나님의 품성과 솜씨에 대한 그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유혹자에게 굴복하게 되자, 그 빛은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거룩한 의복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들은 천연계를 비쳐 주던 빛도 잃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천연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분별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연계의 교훈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하늘의 지혜로 인도되지 않으면, 그는 천연계와 천연계의 법칙들을 천연계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된다. 이것이 과학에 관한 단순한 인간적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너무도 자주 상치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천연계가 다시 빛을 비추어 준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우리는 천연계의 교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MH 461.6}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신령성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진리 그 자체는 결코 모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사람들의 과학적 사상에 의하여 성경을 시험하지 않고, 과학적 사상을 그릇됨이 없는 성경의 표준으로 시험한다. 그는 진정한 과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성경과 과학은 같은 저자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둘은

다같이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소위 과학적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모순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단순히 인간의 추측으로 된 이론에 불과하다. {MH 462.1}

과학적 연구는 그러나 학도에게 사상과 지식의 넓은 분야를 열어줄 것이다. 그가 천연계의 사물을 명상할 때,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생기게 된다. 천연계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서로 빛을 비쳐 준다. 그 둘은 다같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께서 활동하시는 법칙에 대하여 더욱 잘 깨닫게 해 준다. {MH 462.2}

시편 기자의 체험은 천연계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이다. 그는 말한다. {MH 462.3}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MH 463.1}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MH 463.2}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MH 463.3}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MH 463.4}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MH 463.5}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MH 463.6}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MH 463.7}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MH 463.8}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MH 463.9}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MH 463.10}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MH 463.11}

"주의 증거가 기이하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MH 463.12}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MH 463.13}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MH 463.14}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MH 464.1}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MH 464.2}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MH 464.3}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MH 464.4}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MH 464.5}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MH 464.6}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92편 4절, 36편 5-7, 7-9절, 119편 1, 2, 9, 30, 11, 45, 18, 24, 72, 97, 129, 54, 140, 160, 175, 165-167, 130, 98-100, 104, 111절 {MH 464.7}

보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됨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계시를 얻기 위하여 높이, 더욱 높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고 말씀하셨다(출 33:18, 19). {MH 464.8}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죄이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분의 말씀을 비추고 천연계에서 반사될 때, 그분에 대하여 점점 더 완전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출 34:6). {MH 464.9}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정신과 마음과 심령은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MH 465.1}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그들 앞에는 진리의 넓은 평원과 능력의 큰 자원(資源)이 놓여 있다. 영광스러운 사물들이 계시되어야 한다. 그들이 성경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한 특권과 의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겸손한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MH 465.2}

학생으로 하여금 성경을 지도자로 삼고 원칙에 굳게 서게 하라. 그리하면 그는 아무리 높은 수준의 학문에라도 도달하고자 열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든 것 가운데 최고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모든 인간적 성격의 철학은 혼란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귀중한 믿음은 품성의 힘과 고결함을 준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탐익될 때, 진리에 대한 지각은 훨씬 더 예민해지고, 순결한 마음과 명석한 사상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높고 고상해질 것이다. 거룩한 사상의 순결한 분위기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변화를 얻게 된다. 진리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원대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기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겸손과 친절과 사랑으로 바뀌어진다. {MH 465.3}

그리하여 거룩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능력이 확대된다. 생명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학도들은 넓고, 고상하고, 숭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들 역시 다니엘처럼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향상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순결해지므로 그들은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모든 지적 능력이 일깨워질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감화의 분위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게끔 그들 스스로를 교육하고 훈육하게 될 것이다. {MH 466.1}

영생의 교육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평생사업은 영생을 위한 준비이다. 이 세상에서 시작한 교육은 이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토록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계속되어도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계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더욱 더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구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께서는 지식의 풍성한 창고를 열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 새로운 미(美)를 가지고 마음에 전개될 것이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신비한 것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MH 466.2}

우리가 이제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MH 466.3}

8편 일꾼의 필요성

40장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순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조용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생애에는 유창한 말보다 더욱 강력한 웅변이 있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보다 더욱 많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MH 469.1}

예수님께로 파견되었던 관원들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그분처럼 생애한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다. 만일 그분의 생애가 당신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을 것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다. 그분의 말씀에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순결하고 거룩하며, 사랑과 동정심이 충만하고, 자비와 진리가 많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MH 469.2}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화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성과 경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애에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준 복음이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산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감화력을 불신의 세계가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급히 흐르는 물결 속에서 죄인들을 건져 내려면, 우리 자신의 발이 만세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MH 469.3}

그리스도의 휘장은 겉으로 보여 주는 표지가 아니며, 십자가나 면류관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성품의 변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 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MH 470.1}

시련의 단련

그와 같은 생애를 하고, 그러한 감화를 끼치는데는 매 발걸음마다 노력과 자아희생과 수양을 요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너무도 쉽게 낙심해 버린다.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에 성실하게 바친 많은 사람들이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과 난관에 둘러싸이게 되면 놀라고 실망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보지도 않은 결점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심한다. {MH 470.2}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지도하기만 하면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써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추어 있는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정결해 지게 하신다.* {MH 471.1}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계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연단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치없는 돌을 당신의 용광로 속에 던져 넣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대장장이가 쇠와 강철을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은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금속인지 알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람들이 어떤 기질의 사람들이며 그들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이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 {MH 471.2}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형체를 만든다. 그는 흙을 이기고 또 빚는다. 그는 그것을 떼어서 찧고 또 눌러서 뭉친다. 그는 물로 축이고 다시 말린다. 그는 얼마 동안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을 놓아둔다. 그것이 완전히 말랑말랑해 지면 그는 그것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을 계속한다. 그는 그것으로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녹로에서 깎고 다듬는다. 그는 그것을 햇빛에 말리고 숯에서 굽는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용하기에 알맞은 그릇이 된다. 이와 같이 일꾼의 지도자 되시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만들기를 원하신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손에 놓여 있어야 한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일을 하고자 노력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 일꾼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꼴지어지면 된다. {MH 47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2, 13).* {MH 472.1}

밝은 대낮에, 그리고 다른 음성으로 된 노래들이 들려오는 동안에는 새장 안에 있는 새가 그의 주인이 가르쳐 주고자 애쓰고 있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새는 노래의 한 절 한

절씩을 여기 저기에서 떼어내어 짤막짤막하게 부르는 흉내만을 낼지언정 결코 단독으로 완전한 곡조를 다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이 새장을 덮고 그 새가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두면 그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어두움 속에서 그는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그 노래를 배워 완전한 곡으로 부르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으로 내어 놓으면, 그는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아래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후에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MH 472.2}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필생의 사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환경이 마음에 맞지 않으므로 그럴 것이다. 그들은 보다 높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로 그들의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흔히 그들의 노력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장래는 불확실하다. {MH 472.3}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기억하자. 좋아하는 일이든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MH 472.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서 기별을 전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욥바로 가거나 가버나움으로 간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그 장소로 보내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어야 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빌립을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에게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로 보내어 도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남녀들과 젊은이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신다 {MH 473.1}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

우리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우리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의도를 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길임을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바치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른 사업을 맡겨 주심으로 그렇게 거절하신 일에 균형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MH 473.2}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흔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거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하면서도 신성한 의무를 지나쳐 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흔히 그와 같은 의무는 우리가 더욱 고상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요긴한 훈련을 우리에게 준다. 때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은 실패한다. {MH 473.3}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그분께서는 많은 것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버리는데 불과하다. 심지어 그 자체가 좋은 것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더욱 훌륭한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MH 473.4}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MH 474.1}

우리는 모든 의무를,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 드려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일을 더욱 잘 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셔서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MH 474.2}

모세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

모세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 그가 왕의 손자로서 또한 장차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서 애굽에서 받은 교육은 매우 철저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지혜를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그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로 생각되었던 것은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문무(文武)를 겸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사업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판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써 모세를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다. {MH 474.3}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평생 사업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준비는 목자로서 일하는 동안에 받은 것이었다. 모세는 천성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성공적인 군대의 지도자로 왕과 국민들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국민의 인기를 끌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희망하였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배워야 할 교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가 양떼를 끌고 거칠은 산을 통과하여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 다니는 동안, 그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무아(無我)의 정신을 배웠다. 그는 약한 것을 돌봐 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고, 길 잃은 것을 찾아내고, 성질이 사나운 것을 참고, 어린 것을 보호하고, 늙고 쇠약한 것을 간호해 주는 법을 배웠다. {MH 474.4}

이렇게 일하는 동안 모세는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 밀접히 연합하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일을 하고자 계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자 힘썼다. 그는 그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깨달았다.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하는 중에, 그는 그분께서 임재해 계심을 더욱 더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영원한 팔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MH 475.1}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은 다음에, 모세는 그의 목자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고, 양떼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自信)이 없고, 말이 느리고, 수줍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일을 수락하였다. 위대한 그의 사명은 그의 최선의 정신력을 요구하였다.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위탁된 사업 중 최고의 사업에 적합하리 만큼 능변적이고, 희망에 넘치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다(신 34:10). {MH 475.2}

자신의 사업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욱 큰 책임을 맡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시느니라"(시 75:6, 7)는 말씀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위치를 채우는 여부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우리의 성실성에 달려있다. {MH 476.1}

우리는 자신을 동정하는 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대가 마땅히 받을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대의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등의 생각을 결코 갖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일체 버려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욱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렘 45:5).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면류관을 얻고자 더욱 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에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보수를 받는 것보다 의무를 다하고자 더욱 노력하는 사람들, 곧 승진을 위하여서보다 원칙을 위하여 더욱 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신다. {MH 476.2}

겸손하고,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은 떠들썩하고 잘난 체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업적이 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이 더욱 가치가 있다. 흔히 외관을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자신에게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업은 실패하게 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잠 4:7, 8). {MH 477.1}

많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제어하고 개혁할 결심을 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행동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들의 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다. 그리하면 그들은 언제나 봉사의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가치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MH 477.2}

만일 어떤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짐을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시험해 본 자들, 그들을 지혜롭게 전진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자들에게도 지우신다. 지정된 일을 매일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더욱 높이 올라오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MH 477.3}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동안 하늘에서 온 천사들은 그들을 방문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하나님을 위한 겸손한 일꾼이 그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일하는 방법을 주시하고, 더욱 큰 책임을 그의 손에 위탁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보게 된다. {MH 477.4}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지위에 의하여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동기의 순결성과 품성의 아름다움에 의하여 그들을 평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성령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의 형상을 그들의 생애에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 보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고, 믿음이 단순하고, 순결한 사랑을 갖는 것이다. {MH 477.5}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0:25, 26). {MH 478.1}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례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런 것이다. 하늘로 옮기어 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도 옥중에서 홀로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욱 위대하거나 더욱 큰 영광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29). {MH 478.2}

장래를 위한 계획

많은 사람들은 장래를 위하여 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들의 생애는 불안정하다. 그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염려와 불안을 갖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는 순례자의 생애임을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를 위하여 계획을 세울 지혜가 없다. 우리의 장래를 꼴지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MH 478.3}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를 하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분께 위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MH 479.1}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한 실패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라. 작은 어린 아이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분의 지도를 의지하라(삼상 2:9).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분과 협력함으로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지도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MH 479.2}

급 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따라오도록 부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바람직한 전망을 제공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유익이나 세속적 명예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 역시 어떤 보수를 받겠다는데 대하여 계약을 맺지 않았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향하여 구주께서는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았다(눅 5:27, 28). 마태는 그 봉사의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그의 종래의 직업에서 받았던 액수와 비등한 어떤 봉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는 구주와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MH 479.3}

이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렸다.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친족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나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질문하시자, 그들은 "없었나이다"고 대답할 수 있었다(눅 22:35). {MH 480.1}

오늘날 구주께서는 마치 당신이 마태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사업에 부르고 계신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으면 보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보호에 의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것같으면, 우리는 의무에 대한 분명한 지각과 이타적인 욕망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애는 세속적 동기를 초월한 고상한 목적으로 고무될 것이다.* {MH 480.2}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와 같은 헌신에 따르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와 같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MH 480.3}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근심의 짐을 지고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은 세속적 봉사를 택하였고, 세속적 근심을 받아들였고, 세속적 관습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성격은 망가졌고, 그들의 생애는 근심으로 눌리게 되었다. 계속적인 근심은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속박의 멍에를 벗어 버리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그들에게 초청하신다. 그분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30)고 말씀하신다. 근심은 눈을 가리우므로 장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께서는 구원해 줄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시 84:11). {MH 481.1}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 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MH 481.2}

오늘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내일의 시련을 위하여 가장 잘 대비하는 일이 된다. 내일의 부담과 염려를 모두 모아서 오늘의 짐에 첨가하지 말라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 6:34). {MH 481.3}

희망과 용기를 가지자. 하나님의 사업에서 실망하는 것은 죄악적이며 부당한 일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온갖 필요를 아신다. 언약을 지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한 하나님은 부드러운 목자의 보호와 친절을 겸하여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분명한 보증이 된다. 그분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줄 방편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서 마련하신 방편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른 어떤 사랑보다 더욱 뛰어난 사랑이다. 그분께서는 측량할 수 없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MH 481.4}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호전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마다 새로와질 것이다. {MH 482.1}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온갖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MH 482.2}

사도 바울은 시련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9, 10). {MH 482.3}

41장 대인관계

생애의 모든 교제는 자제와 인내와 동정이 발휘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꼭 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된다. {MH 483.1}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하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별반 알지 못한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선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우리의 언행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MH 483.2}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생각해 줌

많은 사람들은 그다지 큰 짐을 져 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고민을 별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별반 느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그의 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걱정과 수고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린 아이는 아버지가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 자신이 생애의 짐을 지게 되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고, 한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쓰라린 경험은 그에게 이해력을 열어 준다. {MH 483.3}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많은 사업이 이해되지 못하고, 마침내 그들이 죽음의 눈을 감을 때까지 그의 활동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가 내려놓은 짐을 지고,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그의 믿음과 용기가 어느 정도로 시련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흔히 그 때에 가서야 그들이 너무도 신속히 비난하던 잘못을 버리게 된다. 경험이 그들에게 동정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이 실수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교정하거나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심판하는 일을 우리 손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MH 484.1}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취한 행동에는 교훈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얼마나 부드럽고 예모 있고 관대하였던가.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광야로 왔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동굴에 들어왔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 다윗이 ...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삼상 24:4-6).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명령하신다(마 7:1, 2). 미구에 그대의 생애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임을 기억하라. 그분께서는 또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라(롬 2:1).* {MH 484.2}

잘못을 오래 참아 줌

우리는 우리에게 과해진 어떤 실제적 혹은 과학적 피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자아(自我)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다.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MH 485.1}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상호간의 교제에서 그처럼 흔히 대두되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개념치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벧전 2:20). {MH 485.2}

복수하지 말라. 그대는 할 수 있는 대로 오해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 그대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 24). {MH 485.3}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같은 정신으로 결코 대답하지 말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라(잠 15:1). 그리고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화를 낸 사람에게 대답으로 말을 하면 때때로 분노를 자극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그러나 부드럽고 오래 참는 정신으로 침묵을 지키게 되면 분노는 빨리 사라져 버린다. {MH 486.1}

찌르는 듯이 비난하는 말들이 폭풍우같이 쏟아질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라.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라. 만일 그대가 학대를 받거나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낸 대답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들을 반복하라. {MH 486.2}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 {MH 486.3}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시 37:5, 6). {MH 486.4}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 12:2). {MH 486.5}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시 66:12). {MH 486.6}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 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무쳐 있지마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요 13:7)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MH 486.7}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를 연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막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모든 계책들이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지켜 온 당신의 종들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셨다. {MH 487.1}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대의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질을 자극하여 화가 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올바른 정신으로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다. 매일, 매년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고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과업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계속적인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까지도 우리의 성품을 고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애를 유용하게 만드실 수 없다. 싸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힘과 기쁨을 잃어버린다. {MH 487.2}

우리는 시련과 곤란과 비애와 슬픔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록을 보관해 둘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책에 기록되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가 불쾌한 것들을 회상하고 있는 동안, 매순간 우리를 둘러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천사들도 경탄해 마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과 같은 유쾌한 생각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대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 더욱 큰 근심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대는 이와 같은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는 위안과 기쁨이 있다. 그분과 함께 하는 생활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라. {MH 487.3}

만일 그대가 쾌활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거든 그대의 감정을 이야기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그늘을 던져 주지 말라. 냉랭하고 음산한 신앙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결코 이끌지 못한다. 그런 신앙은 사람들을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사단이 방황하는 자들의 발앞에 펴놓은 그물에 걸리게 한다. 그대의 실망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라. 그대의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사물을 붙잡으라. 그대의 생각을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집중시켜라. 믿음은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저항하고, 실망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신다. 그분의 중보로 얻은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MH 488.1}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당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대는 귀양살이 간 사랑하는 요한처럼 그분을 위하여 어렵고 괴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일꾼들 중 한 사람도 홀로 있게 버려 둠으로써 많은 역경과 싸워 패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각 사람을 귀중한 보석처럼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각 사람에 대하여 "내가 ...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신다(학 2:23). {MH 488.2}

그리고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단 한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감추어지면, 그분께서 임재하신다는 생각이 깊고 조용한 기쁨을 일으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하여,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8:28, 29). {MH 488.3}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허락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그의 곁에 계시는 구주로부터 온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것도 그에게 접촉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 우리의 모든 핍박과 궁핍, 한 말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온갖 경험과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MH 489.1}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잘 알게 된 후에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화를 내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MH 489.2}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롬 12:10, 벧전 3:9). {MH 489.3}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의와 겸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MH 489.4}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의가 바르셨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모를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법관들 앞에 나온 바울을 보라. 아그립바 앞에서 한 그의 말은 설득력 있는 웅변에 대한 예증이 됨은 물론이요 참된 예의에 대한 예증이다. 복음은

이 세상에 유행하는 형식적인 예증을 권장하지 않고,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친절에서 나오는 예절을 권장한다. {MH 489.5}

생애의 외형적 예절을 가장 잘 계발한다는 것은 온갖 성내는 것과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과 좋지 못한 말을 금지하는 것 등으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예절은 자아를 최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있는 한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이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사랑에서 그 행동의 동기가 나오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애정의 뿌리에서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없는 관심이 솟아나게 된다. 사랑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우아함과 예모와 행동의 아름다움을 준다. 그것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음성을 부드럽게 해 준다. 그것은 전인적(全人的)인의 미에서의 사람을 세련되고 고상하게 해 준다. {MH 490.1}

생애는 주로 위대한 희생과 놀라운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애에 주목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큰 선이나 악이 초래되는 수가 너무도 허다하다. 습관이 꼴지어지고 품성이 잘못 형성되는 것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더욱 큰 시험이 올 때에,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 오직 우리는 일상생활의 시험 중에서 원칙대로 행동함으로써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확고하고 성실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MH 490.2}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기억하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증인이 계신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대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라.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족의 한 사람이요 하늘 왕의 자녀이다.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약 2:7)을 더럽힐 한 마디의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 {MH 490.3}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겸하여 갖춘 그 품성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물어 보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로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술책을 써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대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그대의 양심에 오점을 남기고자 하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쓸데없이 들어가지 말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에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악의 모양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생명을 계발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무엇인가를 하라. {MH 491.1}

언제나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고, 충동에 의하여 결코 하지 말라. 그대의 성급한 본성을 온유와 친절로써 조화시키라. 가볍고 경솔한 일에 빠지지 말라. 야비한 농담이 그대의 입술에서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생각에서까지도 비루한 일이 머물지 않도록 하라. 그것들은 제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끔 사로잡혀야 한다. 생각을 거룩한 사물에 집중시켜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진실해질 것이다. {MH 491.2}

우리는 순결한 사상 속에 있는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언제나 의식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일의 안전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기 때문이다(잠 23:7). 자제의 힘은 사용할수록 강하여진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쉬워지고, 마침내 올바른 사상과 행동이 습관화된다.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값싸고 열등한 모든 것을 버리고 높은 표준에 오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H 491.3}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는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MH 492.1}

열심 있는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실패의 껍질에 생계를 위탁할 수 없다. 악담(惡談)은 이중의 저주가 되는데,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가 더욱 큰 저주를 받게 된다. 분열과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자신의 심령에 치명적인 결과를 거두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을 찾아내는 바로 그 행동은 찾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악을 길러 준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품성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고상한 이상을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로 끌려 올라가 마침내 하나님께 계신 곳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는 빛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된다. {MH 492.2}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과 협력하려면, 나는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나는 모든 죄악을 나의 생애에서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모든 결점을 이겨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악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자들을 약하게 하는 대신에, 나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피차 간에 지나치게 냉정하다. 우리는 너무도 흔히 우리의 동료들에게 힘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대가 그들에게 관심과 동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라. 그대의 기도로써 그들을 도와 주고, 그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라. {MH 492.3}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어 있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제자들은 아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심지어 그분의 일꾼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세우신 원칙들로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경험이 옅은 동료 일꾼들에게 이따금 혼란과 낙망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아무도 잘못 인도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MH 493.1}

세상 끝까지 곡식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집 주인이 종들이 주인의 명예를 위한 열성으로 그 가라지들을 뽑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 집 주인은 말하였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마 13:29, 30). {MH 493.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인내로써 곁길로 나간 자들과 심지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까지도 오래 참으신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 가운데도 배반자 유다가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분의 일꾼들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해서 놀라고 낙심할 이유가 되겠는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심께서 당신을 배반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그 사람에 대하여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느정도의 인내심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참아야 할 것인가. {MH 493.3}

그런데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두가 유다와 같지는 않다.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교만한 베드로는 때때로 유다보다 더 큰 단점을 드러내었다. 그는 더욱 빈번히 구주의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는 얼마나 큰 희생과 봉사가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하여 얼마나 큰 증언이 되고 있는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MH 493.4}

그대는 무엇보다 먼저 그대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대 자신을 선교사로 간주하라. 때때로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죄에서 떠나 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있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영혼들이 그처럼 냉정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바 되는 영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피차 간에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들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MH 493.5}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그대에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한 동기를 알지 못한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품성은 비뚤어져 있고, 그들은 완고하고 왜곡되어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구부러져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대들은 나를 실망시켰어, 나는 그대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애쓰지 않을 것이야"라고 말함으로 그들을 결코 쫓아 버리거나,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키지 말라. 화를 내어 급하게 내어뱉는 몇 마디, 곧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 말은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지어 줄 감화의 줄을 끊어 버릴 수도 있다. {MH 494.1}

언행이 일치한 생애, 꾸준한 인내, 분노를 억제하는 침착한 정신은 언제나 가장 결정적인 논증이요 가장 엄숙한 호소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은 그와 같은 기회와 특권이 그대에게 주어지거든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지혜롭고 세심하고 친절한 선생이 되라. {MH 494.2}

밀초 위에 분명하고 확실한 도장을 찍으려면 급하고 거칠은 방법으로 도장을 눌러 버리지 않는다. 부드러운 밀초 위에 조심성 있게 도장을 대고 침착하고 조용히 눌러서 그 모양이 굳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사람들의 심령도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감화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데 따라 좌우된다.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경험을 말해 줌으로써 그들을 도와 주라. 그대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대의 동료들의 인내와 친절과 도움이 그대에게 참으로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라. {MH 494.3}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대는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판단력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 준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동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배은망덕하고 배반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멸시와 분노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하면 좋지 못한 반응이 생기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인내는 그들을 감동시켜 주고 흔히 그들에게 더욱 고상한 동기를 일깨워 주고 고상한 생애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 준다. {MH 495.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1, 2). {MH 495.2}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거기에는 고상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회의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과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등이 있다.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친절과 동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간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연마되고 고상해져야 한다. 우리는 형제로서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존하고, 다 함께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MH 495.3}

"하늘은 서로 서로 의지하여 살게 하신다

주인이나 종이나 친구들이 다 같이

모두가 서로 서로 도와 주라고 명하신다

한 사람의 약점이 무엇보다 강한 것으로 자라날 때까지." {MH 496.1}

사교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빛을 받은 모든 남녀들은 선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사교의 힘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계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보배처럼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즐기기 위하여 마음 속에 숨겨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활기를 주는 샘물로 우리 속에 간직해야 한다. {MH 496.2}

42장 향상과 봉사

그리스도인 생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완전히 온순함과 인내와 온유와 친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덕성들이 필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용기와 힘과 정력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시는 길은 좁은 길, 극기의 길이다. 그 길에 들어가서 어려움과 낙망을 뚫고 전진하는데는 연약한 것 이상의 것이 요망된다. {MH 497.1}

품성의 힘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곧 그들의 길이 순탄해지고 모든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기가 꺾인 일꾼들의 맥빠진 활동을 참신한 열성으로 고무시켜 줄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손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강해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MH 497.2}

선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풀이 죽고, 쉽게 낙심한다. 그들에게는 추진력이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되는 적극적인 특성, 곧 열성이 타오르게 하는 정신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고 희망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적극적인 덕성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덕을 계발해야 한다. 그들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부드러운 대답을 해야 하는 한편, 악을 저항하는 영웅적인 용기도 가져야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과 함께 그들의 감화력을 적극적인 세력이 되게 해 줄 품성의 힘이 필요하다. {MH 497.3}

어떤 사람들은 확고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과 계획에는 분명한 형태와 일관성이 없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비능률적인 것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바뀌어지거나 굴복될 수 없는 확고부동함이 있다. 우리는 도덕적 줏대, 곧 우쭐해지거나 매수되거나 위협받을 수 없는 진실을 소유해야 한다. {MH 498.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사업을 완수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고 그 사업의 신성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기를 바라신다. {MH 498.2}

훌륭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적은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적게 성취한다. 수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살아가야 할 큰 목적이 없고, 달성해야 할 높은 표준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통과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처해있는 위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지불된 그 값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MH 498.3}

낮은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마땅한 표준에 도달해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고력을 주시되, 그것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멈추어 있거나 세속적이고 비열한 것을 추구함으로 왜곡되는 반면 가장 높고, 세련되고, 거룩하고, 고상하게 계발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전진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게 하신다. {MH 498.4}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의하여 움직이는 단순한 기계가 되는 일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행동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주의 깊이 행동함으로써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개성을 견지하라.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 그대 안에서, 그대 곁에서, 그리고 그대를 통하여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라. {MH 498.5}

그대가 충분히 배웠으므로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지 말라. 세련된 마음은 성숙한 사람의 척도이다. 그대의 교육은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매일 그대는 배우고 배운 지식을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MH 499.1}

그대가 어떤 위치에서 봉사하든지 그대의 동기를 계발시키고 품성을 자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정확하고 부지런히 하라. 안이한 일을 찾고자 하는 경향을 극복하라. {MH 499.2}

매일의 활동에 적용되는 같은 정신과 원칙이 온 생애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해진 분량의 일을 하고 고정된 월급을 받으며, 적응이나 훈련에 어려움없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도록 부르시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일꾼들이 아니다. 그들의 모본은 전염성이 있다. 사욕(私欲)이 지배적인 동기가 된다.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배당된 매일의 의무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정력과 성실과 근면을 나타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무엇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MH 499.3}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무서워서 책임을 회피하므로써 무능해 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경험에서 얻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독서와 연구와 그 밖의 어떤 유리한 점에서 받는 교육도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게 된다. {MH 500.1}

사람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사람을 만들도록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환경을 일하는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해야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MH 500.2}

유능한 사람들은 반대를 당하고, 난처한 일을 만나고, 방해를 받아 온 사람들이다.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됨으로써 그들이 당하는 장애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훌륭한 축복임이 입증된다. 그들은 자기를 의존한다. 그러나 투쟁과 난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확고한 신뢰심을 발휘하게 해 준다.* {MH 500.3}

그리스도께서는 하기 싫은 봉사를 마지못해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일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시간과 마음과 심령과 능력은 인류의 유익을 위한 활동에 바쳐졌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나날을 일하는데 쓰셨고, 긴 밤 시간은 더욱 큰 일을 하기 위한 은혜와 인내력을

얻기 위한 기도에 바쳤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힘을 얻고, 온갖 기만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간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무장을 갖추고자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하나님께 탄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다(요 13:15). {MH 500.4}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 말하였다(고후 5:14). 이것이 바울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었고 그의 동기가 되는 힘이었다. 그의 열성이 한 순간이라도 의무의 길에서 약해지면, 일단 십자가를 쳐다봄으로써 그는 마음의 허리를 새롭게 동이고, 자아부정(自我否定)의 길을 전진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형제들을 위하여 활동할 때 부드럽게 해 주고 고취시켜 주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희생에 나타난 무한한 사랑의 표현에 크게 의지했다. {MH 500.5}

그의 호소가 얼마나 열렬하고 감동적인지 생각해 보라.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그대는 그분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서 굽어보셨으며, 얼마나 심한 굴욕 속으로 내려오셨는지 안다. 그분의 발은 희생의 길을 밟게 되었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하늘에 있는 보좌와 십자가 사이에는 그분을 위한 휴식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달게 받으시고 모든 능욕을 견디셨다. {MH 501.1}

바울은 우리에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권면한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4-8). {MH 501.2}

바울은 그리스도의 굴욕이 알려지고 이해되게 하고자 심히 열망하였다. 그는 만일 사람들이 하늘의 왕께서 겪으신 놀라운 희생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기심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사도는 죄인들을 위한 구주의 놀라운 희생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하나씩 헤아려 본다. 그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 계실 때 가지셨던 지위를 생각해 보도록 이끄신다. 그는 그 후에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원해서 인간 생활의 비천한 상태를 취하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곧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역겨웁고, 가장 고통스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우리는 감사와 사랑이 없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지 않고 이처럼 놀랍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주님을 인색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섬겨서는 안된다. {MH 501.3}

베드로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한다(벧전 1:18). 아, 만일 은이나 금으로 인간의 구원을 살 수 있었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학 2:8)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 일을 얼마나 쉽게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써만 구속(球贖)될 수 있었다. 이 놀라운 희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물러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이다. {MH 502.1}

일편단심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사업, 곧 그분께서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위대한 구속사업에 종속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와 꼭 같은 헌신, 꼭 같은 자아부정과 희생,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 등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MH 502.2}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하늘이 이루어 준 일을 명상할 때 그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과 경이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업에 다 바쳐 헌신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열망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사신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갈망한다. 그는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희생한다. {MH 502.3}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 그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모든 역량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는 모든 의무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이행할 것이다. 그의 한 가지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존경과 완전한 봉사를 받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MH 502.4}

쟁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수소를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밭 이랑에서 일을 하든지 희생제물의 단 위에 바쳐지든지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글귀가 씌여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의 자세, 곧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가 요구하는 곳으로 가서 구주의 사업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이다. {MH 502.5}

43장 최고의 경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높이 올라오라, 거룩하게 되라, 더욱 거룩하게 되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할 것이다. {MH 503.1}

주님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희미하게 깨닫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감격한다. 그들은 구주의 사랑을 좀 더 완전하고 깊게 깨닫고자 갈망한다.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온갖 욕망을 간직하게 하라. 성령께서는 역사하도록 용납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꼴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꼴짓고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새 형상으로 조성하신다. 그대 자신을 신령한 생각과 거룩한 교제로써 계발시켜라.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여명의 첫 광선을 본데 불과하다. 그대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함에 따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잠 4:18). {MH 503.2}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5:11). {MH 504.1}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가 어려움과 자아희생으로 충만해 있었지마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기뻐하셨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당신 자신의 품성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새로 형성시키고 당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실 것이다. {MH 504.2}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수고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하셨다. 그분께서는 먼 장래를 보시고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받을 사람들의 행복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채찍에 맞으셨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짖는 환성(歡聲)을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속량(贖良)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세상의 죄가 흠없는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누르고, 말할 수 없는 저주의 그림자가 그분 위에 덮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자 그 길을 택하셨다. {MH 504.3}

이 기쁨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기쁨이다. 그러나 내세의 상급이 아무리 크고 영광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상급을 모두 최후의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을 위하여 간직해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주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견디어야 하다. {MH 504.4}

오늘날 교회는 싸우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흑암의 세상과 대결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을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의 율법 이외에 어떤 율법도 알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어 찬양과 감사의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기뻐할 것이다. 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 세상은 하늘의 빛에 잠기게 될 것이다. 달빛은 햇빛과 같이 되고, 햇빛은 지금보다 일곱 배나 더 밝아질 것이다. 세월은 기쁨 중에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도 다시 없으리라"고 선포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새벽 별들은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소리치게 될 것이다. {MH 504.5}

장래의 영광에 대한 이 계시들, 곧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장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 {MH 506.1}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며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환영의 말을 영원한 나라의 문턱에 서서 들어보라. 천사들과 함께 그들은 면류관을 벗어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고 부르짖는다(계 5:12, 13). {MH 506.2}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설 때 온 하늘은 승리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고 기쁜 노래를 부른다. {MH 506.3}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9, 10). {MH 507.1}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 7:14-17, 21:4). {MH 507.2}

우리는 언제나 이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한 계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사물과 순간적인 사물과의 가치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켜 고상한 생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할 것이다. {MH 508.1}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음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전에 그에게 한적한 산에서 40년 간 당신과 교제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불붙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천사와 이야기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그는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상숭배자들을 재판하기 전에 그는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출 33:19, 34:6, 7). 모세가 그의 생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짐을 벗어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허락의 땅의 영광을 그의 앞에 펼쳐 보이셨다. {MH 508.2}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가자는 명령을 받았다. 오순절의 능력과 영광이 있기 전에, 구주와 교제를 나누는 밤, 갈릴리의 산에서 가진 집회, 감람산에서의 이별의 장면과 천사들의 약속, 다락방에서의 기도와 교제 등이 있었다. {MH 508.3}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한적한 산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새곤 하셨다. 열 두 사도의 안수, 산상설교, 변화산의 경험, 심판정과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룻밤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MH 509.1}

기도의 특권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기도와 믿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똑 같은 위치에 두 번 처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 충분한 지도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빛을 받아야 한다. {MH 509.2}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별을 보내 주신다. 겟세마네의 고통의 밤에 자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천사의 임재를 희미하게 느꼈으나 그곳에 있는 능력과 영광은 잃어버렸다. 그들은 졸음과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무서운 사건들을 위하여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해 줄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훈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이 흔히 그것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MH 509.3}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시험은 기도를 요구한다. 도처에 위험이 둘려 있다. 다른 사람들을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들은 죄악과 끊임없이 접촉할 때 그들 자신이 부패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 필요가 있다. 사람들을 높고 거룩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는 길은 신속하고 결정적이다. 한 순간에 사람의 상태를 영원히 고정시켜 버리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번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심령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의 악습이라도 그것을 굳게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이 쇠줄처럼 강하게 되어 온 전신을 결박해 버릴 것이다. {MH 509.4}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시험받는 장소에 버려 두는 것은 주님을 언제나 그들 앞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도록 허용하면 우리의 방패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그대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그대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되며, 열렬하고, 끈기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MH 510.1}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사람들을 찾아가되, 그들이 흑암에 싸여 있고, 죄악에 빠져 있고, 타락함으로 더러워져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는 분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악은 우리의 의복에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활동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것같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음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생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의 비결이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환경은 악한 것을 모두 싫어하도록 마음을 고무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꼭 같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상과 목적에 있어서 그분과 일치되어야 한다. {MH 511.1}

야곱이 연약하고 죄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된 것은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대 역시 그렇게 함으로 높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남녀, 고상한 생애를 하는 남녀, 어떤 이유에서라도 진리와 정의와 공의에서 떠나지 않는 남녀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심한 걱정과 무거운 짐과 의무에 눌려 있다. 그러나 그대의 업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에게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다. {MH 511.2}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다. 병자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은 이따금 그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쓸데없이 예배당에 결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MH 511.3}

병자들을 간호할 때는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사업에서보다 그 일에 바치는 헌신과 희생정신에 성공이 더욱 크게 좌우된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자기 자신을 놓아 둘 필요가 있다. 그대에게 맡겨진 지위는 다른 사람들의 지위보다 책임이 더욱 중하기 때문에 그대는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 {MH 511.4}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얻는 실제적인 결과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나타내야 한다.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평화가 얼굴에 반사될 것이다. 그것은 음성에 설득력이 있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품성과 생애를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일하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능력이 그 자신에게서 박탈당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MH 512.1}

우리는 이중(二重)의 생활, 곧 생각하고 행하는 생활, 조용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얻은 능력은 사려 깊고 주의성 깊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열렬한 노력과 합하여 사람을 일상생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모든 환경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 준다. {MH 512.2}

거룩한 보혜사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세속적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해지고, 전도는 암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 곁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강한 보혜사가 계시며, 그들에게 당신을 확신하라고 호소하신다. 죄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버리고 우리 자신들처럼 하나님께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사람들을 찾아갈 것인가? {MH 512.3}

위대한 사업에 비교해 볼 때 그대는 그대의 품성의 결함과 능력의 부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일찍이 사람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한 지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그대의 사업을 위하여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요 15:5).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확고하고 꾸준한 믿음으로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 {MH 513.1}

그대의 사업에 있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한 교제에 있어서, 생애의 모든 약속에 있어서, 한 말로 그대가 이루는 모든 교제는 열렬하고 겸손한 기도로 시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대가 상심될 때 기도하라. 실망 중에 있을 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앞 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라. 그대의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라. 그대의 연약한 상태에서 무한한 능력을 붙잡으라. 그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진을 위하여 기도하라. {MH 513.2}

헌신과 신뢰

우리가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고 또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곳에 있게 된다. 우리가 지난 날에 받은 자비와 축복을 근거로 더욱 큰 축복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의 것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고상하게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MH 513.3}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게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더욱 많이 신뢰해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대의 의지와 길을 그분께 맡겨라. 단 한가지도 자신을 위하여

남겨 두지 말고, 단 한 가지도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MH 513.4}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지 않으면 단순히 안식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통독하고, 성경절을 하나 하나 설명하는 것 등이 우리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해력과 의지와 애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교훈이 생애의 원칙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MH 514.1}

그대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대가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대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라.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오직 구하기만 하면 된다. {MH 514.2}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이다. 그대는 마치 영원한 팔에 안겨 있는 것처럼 높이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빛으로 그대는 그대가 전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MH 514.3}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MH 514.4}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MH 5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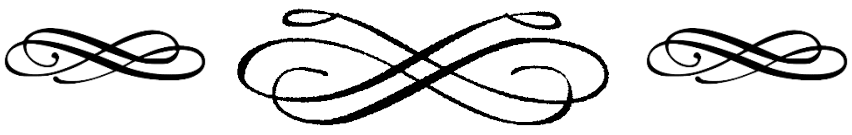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4-16). {MH 516.1}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MH 516.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MH 516.3}

"이기는 자 ...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 2:26-28, 3:12) {MH 516.4}

"오직 한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빌 4:13). 과거의 과오와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사도처럼 말할 수 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3, 14). {MH 516.5}

끝을 기대하면서